

석사학위논문

5학년 때에는 모든 게 불만이에요.

- Nothing's Fair in Fifth Grade -

제주대학교 통역대학원

한영과

김 미 옥

2004년 6월

5학년 때에는 모든 게 불만이에요.

지도교수 박 경 란

김 미 옥

이 논문을 통역 · 번역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4년 6월

김미옥의 통역 · 번역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위 원 _____

위 원 _____

제주대학교 통역대학원

2004년 6월

Nothing's Fair in Fifth Grade

Mi-oak Kim

(Supervised by Professor Kyung-ran Park)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Korean-English

GRADUATE SCHOOL OF INTERPRET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June 2004.

목차

ABSTRACT	1
1. 똥똥한 금발 소녀	2
2. 스포츠카는 두 사람만 타요.	7
3. 고자질하기	11
4. 도둑잡기	16
5. 교무실 감방	26
6. 똥똥한 여자 애들은 춤출 줄 몰라요.	33
7. 가정교사	42
8. 다시 돈이 없어 졌어요.	48
9. 밤샘파티	63
10. 아빠는 집안일을 도와주지 않아요.	72
11. 지나가는 차 얻어 탄 애들	75
12. 이탈자	79
13. 고양이가 밤에 외출해요.	85
14. 평화 회담	87
15. 여선생님이 윈크했어요.	93
16. 내 신발이 보여요.	98
작가소개	104
참고문헌	105

Abstract

This book, *Nothing's Fair in Fifth Grade* by Barthe DeClements, is about a girl in the fifth grade named Jenny. One day a huge, ugly girl comes to Jenny's class. Her name is Elsie and everyone hates her as soon as she walks in the door. Elsie is on a diet and can only eat what is in her lunch box. So she steals money from her classmates to buy candy but she gets caught. Everything turns around when Elsie's skirt falls down in class. Feeling sorry for her Jenny decides to be Elsie's friend. Then Jenny gets a bad grade in math and Elsie becomes her tutor. Elsie helps Jenny's grade go up but when Elsie, Jenny, their friends, and younger siblings go to a carnival Elsie gets in trouble. Now Elsie's mother has decided to send Elsie to boarding school and Jenny has to convince her to let Elsie stay. Finally Jenny finds that her teacher is the best person who persuades Elsie's mother not to send her daughter to a boarding school. So thank's to her teacher and other friends' efforts, Elsie can stay in the school with Jenny and other friends.

The story is written from a girl's point of view on her vivid school life in dialogue style. So it is easy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to read it, find the common things and feel sympathy for the students in this story.

똥똥한 금발 소녀

우리 5학년 담임선생님이신 한승 선생님은 책상에 앉아 시험지 채점을 하고 계셨다. 우리는 모두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하나의 중심 문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세 개의 문장으로 단락 작문을 하기로 되어 있었다. 내가 새로 산 회색 빛 순한 새끼 고양이는 10주가 되었다고 썼다. 내가 쓰는 것은 뭐든지 순한 회색 빛 털을 가진 10주된 고양이에 대한 것만 써야 했다. 새끼 고양이에게 밖에 나가는 방법을 가르칠 수 없었다는 내용은 맞지가 않았다. 새끼 고양이가 엄마 침대에 한 번만 더 들어가면 더 이상 기를 수 없다는 내용도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다. 작문 종이를 구겨 버렸다. 개구쟁이 같은 어린 남동생에 대해서 중심 문장을 작성하기로 결심했다. 이에 대해서는 많은 근거 문장들을 생각할 수 있었다.

막 새로운 단락의 작문을 시작했을 때 교실 문이 열리고 아줌마와 똥똥한 금발 여자애가 걸어 들어왔다. 샤론은 내 뒤에 앉아 있었는데 “우” 하는 소리를 냈다. 다이앤은 내 옆에 앉아서 소곤거렸다. “쟤가 우리 반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 아줌마는 여자애를 앞으로 밀었다. “애가 엘시 에드워즈입니다.” 라고 말했다.

“안녕, 엘시?” 한승 선생님께서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라고 엘시는 마루를 내려다보면서 대답했다.

엘시의 엄마는 몸을 기울이며 한승 선생님과 조용히 말씀하시려고 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말없이 말뚱말뚱 쳐다보면서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다 들었다. 에드워즈 아줌마는 한승 선생님께 엘시가 특별 다이어트중이라고 했다. 도시락 이외는 어떤 것도 먹지 않을 거라고 했다. 저 고래비계를 녹여 없애려면 어떤 특별한 다이어트가 필요할 거라고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엘시 엄마가 떠나자, 한승 선생님은 똥똥한 여자애와 교실 앞으로 걸어갔다. 엘시의 엉덩이는 엄청나게 커서 치마 자락이 통로 양쪽 책상을 쓸고

지나갔다. 개가 책의 책상 옆을 지나가자 책은 겁나서 몸을 움츠렸다. 몇 명이 킁킁했다.

“여러분, 우리의 새 친구 엘시입니다.” 라고 한슨 선생님은 말씀하셨다.

“농담이겠죠.” 로이가 투덜거렸다.

“재 어마어마하네.” 다이앤은 조용히 말했다.

엘시는 엄청났다. 두 눈은 지방이 덩어리진 뺨 위에 찌그러져 있었다. 턱은 살이 겹쳐져 목 아래로 쳐져 있었다. 가슴 아래에 배가 볼록 튀어 나왔을 뿐 정말 허리라고는 없었다. 다리는 끝부분을 신발에 쑤셔 넣은 베개처럼 보였다. 누구나 엘시가 우리 반이 되는 걸 싫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겠다.

다이앤은 내 한 쪽 옆에 앉아 있었지만 다른 한쪽 옆은 우리 반에서 유일하게 비어있는 자리였다. 제기랄! 한슨 선생님께서 교과서 몇 권을 들고 엘시를 그 빈 책상으로 데리고 오셨다. “제니퍼, 쉬는 시간에 엘시에게 학교 안내를 해 주겠니?” 라고 선생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애써 예의 바르게 그러겠다고 대답했지만 쉬는 시간을 망치고 싶지 않았다. 항상 다이앤과 샤론과 같이 놀았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나가시자 다이앤에게 같이 엘시에게 학교 구경 시켜 주는 일을 도와줄 수 있냐고 귀엣말로 물었다. 다이앤은 말도 안 된다고 작은 소리로 대답했다. 그래서 나는 엘시와 붙어 있어야 했다.

나는 엘시에게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사무실, 체육관, 도서관을 알려줬다. 학교를 둘러보고서 엘시에게 테더볼¹ 게임을 할 건지 물어 봤다. 그냥 구경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나는 개를 놔두고 다이앤과 샤론을 찾으러 갔다. 엘시는 쉬는 시간종이 울릴 때까지 학교 담 벽에 기대서 있었다.

체육시간에 엘시는 같이 참여하기보다 그냥 구경하고 싶다고 한슨 선생님께 말씀드렸다. 선생님은 잠깐 생각하시고 나서 첫날이라 팬츠를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 엘시는 운동장 무대 계단에 앉아 우리가 더치 볼² 게임하면서

1 빙 둘러 서서 기둥에 줄로 길게 늘어뜨려 진 공을 치는 게임.

2 가운데 앉은 솔래를 빙 둘러선 애들이 공으로 맞히면 솔래에게 물세례를 퍼 붓는 게임.

서로 공격하는 것을 구경했다.

하지만 점심때는 그냥 지켜보고만 있지 않았다. 개는 책상위로 몸을 굽혀 당근과 보온병의 스프와 배를 3분 만에 게걸스럽게 먹어치웠다. 다 먹고서 개는 옆으로 몸을 기울이며 나에게 옥수수 빵을 먹을 건지 물어 봤다. 옥수수 빵은 학교 요리사들이 망치지 않은 유일한 음식이었다. 하지만 나는 빵을 사분의 일 만큼 떼어 내서 개에게 주었다.

“고마워.” 엘시는 빵 조각을 입에 밀어 넣으며 웅얼거렸다. 개는 빵을 씹으면서 샤론의 점심 그릇을 쳐다봤다. 샤론은 다이앤과 얘기하고 있었고 다이앤은 빨대로 우유를 마시며 짧고 검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닿지 않도록 잡고 있었다. 엘시는 손을 뻗어 샤론 옆구리를 툭툭 찔렀다.

“디저트 먹을 거니?” 라고 물었다.

“그래, 먹을 거야.” 샤론은 대답하고 다시 다이앤에게 얼굴을 돌렸다.

엘시는 점심가방에 보온병을 집어넣고 화장지를 뭉쳤다. 쓰레기통에 화장지 뭉치를 버리려고 일어섰다. 자리로 오면서 마리엔 책상 앞에서 멈춰 섰다. 마리엔의 옥수수 빵이 접시 위에 있었다. 마리엔은 잭이 우유 빨대들로 입으로 뺨는 총알을 만들려고 자르는 것을 보고 있었다.

“저기, 옥수수 빵 먹을 거니?” 엘시가 물었다. 마리엔은 잭을 계속 보고 있었다.

엘시는 마리엔의 이름을 몰라 팔을 툭툭 찔렀다. “옥수수 빵 먹을 거니?”

마리엔은 놀라서 엘시를 쳐다봤다. 마리엔은 접시를 앞으로 밀쳤다. “아니야, 가져가.” 라고 말했다.

엘시는 마리엔의 옥수수 빵을 입안에 쑤셔 넣으며 통로 사이를 헤집어 자리로 되돌아오기 시작했다. 리차드와 잭의 책상 사이가 너무 비좁게 되어 있었다. 리차드의 책들이 바닥으로 미끄러져 떨어졌다.

“이봐, 조심해!” 리차드가 소리쳤다.

한순 선생님이 쳐다봤다. 엘시가 책들을 들어 올리려고 멈추자 스커트가 그녀 뒤에서 크게 굽이쳤다. 잭은 손을 들어 거대한 목표물을 겨냥해 세계

내리치려고 했다.

“잭!” 한슨 선생님이 날카롭게 불렀다. 잭은 천천히 손을 내렸다. 한슨 선생님은 엘시에게 뭘 먹고 있는지 물었다.

엘시는 꿀떡 삼켰다. “점심요.”

“누구 점심이지?” 한슨 선생님이 궁금해 하셨다.

“옥수수 빵 조각 조금인데요.” 엘시가 답했다. 그녀의 두 볼이 빨개지며 턱 아래로까지 빨개졌다. 모두가 쳐다보고 있었다.

“엘시, 너는 다이어트 중이라고 엄마가 말씀하셨어. 교실에서는 엄마가 점심도시락에 담아준 것만 먹어야 해, 알겠니?” 한슨 선생님께서 엘시의 두 눈을 정면으로 바라봤다.

“하지만 너무 배가 고파서요.” 엘시가 울먹였다. 개는 교실 주위를 슬쩍 둘러 봤다. 개가 안됐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다. 그런 일을 당해서 유쾌했다. 개는 너무 어마어마했다.

엘시는 덧붙여 말했다. “점심으로 뭘은 수프, 당근과 배밖에 못 먹었어요.” “배가 고프다면 안됐구나, 엘시. 하지만 이걸 네가 엄마와 의사 선생님과 같이 처리해야만 할 일이다.” 한슨 선생님은 엘시에게서 시선을 돌려 우리에게 교실을 깨끗이 정리하라고 하셨다.

점심시간 후 비가 오고 있어서 우리는 운동장에 나갈 수 없었다. 엘시는 학교 벽에 기대 서있었고 우리들은 개에 대해 얘기하며 지붕이 덮인 아래에 모여 있었다. 샤론이 개는 서커스단에 있어야 한다고 했고 다이앤은 쓰레기 줍는 사람이 됐어야 한다고 했다. 모두가 그 농담에 킬킬대고 있는 동안 나는 엘시를 힐끗 쳐다봤다. 엘시는 텐트같이 큰 코트를 사방에 펼치며 가만히 그곳에 서있었다. 개 입이 우울하게 아래로 썰쭉하게 처진 것 같았다.

학교에서 집에 돌아오자, 부엌에 온통 초콜릿 쿠키 냄새가 풍겼다. 의자 위에 젖은 옷을 걸쳐 놓고 찬장 문을 열어 과자 접시를 찾아 네 개까지 마구 집어 먹었다.

엄마가 감자 껍질을 벗기다가 쳐다보셨다. “제니퍼!”

나는 과자 한 개를 도로 집어넣고 부엌 식탁에서 나머지를 먹으려고 앉았다. 어린 동생 케니가 내 주위를 맴돌며 낮은 소리로 소곤거렸다. “나도, 제니누나.” 그래서 나는 틀림없이 엄마가 남동생에게 더 이상 먹으면 안 된다고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소곤거리는 것이 통하지 않자 동생은 내가 앉은 의자 받침대를 짚고 올라와 내 긴 머리를 가볍게 두드렸다. 쿠키 조각을 떼어서 주었다. 동생은 듬성듬성 난 이를 드러내어 씩 웃어 보였다.

엄마가 감자를 잘게 썰는 것을 보며 엄마에게 엘시에 대해 말했다.

“왜 개는 그렇게 많이 먹는지 모르겠구나.” 엄마가 말했다.

내 생각에 그건 이상한 질문이었다. 엘시는 배고프니까 먹는 게 아닌가?

스포츠카는 두 사람만 탄다

다음날 점심시간에 교실에서 내가 학교 급식 그릇을 받기도 전에 엘시는 점심 도시락을 깨끗이 비웠다. 개는 손을 포개고 앉아 처음에는 샤론을 쳐다보다가 나를 쳐다봤다. 점심시간 중간에 더그라스 교장선생님이 들어 오셨다. 교장선생님은 아주 몸집이 크시고 농담을 좋아하시는 분이다. 말쑥꾸러기만 아니라면 그분은 최소한 그렇게 대하신다. 교실을 돌아다니시며 애들에게 점심이 어떤지 물으셨다. 엘시에게 와서 말했다. "꼬마 숙녀, 점심은 어디 있니?"

"먹었어요." 개는 절대로 어른들을 제대로 쳐다보지 않았고, 줄곧 얼굴을 아래로만 숙이고 있었다.

"맛있게 먹었기를 바란다." 교장선생님은 엘시의 어깨를 툭툭 치시고는 계속 통로를 지나가셨다.

손가락에 케이크 당분이 묻어있는 것을 훑으면서 선생님을 보고 있는 엘시를 봤다. 한슨 선생님이 차를 휘저으려고 머리를 숙이자 엘시는 샤론을 향해 몸을 뒤로 기울였다.

"케이크 먹을 거니?"

"그래, 먹을 거야." 샤론이 접시를 가슴 앞으로 당기며 말했다.

엘시는 마리앤 쪽으로 몸을 돌렸다. "케이크 먹을 거니?"

마리앤은 반에서 가장 키가 작은 애다. 머리가 아주 좋은 건 아니지만 모두에게 상냥하게 대한다. "너 반 먹어." 마리앤이 말했다.

엘시는 케이크 조각을 가져가 입에 밀어 넣었다. 한슨 선생님이 대번에 엘시의 책상 쪽을 보셨다.

"엘시, 뭐 하는 거니?"

엘시는 너무 놀라 아랫니에 초콜릿 케이크 덩어리를 문 채로 입을 퍼덕벌렸다.

"엘시, 그거 쓰레기통에 뱉고 다시는 내 말을 어겨서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해라.”

한승 선생님의 목소리가 하도 날카로워서 내가 다 몸이 떨렸다.

엘시는 쓰레기통에 케이크를 뺏어 냈고 그 동안 우리 모두는 목을 빼고 쳐다봤다. 자리로 다시 돌아와서 엘시는 독서 책을 꺼내어 중간쯤을 펼쳐서 그 페이지를 응시했다. 한승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은 조용히 말씀하시며 교실 앞에 서계셨다. 그리고 나서 더글라스 선생님이 엘시에게로 와서 다시 어깨에 손을 얹으셨다.

“꼬마 아가씨, 이제부터 학교에서는 바르게 생활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한다. 여기서는 어떠한 괴상한 행동도 용납되지 않을 거다.” 라고 말씀하셨다.

괴상한 행동이 뭘 뜻하는지 나는 잘 몰랐지만 엘시가 다른 학교에서 어떻게 했었는지 궁금했다.

그날 이후 남자애들은 엘시를 음식 구걸꾼 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개는 반에서 따돌림 당했다.

엄마는 모든 사람들에게 상냥하게 대해야 한다고 하신다. 엄마가 어렸을 때 다녔던 학교는 지금과 달랐거나 아니면 단지 기억을 잘 못하는가 보다. 나는 심술궂은 애가 아니지만 제일 친한 친구들이 있다. 누구하고나 어울리는 마리엔 같은 여자 애들이 있는데 모두가 항상 그런 애들을 좋아한다. 마리엔에게는 미워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개는 작지만 친근감이 들며 뭐든지 빌려줄 것이다. 엄마는 마리엔이 흠잡을 데가 없다고 하신다. 하지만 마리엔은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도 C밖에 못 받는다고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는 성적이 다가 아니라고 하셨다. 엄마는 매사에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내가 성적표를 집에 가져올 때는 A 와 B만 받아야 할 거다.

그래서 마리엔은 엘시에게 말을 걸었지만 그 밖에 어느 누구도 엘시 옆에 가지 않았다. 엘시는 쉬는 시간에 학교건물 벽 옆에 계속 서있었다. 몰래 캔디를 나눠 주는 애를 보게 될 때까지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그리고는 바로 와서 한 조각 달라고 했다. 점심때는 음식을 달라고 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한슨 선생님이 매처럼 감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슨 선생님은 이유 없이 애들을 괴롭히지 않지만 나쁜 짓을 하면 바로 야단을 칠 것이다. 선생님이 잡아내기 어려운 유일한 사람은 잭이었다. 그 애는 대부분 선생님이 잡아내기에는 너무나 갑작스럽게 남몰래 장난을 쳤다.

어느 날 엘시가 우리 반이 된지 몇 주가 지났을 때 한슨 선생님이 지구본 학습을 그룹으로 할 것이라고 했다. 지구본 7개가 있어서 결국 지구본 하나를 네 명이 사용해야 했다. 한슨 선생님은 마리앤에게 첫 번째 그룹을 고르라고 하셨다. 마리앤이 나와 다이앤을 택했다. 다음에는 친구이기 때문에 샤론을 선택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 개는 엘시를 택했다. 내가 반대하려고 입을 벌렸지만 한슨 선생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얼른 입을 다물었다.

우리 그룹은 선생님 책상 옆 마루 위에 앉았다. 같은 워크시트에는 여섯 도시의 위도와 경도 목록이 기록되어 있었다. 우리는 지구본위에 있는 도시들을 찾아 도시 명을 적기로 되어 있었다. 사회과목을 가장 잘하는 다이앤이 대부분의 도시들을 찾아내서 다른 그룹들 보다 먼저 끝냈다.

나는 다이앤네 텔레비전이 고장 났기 때문에 전날 밤 모크와 민디³ 코믹쇼가 어떻게 됐는지 개에게 얘기해 줬다. 예의상 마리앤은 엘시에게 최근에 어떤 영화를 봤는지 물어 봤다. 여동생과 엄마가 주말에 쇼를 봤지만 자기는 가지 않았다고 엘시가 말했다.

“왜 안 갔어?” 다이앤이 물었다.

“우리 엄마는 스포츠카가 있는데 두 사람만 타는 거야.” 엘시가 말했다.

“그러면 너는 다음에 가게 되겠구나.” 마리앤이 말했다.

“그럴 것 같지 않아.” 엘시가 머리를 천천히 가로저었다.

“왜 안가?” 다이앤이 물었다.

“음, 나는 집에 혼자 있어도 될 만큼 충분한 나이가 됐고 내 동생은 아직 어리다고 엄마는 말하셔.” 엘시가 설명했다.

3 미국 70년대 말 인기 있었던 TV 쇼 프로그램.

“말도 안돼, 엄마가 어린 동생을 돌볼 사람을 구하면 되잖니?” 다이앤이 말했다.

“이따금 그렇게 하시긴 하지만 나를 데리고 가려고 그러지는 않아.”

“왜?” 다이앤이 집요하게 물었다.

“내가 엄마 딸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걸 원하지 않는 것 같아. 아마도 난 너무 살이 많이 찼나봐.”

나는 엘시가 머리카락 중에서 금발 곱슬머리를 가려내어 두툼한 손가락으로 비비꼬며 획 잡아당기는 것을 봤다. 마리앤 역시 이 모습을 본 것 같았다. 왜냐하면 갑자기 새끼 고양이가 어떻게 지내는지 나에게 물어봤으니까. 나는 마리앤에게 새끼 고양이는 뒤쪽 현관 위에 침대 상자에 있다고 말했다. 그 새끼 고양이는 나와 놀 때를 빼고는 항상 밖에 있어야 한다고 했다.

“엄마는 나를 고양이 새끼 다루듯이 하려는 게 틀림없어.” 엘시가 말했다.

나는 엄마에게 엘시와 그 엄마에 대해 말했다. “가엾은 어린 것.” 엄마가 말했다.

“엄마, 개는 전혀 어린 것이 아냐.”

고자질하기

학교에 점심 값을 가져올 때마다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돈을 내 책상 안이나 가깝은 책상 위에 내버려 둘 때가 있다. 누구도 교실에서 물건을 잃어버린 적이 없었다. 그래서 돈을 호주머니에 보관하면 잃어버릴 수가 있었다.

돈을 잃어버리면 학교에서는 점심을 공짜로 주지 않을 것이다. 선생님들도 돈을 빌려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럴 때는 학교 사무실로 가서 사무실 직원한테서 냉동 땅콩버터 샌드위치를 받아먹어야 한다. 사무실 직원은 교무실 냉장고 안에 상당한 양의 샌드위치를 넣어두고 있다. 샌드위치는 한 번도 점심시간에 맞춰 완전히 해동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걸 먹게 되는 건 고역이다. 어떤 애들은 사무실 직원이 주는 샌드위치를 먹으려고 하기 보다는 차라리 그냥 굶기도 한다. 아마도 학교에서는 이렇게 하면 애들이 점심식대를 잃어버리는 일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5학년 학기 중반 무렵 누군가의 책상에서 돈이 없어졌다. 25센트 동전들이 매일 없어지고 있었다. 마리앤이 처음으로 돈을 잃어 버렸다. 나는 그건 단지 사고라고만 생각했다. 아마도 한슨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다. 선생님은 마리앤에게 책상을 잘 찾아보라고 말했다. 마리앤은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돈을 못 찾고 땅콩 버터샌드위치를 먹었다. 어떤 애들은 마리앤에게 쿠키를 줬고 잭은 우유를 줬다. 잭은 마리앤에게 자기는 우유를 싫어한다고 했는데, 내가 알기로 개는 이전에는 항상 우유를 마셨다.

다음날 로이의 돈이 사라졌다. 쉬는 시간 바로 후에 잃어버렸다. 개는 자기 책상에 모든 잡동사니를 꺼내어 마룻바닥에 늘어 놨다. 점심때까지 그 혼잡한 잡동사니를 뒤졌지만 결국 개도 땅콩버터 샌드위치를 먹어야 했다.

삼일 쟈 다이앤의 돈이 사라졌다. 그런데 다이앤은 칠칠치 못하지도 않고 잘 잊어버리지도 않으며, 급식 대신 땅콩버터 샌드위치를 먹게 되는 걸 잠자코 받아들일 애가 아니었다.

“난 내 책상 안에 바로 여기에 돈을 놔뒀어요.” 다이앤이 확실히 말했다.
“쉬는 시간 전에는 여기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누군가 훔쳐갔어요!”

“다이앤, 그건 잘 모르잖니.” 한슨 선생님이 말했다.

다이앤은 선생님을 쳐다보았다. “그러면 제 동전은 어디로 갔어요?”

나는 한슨 선생님이 불손하다고 개를 정말로 야단치리라고 생각했다. 그 대신에 선생님은 다시 한번 책상을 찾아보라고만 하셨다. 다이앤은 입술을 오므리고 성마른 탄식소리를 내며 책상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한슨 선생님도 무릎을 꿇고서 다이앤의 책상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리처드의 책상 안을 살펴보셨다. 아마도 리처드가 가져간 건 아닌지.

선생님이 개 책상을 여기저기 뒤지자, 리처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저기요, 전 도둑이 아니요.”

“아니에요!” 한슨 선생님이 개 말을 바르게 정정했다. “그리고 난 너라고 말하지 않았어. 바지 주머니를 쏟아봐.”

리처드는 자기 바지의 빈 주머니 안감을 획 잡아 뺐다.

한슨 선생님은 내 책상을 뒤지려고 뒤로 오셨다. 돈을 잃어버린 로이 뒷자리, 다이앤 옆자리라는 생각을 하자 나는 얼굴이 벌개 지는 걸 느꼈다. 하지만 마리앤 옆자리는 아니었다. 아무도 내가 돈을 훔쳤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랐다.

한슨 선생님께서 손을 내미셨다. “지갑 좀 보자.”

지갑을 건넸다. 선생님은 신중하게 지갑을 살펴보셨다. 지갑에는 내 점심 식대인 50센트 밖에 없었다. 생일날 받은 돈을 지갑 안에 두지 않은 것이 다행이었다.

다이앤은 일어서서 팔짱을 끼고 있었다. 검은 눈동자가 번뜩였다. “책상 안 어디에도 돈은 없어요.”

한슨 선생님은 나에게 지갑을 돌려주셨다. “지갑 갖고 있니, 다이앤?” 선생님이 물었다.

“아뇨, 없는데요.” 다이앤이 대답했다.

“가서 외투 호주머니 좀 살펴봐.”

다이앤은 여학생 옷장 있는 쪽으로 쿵쿵거리며 걸어가서 코트를 꺼내 호주머니를 잡아 뺐다. 화장지 한 뭉치밖에 안 나왔다.

“다이앤, 점심 값을 학교에 갖고 온 것이 확실하니?” 선생님이 물었다.

“네, 그럼요.” 다이앤이 대답했다.

한슨 선생님은 교실 전체를 둘러 보셨다. “다이앤이 돈을 교실에 갖고 왔다면 교실에 여전히 있는 것이 틀림없어. 다이앤의 돈을 찾을 때까지 우리는 점심을 먹지 못할 것 같구나.”

나는 책상 안에 책들을 도로 집어넣었다. 이 일은 끔찍한 재난으로 번지고 있었다. 나는 선생님께서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다. 그러한 온갖 소동이 일고 나서 도대체 누가 말을 하겠는가?

복도에서 점심수레소리가 들리자 한슨 선생님은 책상에 앉으셨다. “돈이 나올 때까지 배고픈 채로 있어야 할 것 같구나.”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그래도 소용이 없었다. 요리사들 중 한 분이 교실 안으로 머리를 내밀고 당장 점심 받는 줄을 서지 않으면 6학년 반으로 가 버릴 거라고 말할 때까지 그대로 침묵을 지키며 앉아 있었다. 한슨 선생님은 우리에게 줄을 서라고 하셨다.

선생님이 우리를 방과 후에 남으라고 하시지 않을까. 그러지는 않았다. 다이앤과 샤론과 집으로 걸어올 때까지 나는 여전히 한슨 선생님에게 화가나 있었다. 나를 도둑처럼 취급한 것은 경솔했다고 생각했다. 샤론은 그렇게 한 것은 경솔한 것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내가 로이와 다이앤 옆에 앉았고 게다가 한슨 선생님은 리처드의 책상까지도 살펴보셨기 때문이라고 했다. 나는 다시 아주 화가 나서 우리가 어디 앉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불평하기 시작했다. 다이앤이 진정하라고 했다.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누가 돈을 가져갔냐는 것이다. 다이앤은 아마도 책일 거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책은 마리앤에게 자기 우유를 주었기 때문이다.

아마도 마리앤에게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샤론이 너 지시 말했다.

“난 엘시라고 생각해.” 내가 말했다.

“아냐.” 다이앤이 말했다. “개 엄마는 돈이 넘치는 것처럼 보였어.”

“그렇다고 개 엄마가 엘시에게 얼마라도 돈을 준다는 건 아니잖아.” 내가 반박했다.

“엄마는 자길 싫어한다고 개가 말했어.”

“엄마가 자기를 싫어한다고는 말 안 했어.” 다이앤이 내 말을 정정했다.

“그런데 개 엄마는 엘시를 부끄럽게 생각해. 어쨌든 개네 엄마가 한 푼이라도 준다면 개는 아마도 먹을 것을 사겠지.”

“맞아.” 다이앤이 말했다.

집에 왔을 때, 엄마가 저녁준비를 하시는 동안 나는 부엌 여기저기 엄마 뒤꽂무니를 따라 다녔다. 나는 온통 흥분해서 엄마가 있었던 일 전부를 들어 주길 바랐다. 한슨 선생님은 실제로 리차드와 내가 돈을 훔친 것처럼 대하셨다고 말했다.

엄마가 나에게 물었다. “돈을 훔쳤니?”

분노가 바로 용솨음치며 나를 휘감았다.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에게 소리 질렀다. “제가 돈을 훔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방으로 뛰어 올라가 광 하고 문을 닫았다.

엄마가 조금 있다 올라 오셔서 저녁 준비가 됐다고 했다. 전혀 먹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엄마는 단지 돈을 훔쳤는지 물어 본 것뿐이라고 조용히 말씀 하셨다. 엄마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나를 책망하지는 않았다. 나는 엄마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엄마는 나가셨다. 라디오를 틀었다. 배가 고파오기 시작했다.

천정을 노려보며 침대에 누워 있는데 케니가 문을 밀쳐 열었다.

“제니, 뭐 안 먹을 거야?” 케니가 물었다.

“여기서 나가!” 내가 소리쳤다. 문으로 곧장 다다가 그를 밖으로 떠밀었다.

난폭하게.

도둑 잡기

나는 다음날도 역시 끔찍하리라고 예상했다. 끔찍하지는 않았다. 쾨찰은 날이었다. 그날 밤 있을 오픈하우스⁴ 행사를 위해 한슨 선생님은 다이앤과 나를 뽑아 체육관에 5학년 작품을 전시하는 일을 시켰다.

오전 휴식시간에 애들 모두가 여전히 우리 반 도둑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다. 나는 안심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여학생들은 테더볼 기둥 옆에 크게 원을 이루고 있었고, 애들이 나를 의심한다면 어느 누구도 나와 그 일에 대해 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대다수 애들이 엘시라고 생각했다. 엘시가 전학 오기 전에는 결코 없어진 적이 없었다. 나는 엘시가 어디 있는지 보려고 둘러보았다.

“봐봐, 엘시가 벽 옆에 서있지 않아.” 라고 갑자기 소리쳤다.

“교실에서 돈을 훔치고 있는 것이 틀림없어.” 다이앤이 말했다.

“개를 잡자.”

우리는 5학년 반 앞으로 떼 지어 몰려갔다. 막 문에 이르자, 엘시가 나왔다.

“엘시, 어디 있었니?” 다이앤이 물었다.

“화장실에 있었어.” 엘시가 말했다.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인데?”

다이앤이 엘시 곁으로 다가갔다. “놀이 담당 선생님 허가증 없이는 쉬는 시간에 안에 들어가면 안 되게 돼있어.”

“말도 안돼. 쉬는 시간이 뭐 때문에 있는 건데?” 엘시가 다이앤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리고 나서 돌아서서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개 말이 맞다. 쉬는 시간에 화장실에 갈 수 없다는 건 언제나 말도 안 된다고 여겨졌다. 선생님들이 그냥 교실 문을 잠가 버리면 어떨까? 하지만 내가 이렇게 말하자 샤론은 학교에서 모든 학급에 보조 교사를 배치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애들은 사방에 온통 물을 뿌려 놓을 거라고 지적했다.

4 대부분의 미국 학교에서 학생 가족을 초청해 서로 인사하고 반을 공개하는 행사.

그 말은 사실이다. 3학년 애들조차 어떻게 하면 변기에 물을 넘치게 하는지를 알고 있다.

점심휴식 시간이 끝난 후 우리는 정규 독서시간을 갖지 않았다. 오픈 하우스 당일에는 애들은 전부 책상을 깨끗이 하고 글자들을 모두 문질러 지워야 한다. 사방에 물을 뿌려대고 난장판에 시끄러웠다. 잭 같은 남자애들이 사방에 물을 뿌려대려고 하자 선생님은 화가 나서서 교실을 조용히 하려고 두 페이지나 되는 긴 나뭇싹을 우리에게 시키셨다.

하지만 다이앤과 나는 그들과 같이 할 필요가 없었다. 교실로 오자마자 우리는 한슨 선생님이 모아 두셨던 학급 그림 더미를 들고 체육관으로 갔다. 가는 길에 우리는 도둑에 대해 얘기했다. 그날은 모두가 점심이나 점심 값이 그대로 있었다. 그래서 나는 엘시가 도둑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다이앤은 아마도 모든 애들이 쉬는 시간에 자기 돈을 들고 나가서 엘시가 훔칠 돈을 교실에 남겨두지 않았을 거라고 했다. 그럴지도 모른다.

두 명의 6학년 남자애들이 체육관에서 벽에 그림을 고정시키고 있었다. 크리스 존슨과 마크 하워드였다. 개들은 6학년에서 제일 근사한 애들이었다. 그래서 다이앤과 나는 아주 예민해졌다. 하지만 다이앤은 그렇게 드러내지 않았다. 개는 단지 으스대는 목소리로 남자애들이 벽면 전부를 차지하고 있어서 우리는 어디에 그림을 걸어야 하냐고 물었다. 크리스 존슨은 벽면은 네 개나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농구 골대 아래 벽을 택했다. 남자애들이 그림 부치는 일을 끝내고 농구공을 꺼내 골대에 공을 던지기 시작했다. 그 공은 어찌다 내 어깨로 튀었다. 나는 뒤돌아 봤다.

“이런, 미안.” 마크가 말하며 씩 웃었다.

나는 미소로 답하려고 하는 걸 깨닫고 얼른 얼굴을 벽으로 돌렸다.

“이봐.” 크리스가 물었다. “너희 반에 그 똥보는 어떤 애니?”

다이앤이 엘시라고 말했고 우리는 개에 대해 남자애들에게 말하기 시작했다. 남자애들은 호치키스로 그림을 마무리 하는 일을 도와 줬다. 우리가 빨

리 끝내게 도와 줬으니까 자기네와 공 뺏기⁵ 게임을 해야 한다고 했다. 우리는 게임을 했다. 너무 재미있게 놀아서 마지막 벨 울리는 소리를 듣고 나는 깜짝 놀랐다.

“우린 가야겠어.” 다이앤이 말했다.

우리는 서둘러 호치키스를 챙겨 우리 반으로 향했다. 몇몇 반들은 이미 교실에서 나오고 있어서 걱정이 되었다. 우리가 교실로 갔을 때 애들은 집으로 가려고 줄도 서지 않고 있었다. 교실은 흐트러짐이 없었다. 한슨 선생님은 산수 시험지를 걷고 있었다. 내가 생각했던 그대로 한슨 선생님은 다이앤과 나에게 우리의 과제물 철을 꺼내 책상위에 올려놓으라고 하셨다. 내 과제물들을 약간 반원이 되게 놓았다. 부모님들이 보시기에 성적이 좋은 과제물만 있어서 기뻐다.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자 내 새끼 고양이가 부엌 여기저기를 뛰어다니며 나방을 발로 치려고 하고 있었다.

“어쩐 일로 고양이가 안에 있어요?”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는 쉬고 있던 고기 덩이에서 눈을 들어 나를 보며 웃으셨다.

“고양이가 드디어 터득했어.”

“정말요?” 나는 마룻바닥에 앉아 무릎에 회색 털복숭이를 앉혔다. “애가 어떻게 했어요?”

“고양이는 문으로 가서 야옹하고 울어.”

“대단해, 애를 디디라고 부를래요.”

“왜 디디야?” 엄마가 알고 싶어 했다.

“왜냐하면 디자 이름이 있는 애들은 늦게 익히거든요. 디디를 방으로 데리고 올라 가도 되요?”

“물론이지. 만일 개가 문 앞에서 야옹 하고 울면 짹짜게 밖으로 내 보내기만 하면 된다. 잘 들어, 생일날 받은 블라우스를 입어. 명심해라, 우리는 저녁 먹고 바로 오픈하우스에 갈 거야.”

5 가운데 술래를 중심으로 둥글게 서서 술래에게 공을 뺏기지 않도록 서로 패스하는 게임.

나는 부엌문 앞에 내키지 않는 듯이 멈춰 섰다. “케니도요?”

엄마는 고기 덩이가 묻은 손을 들어 올렸다. “걱정 마라. 케니는 아직 자고 있어. 내가 늦게 침대에 재웠어, 그래서 케니는 얌전히 있을 거야. 학교에 가서 네 책상에 앉게 된다고 아주 신나 있어.”

“제 자리에 앉아요? 맙소사! 케니가 가야 한다면 문 앞에서 야옹 소리를 내게 하는 게 좋겠어요.”

“근데, 제니, 케니는 몇 달 동안 사고 친 적이 없어.”

“몇 주겠죠.”

엄마와 농담을 다시 주고받게 되어 재미있었다. 우리는 보통 친구로 지낸다. 하지만 엄마는 내가 돈을 훔쳤는지 묻지 말았어야 한다고 여전히 생각하고 있다. 내가 그러지 않았으리라고 엄마는 알고 있었어야 했다.

엄마의 목욕용 레몬 오일을 욕조에 풀면서 그 일에 대해 생각했다. 내가 욕조에 있는 동안 디디가 이리저리 돌아다니도록 한 다발의 화장지를 말아 올렸다. 욕조 안으로 들어가 거품이 턱에 닿을 때 까지 살살 몸을 담갔다.

갑작스럽게 디디가 훈련이 된 것은 일종의 기적이었다. 내가 학교에 간 동안 나를 불신했던 것을 만회하기 위해 분명히 엄마가 훈련을 시킨 게 틀림없다. 아마도 한슨 선생님이 다이앤과 나에게 작품을 체육관으로 가져가게 한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기묘한 소리가 났다. 야옹! 나는 욕소에서 뛰쳐나와 급히 타올을 걸치고 디디를 움켜쥐고 계단으로 달려갔다.

부엌을 지나 뒷문으로 급히 달려가자 엄마가 웃었다. 디디를 뒷 현관에 내려놓고 봤다. 디디는 꼬리를 꼳꼳이 세우고 계단을 뛰어 내려가 엄마가 가꾸시는 화단으로 갔다.

우리 가족이 학교에 도착했을 때 케니는 얌전히 있었다. 엄마와 아빠는 샤론네 부모를 만나 같이 교실로 갔다. 우리와 샤론네 가족은 친구처럼 지냈다. 이따금 우리 가족들은 같이 캠핑을 가기도 했다. 다이앤이 오지 않은 동안 나는 샤론과 재미있게 지내려고 애썼다. 쉬운 일은 아니다. 샤론은 두 가

지에 관심이 있다. 엄마가 무슨 말을 하는지와 자기가 얼마나 많은 선물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이다. 샤론은 다이앤을 대신할만한 유일한 애라고 생각할 지도 모르겠다.

샤론은 다이앤과 개네 엄마가 자신의 새 핑크드레스를 칭찬할 수 있도록 곧바로 그들을 향해 의기양양하게 갔다. 샤론은 머리에 옷과 어울리는 핑크 머리핀을 했다. 나는 샤론의 곱슬머리가 예쁘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엘시 머리처럼 금발이다. 하지만 엘시는 살찐 얼굴 때문에 가발 쓴 것처럼 보인다. 엘시나 개 엄마는 오픈 하우스에서 보이지 않았다.

부모님이 내 과제물 철을 살펴보고 동생은 내 자리에 앉아 있는 데 한 손 선생님이 오셨다. 나는 선생님이 너무나 근사해 보여서 놀랐다. 선생님의 회색 머리는 웨이브 져있었고 빨간 귀고리를 하셨다. 선생님은 아빠에게 내가 착한 학생이라고 하셨다. 엄마는 내 영어작문을 읽느라 정신없었다. 나는 영어를 잘했다. 내가 유달리 영어를 잘한다고 엄마는 말씀하셨다. 산수는 썩 잘하지 못했다. 다행히도 내 산수과제물 철은 C나 그보다 좋은 성적이었다.

집에 오는 길에 케니가 우리 선생님이 상냥하다고 했다.

“오픈하우스 때만 그런 거야.” 케니에게 말했다.

엄마는 선생님이 그 연세에 한 떼거리의 열 살이나 열한 살 난 애들을 제지하고 싶어 하지는 않을 거라고 말했다. 아빠는 나이가 어땠든 애들을 통제하는 일을 하고 싶지 않을 거라고 하셨다. 아빠는 빨간 머리를 한 애에 대해 물었다.

“개는 짝이에요.” 아빠께 대답했다. “개는 자기의 빨간 머리를 싫어해요.”

“확실히 개는 다루기 힘든 애일 거다.” 아빠가 말했다.

다음날 다시 사고가 생겼다. 레스터의 점심 값이 사라졌다. 나는 개가 교실 저 멀리 뒤쪽에 앉아 있어서 아무도 내가 25센트 동전 두개를 가져갔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라서 기뻐다.

한손 선생님은 점심 값을 어디에 두었는지 그에게 물었다.

“바로 여기 제 책상 위에 흰히 보이는 데요.” 레스터가 말했다.

선생님은 잠시 두 눈을 감았다. “그건 현명한 일이 아니었다.” 선생님이 말했다.

“근데, 저는 제가 볼 수 있는 데에다가 두었어요.” 개가 설명했다.

“동전 두개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니?” 선생님이 물었다.

“쉬는 시간 바로 전예요.”

“쉬는 시간에 나가있는 동안 동전을 책상 위에 놔뒀니?”

“그럼요.” 개가 말했다.

선생님은 다시 눈을 감으셨다.

그렇게 하는 건 그리 똑똑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난 알고 있다. 엄마가 학교에서 오는 길에 세븐 일레븐에서 우유 한 팩을 사오라고 아침에 일 달라를 더 주셨다. 나는 그 돈을 내 바지 주머니 안에 핀으로 고정시켜 놓았다.

한슨 선생님은 레스터에게 점심으로 사무실에서 땅콩버터 샌드위치를 먹어야 할 거라고 말씀하셨다. 레스터는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한슨 선생님은 교실 앞 정면으로 자신의 의자를 끌어가 앉으셨다. 선생님은 우리를 바라 보셨다. 우리도 선생님을 마주 쳐다봤다.

“우리 반에 문제가 생겼다.” 선생님은 천천히 말씀을 시작했다. “네 번이나 돈이 사라졌다는 것은 사고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나는 이 반에 누군가가 돈을 가져갔다고 생각한다.”

선생님은 말을 끊었다. 우리는 숨죽이고 있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대체로 나는 비밀을 누설하는 걸 싫어한다. 하지만 이번은 다르다. 이 문제는 심각하다. 돈을 누가 가져갔는지 밝히는 일을 돕는 것은 비밀을 누설하는 게 아니다. 그러한 짓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문제가 있다. 그런 짓을 하고도 벌 받지 않고 빠져나가도록 놔두는 것은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남자애인지 여자 애인지.” 선생님은 다시 말을 멈추셨다.

그 해 처음으로 선생님이 좋아졌다. 선생님이 우리 편인 것처럼 생각되었

다.

선생님은 계속 말씀하셨다. “누군가 뭔가 알고 있거나 돈과 관련해서 뭔가를 본 적이 있다면, 나에게 말해 주세요. 우리 둘 사이에서만 얘기 할 것이고 그에 관해서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을 거예요.”

이게 선생님이 말한 내용 전부다. 그날 오후 나머지 시간에 우리는 조용히 도서관 도서를 읽었다. 마지막 벨이 울리기 바로 전에 교장선생님께서 들어 오셨다. 교장선생님은 우리에게 집중하라고 하셨다.

“한슨 선생님이 누군가 이 반에서 돈을 가져간다고 나에게 알려 주셨어요. 지금, 모든 사람이 잘못 하고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 나와서 잘못했다고 하는 씩씩한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누가 돈을 가져갔는지 알 것 같은데.” 교장선생님은 교실을 죽 둘러 보셨다. 나는 선생님의 시선이 누구에게 멈추는지 보고 싶었지만 시선이 쏠린 사람이 없었다. “그 학생이 씩씩한 사람이라면 한슨 선생님이나 나에게 와서 잘못했다고 인정할 것이다. 지금 여러 학생들이 이 점에 대해 생각해 주기 바란다.”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 생각했다. 방과 후 우리는 학교 건물 밖에 모여 서서 그 일에 대해 얘기했지만 아무도 아는 게 없는 것 같았다. 결국, 나는 엄마가 부탁하신 우유를 사러 세븐 일레븐으로 가려고 자리를 떠나야 했다.

가게에는 새로 나온 재미있는 책이 한 꾸러미 있었다. 우유를 사기 전에 그 책들을 보려고 잡지 선반에 멈췄다. 나는 찰리 브라운의 잡지 일부를 읽기 시작했는데, 누군가 뒤쪽 캔디 선반에서 계속 부스럭대며 나를 잡지 있는 쪽으로 비좁게 밀어댔다. 그래서 내가 책 읽는 일을 방해했다.

나는 누가 나를 귀찮게 하는지 보려고 뒤돌아보았다. 엘시의 뚱뚱한 뒷모습을 봤다. 공간이 비좁은 게 당연하지. 나는 개를 보면서 그대로 서 있었다. 엘시는 제일 길고 빨갛고 까만 줄 캔디를 조심스럽게 고르고 있었다. 다섯 개를 집어 들어 계산대로 갔다.

나는 선반에 찰리 브라운 책에 다시 열중하다 갑자기 우유를 가지러 통로

를 따라 갔다. 나는 엘시가 캔디를 계산하려는 돈을 보고 싶었다. 내가 계산대로 가자 엘시는 바로 다음 계산 차례였다. 내가 생각했던 대로였다. 개는 동전 두개를 탁 던지는 것이었다!

계산원이 그녀에게 캔디 봉투를 건네자 내가 말했다. “안녕 엘시.”

엘시는 눈을 크게 뜨고 똑바로 나를 응시하며 쳐다봤다. 그리고는 한마디 말도 없이 가게를 나갔다. 나는 도둑의 눈을 봤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집에 가서 엄마에게 말하게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었다. 한슨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께 전화를 해야 하는 건 아닌지 생각했다. 나는 다이엔 집에 들러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할 수 있기를 바랐다.

엄마는 내가 현관에 도착하자마자 내 손에서 우유를 가져가셨다. 엄마는 화가 난 듯이 보였다. “뭣 때문에 이렇게 오래 걸렸니?”

“세븐 일레븐에서 엘시를 봤는데 캔디를 사고 있어서.”

“그래서 뭣 좀 얻어 먹을까하고 서성거렸잖구나.” 엄마는 우유를 살펴보셨다.

“제니퍼 소이여! 이걸 탈지 우유잖아!”

“오, 죄송해요. 제가 용기를 보지 않았나 봐요.”

“제니퍼, 너랑 케니는 이미 너무 말랐어. 너희는 탈지 우유가 필요 없어.”

“다시 가서 바꿔 올게요.” 내가 말했다.

“아니다. 지금은 너무 시간이 늦었어. 저녁 먹게 가서 씻어라.”

엄마는 확실히 기분이 안 좋으셨다. 나의 모든 흥분이 빠져나갔다.

저녁시간에 아빠가 인플레이션에 대해 말하셨다. 아빠는 우리가 어떻게 새차를 살수나 있을지 알지 못했다. 엄마는 조금도 저축할 수 없다고 하셨다. 식품이 매일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대단한 소식인데. 나는 말할 기회를 잡으려고 디저트 먹을 때까지 기다렸다. “교실에서 돈이 없어지고 있어요.” 내가 말했다.

“우리도 안다.” 엄마가 대답했다.

나는 엄마의 말에 개의치 않았다. “전 누가 돈을 가져가는지 알아 낸 것

같아요.”

“어떻게?” 아빠가 나에게 물었다.

“제가 세븐 일레븐에서 엘시를 봤는데 캔디를 사고 있었어요. 개는 다이어트 중이거든요. 엘시는 캔디를 먹으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개는 동전 두개를 지불했는데 그건 오늘 레스터한테서 훔친 바로 그 동전이에요.”

“엘시가 그 돈을 가져갔다고 어떻게 증명하니?” 아빠가 물으셨다.

“왜냐하면 엘시 엄마는 절대 개에게 돈을 안 줘요. 개 엄마는 그 돈으로 먹을 걸 살 거란 걸 아세요.”

“틀림없이 할머니가 돈을 주셨을 거야!” 케니가 끼어들었다.

“너는 이 일에서 빠져.” 내가 케니에게 말했다.

“그래, 개네 할머니가 주셨을 지도 몰라.” 엄마가 말했다.

“아냐, 엄마는 이해 못해요. 우리는 엘시가 쉬는 시간에 5학년 교실에 있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돈을 잃어버린 건 쉬는 시간이에요.”

“개가 돈을 가져가는 것을 봤니?” 아빠가 물었다.

“개를 보지는 못했지만 엘시가 전학 올 때까지는 우리 반에서 돈을 도둑맞은 적이 없었어요.”

“모두가 정황 증거로군.” 아빠가 의미 있게 말하셨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물었다.

“단지 소문이라는 거다. 넌 확실한 물증이 없어. 단지 엘시에게 혐의만 갖고 있는 거야. 개를 체포할 수는 없어.”

“난 개를 체포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어쨌든 한슨 선생님이 우리가 어떤 사소한 일을 보게 되더라도 말해야 한다고 했어요.”

“엘시는 이미 충분히 곤란을 겪은 것 같구나.” 엄마는 얘기가 끝났다는 듯이 식탁을 치우기 시작했다.

“한슨 선생님은 도둑을 위해 잡히지 않게 놔두는 건 좋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도둑이 아닌데 누명을 쓰는 건 엘시에게 좋지 않을 거다.” 엄마가 대답하

셨다.

나는 그날 밤 숙제할 기분이 들지 않았다. 나는 침대에 앉아 산수책에 분수가 나온 부분을 펴고 있었다. 나는 분수를 공통분모로 전환하는 것을 싫어한다. 항상 숫자를 혼동하여 거꾸로 한다. 나는 계산기를 가지러 아래층으로 몰래 내려가고 싶었다. 다이앤에게 전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대다수의 여자 애들은 전화로 통화한다. 아빠는 우리 전화에 손대지 못하게 할 것이다. 공평하지 않아.

교무실 감방

다음날 아침 다이앤, 샤론과 나는 엘시에 대해 어떻게 할지 궁리하며 학교로 걸어갔다. 다이앤은 내가 곧장 교장실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샤론은 한슨 선생님과 의논하고 싶다고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난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할 수 없었다. 학교가 가까워질수록 아침 먹은 게 속에서 점점 더 심하게 뭉쳤다.

“대단한 삼인조다!” 남자애 목소리가 뒤에서 크게 났다.

“누가 가장 귀여운 것 같니?” 다른 남자애가 물었다.

“오, 모르겠는데. 짧은 머리를 좋아하는지, 긴 머리카락이나 곱슬머리를 좋아하는지에 따라 다르지.”

우리 여자애들은 서로 시선을 마주 쳤다. 우리는 개들이 크리스 존슨과 마크 하워드라는 걸 알아챘다. 여자 화장실에 머리를 빗으러 가서 샤론이 거울을 보며 물었다.

“누가 가장 근사한 것 같니?”

“마크가 개들 중 제일 멋있어.” 다이앤이 말했다.

“난 크리스 같은데.” 내가 말했다.

“너야 그러겠지.” 다이앤이 입술크림을 바르며 말했다. 우리는 립스틱을 바르지 못하게 되어 있다. 입술크림은 입술을 반짝이게 해 준다. 다이앤이 입술크림을 차례로 돌렸다.

나는 내 자리에 앉아 의자에 딱 끼게 앉은 엘시를 보며 리코리스 캔디에 대해 한슨 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께 말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났다. 한슨 선생님은 수업을 시작하면서 산수시험지를 꺼내서 뒷사람에게 넘겨주라고 하셨다. 샤론이 내 시험지를 달라고 등을 쿡쿡 찌르자 나는 내키지 않아 어깨를 으쓱했다. 우리가 시험지를 채점하자 한슨 선생님이 점수를 물어보셨다. 내 이름이 나오자 샤론이 “빵점”이라고 했다. 한슨 선생님이 성적 기록표위에 펜을 멈추고 나를 바라봤다. 난 얼굴이 빨개졌다. 엘시는 언제나 그렇듯

이 만점이었다.

나는 쉬는 시간에 외투를 느릿느릿 입었다. 다른 애들이 나가는 동안 서성대며 기다리면 한순 선생님께 뭔가 말할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했다. 하지만 선생님은 서둘러 한꺼번에 우리 모두를 문 밖으로 내 보내고 열쇠로 교실 문을 잠그고 교무실로 가버리셨다.

점심때 핫도그 빵을 먹으며 엘시가 자유롭게 빠져나가버리게 되는 건 아닌지 생각하며 앉아 있었다. 한순 선생님이 매일 문을 잠근다면 훔치는 일은 끝장날지도 모른다. 엘시를 건너다 봤는데 리코리스 캔디를 씹고 있었다.

한순 선생님 또한 엘시를 봤다. 선생님이 엘시 뒤로 와서 손에서 그 캔디를 잡아 빼앗았다. “이게 뭐니?”

“제 건데요.” 엘시가 말했다.

“어디서 났니?”

“점심 도시락 안에 있었어요.”

“점심 도시락 안이라고? 정말이니?”

“네.”

“정말 네가 산 게 아니야?”

“아니에요, 전 돈이 하나도 없어요.” 엘시는 위에서 흔들거리는 리코리스 줄 캔디에 줄곧 시선을 박고 있었다.

내가 손을 들었다. 한순 선생님은 나를 무시했다.

“지금은 내가 이걸 맡아 두고 엄마에게 전화를 드려야겠다.” 한순 선생님이 말했다. “엄마가 네 식단을 바꾼 거라면 사정을 알고 싶구나.”

나는 손을 내렸다. 엘시는 분명히 걸릴 것이다.

점심시간에 다이앤이 엘시가 자기의 돈을 가져간 일에 대해 뭔가 조치를 취하기로 결심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 그 돈을 돌려받지 못할 거라고 했다. 다이앤이 당당하게 엘시에게 다가갔고 그 뒤를 샤론과 내가 뒤따라갔다.

“그래, 엘시, 리코리스 줄 캔디가 점심도시락 안에 있었던 거네.” 다이앤

이 비꼬며 말했다.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니, 다이엔?”

“나랑 상관 많지, 엘시. 너 때문에 점심 값을 사기 당했거든. 나한테 오십 센트를 갚아야 하잖아!”

“넌 돈이 많잖아.” 엘시가 웅얼거렸다.

“오, 니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흥?” 다이엔이 눈 위로 내려온 앞머리를 획 흔들며 올리며 머리를 뒤로 젖혔다. “근데, 우리 엄마는 과부라 돈을 벌려고 일하셔. 우린 TV 고칠 10달러 조차도 없어. 그러니까 내 돈 줘, 엘시 에드 워즈.”

“그렇게 가난한데 어떻게 원피스나 바지가 그렇게 많은데?”

“할머니가 실력 있는 재봉사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 돈 내봐!”

엘시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난 돈이 하나도 없어.” 엘시가 말했다.

“그만해. 너네 엄마가 가난뱅이가 아닌 거 너도 알잖아.”

“그렇다고 내가 돈이 있는 건 아냐.” 엘시는 계속 위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러자 난 왜 그러는지 생각해 봤다. 엘시는 울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었다.

놀이 담당 선생님이 다가 와서 뭐하고 있냐고 물었다.

“그냥 얘기하고 있어요.” 다이엔이 말했다.

“게임 같이 하자.” 놀이 담당 선생님이 다이엔의 손을 잡았다.

다이엔은 책 뿌리쳤다. “쉬는 시간에 얘기하면 안 된다는 학교 규칙이 있어요?”

“이봐, 아가씨, 가끔 넌 너무 불손하게 대드는구나.”

벨이 울렸다. 엘시는 교실로 향해갔다. 놀이 담당 선생님은 호각을 불려고 운동장으로 돌아가야 했다.

“아이구, 다이엔.” 샤론이 말했다. “니가 곤란해 질 수도 있어.”

다이엔이 어깨를 으쓱했다. “아, 그 분은 그저 선생님 보조일 뿐이야.”

우리 반 남자애들이 다가와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싶어 했다.

“난 단지 저 도둑, 엘시한테서 내 돈을 도로 받아 내려는 것뿐이야. 다이앤이 남자애들에게 말했다.

“엘시가 도둑이야?” 레스터가 말했다. “저 음식 구걸 쏬! 개를 혼내줘야 해.”

“어서 가서 때려주자.” 잭이 레스터에게 말했다. “만일 개가 너를 덮치면, 박살나서 죽게 될 걸.”

우리가 소리 내어 책 읽기를 하는 동안 교장선생님께서 교실로 들어오셨다. 가운데 통로를 따라 엘시의 자리로 가셨다.

“날 따라와요, 여학생.” 교장 선생님이 엘시에게 말했다. 그리고는 한슨 선생님을 돌아보며 말했다. “이 꼬마 숙녀는 잠시 자리를 비울 거예요.”

한슨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더글라스 선생님, 괜찮습니다.”

엘시는 오후 내내 자리로 돌아오지 않았다.

수업이 끝나고 우리는 방문객 주차장에 있는 멋진 스포츠카를 봤다.

“틀림없이 엘시는 교무실에 있어.” 다이앤이 말했다.

그래서 샤론, 다이앤과 나는 때를 지어 학교 건물 뒤로 몰려가서 교장실 유리창 안을 엿봤다. 블라인드가 쳐져 있었지만 우리는 틈새로 안을 볼 수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 교장선생님, 엘시 엄마와 엘시가 앉아 있었다. 엘시는 영 안 좋아 보였다. 에드워드 아줌마도 그랬다. 엘시 엄마는 곧 튀어 나가려는 미사일처럼 의자에 꼳꼳이 몸을 세우고 앉아 있었다.

“오늘 엘시가 잡혔어요.” 나는 집에 오자 엄마에게 의기양양해 했다.

“제가 세븐 일레븐에서 개가 샀다고 한 그 캔디 알죠? 개가 학교에서 그걸 먹었어요. 그래서 한슨 선생님이 엘시에게 어디서 냈냐고 물었어요. 엘시는 자기 점심도시락 안에 있던 거라고 했어요. 한슨 선생님은 개네 엄마한테 전화한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수업 끝나고 엘시와 개네 엄마가 교장선생님과 같이 교장실에 있는 걸 봤어요.”

“글쎄, 그게 개가 돈을 가져갔다는 걸 말하는 건 아니잖니?”

“정말이야, 엄마.” 나는 말하고서 내 방에서 같이 놀려고 디디를 들어 올렸

다.

저녁식사 후에 난 다시 산수 문제를 풀고 싶지 않았다. 몇 문제 풀어 봤는데 다 틀렸다. 어떻게 대분수로 바꾸는지 까먹었다. 학교에서 과제를 끝낼 수 있는 애들 중에 나도 낄 수 있었으면 하고 바랬다.

나는 엄마에게 도와 달라고 부탁하러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먼저 엄마는 케니를 재운다고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는 마루의 장난감들을 모았다.

“케니더러 하라고 하지 그래요? 개도 더 이상 애기가 아니잖아요.” 엄마를 기다리느라 지쳤다.

아빠가 서류를 보시다 쳐다보셨다. “엄마더러 도와 달라고 하는 것 같던데. 그렇게 급하면 엄마를 도와주지 그러니?”

나는 케니의 장난감 트럭을 들어서 장난감 상자 쪽으로 질질 끌고 갔다. 엄마는 큰 소파에 앉아서 내 책을 폈다. “먼저 설명을 보는 게 좋겠다. 학교에서 수학이 계속 바뀌고 있네.”

“그냥 분수잖아요.” 내가 뽀루통하게 말했다.

아빠는 다시 쳐다보셨다. 말없이 엄마가 세 페이지를 살펴볼 때까지 기다렸다.

“아, 내가 기억하는 것과 같은 거네. 가분수 답이 나오면 분모로 분자를 나누고 정수를 이미 나와 있는 수에 더하는 거야.”

“뭐 뭐라구요?” 내가 말했다.

“봐봐, 내가 보여줄게.” 세 번이나 알려줬다. 약간은 이해했다.

“자, 여기 한 문제 풀어 보자.” 엄마가 $153/4 - 36/15$ 라고 적었다.

물론 완전히 혼란스러웠다. 마루위로 연필을 떨어뜨렸다.

“전혀 못 풀겠어요. 이건 불공평해요. 그 도둑 엘시는 맨날 만점 받아요.”

“개를 그렇게 부르는 게 듣기 거북하구나, 제니퍼.” 엄마가 말했다. “개는 그저 많은 문제에 처해있는 여자 애일 뿐이다.”

“개는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여자 애일 뿐이라는 뜻이겠죠.”

“계속 꼬투리 잡으려면 네 방에 올라가거라.” 아빠가 말했다. “우리가 여기

서 그럴 필요는 없어.”

나는 책을 들고 방으로 올라왔다. 침대에 누웠다. 몸이 안 좋은 것 같았다. 피곤했다. 저녁에 프라이드치킨 두 조각을 먹지 말걸 그랬다. 그 냄새가 올라왔다. 질질 끌며 천천히 옷을 벗고, 양치질도 안하고 세수도 안 했다. 침대로 들어가 이불을 머리 위까지 덮어 썼다. 춥고 떨렸다. 남자의 배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며 얼굴이 파랗게 질리는 TV 광고방송이 생각났다. 그가 선전하는 약은 나에게 소용없을 것이다. 내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 알았다. 독감이다. 엄마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너무 힘이 없어서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었다. 금방 토할 것 같았다. 빨리 토해 버렸으면 좋겠다.

간신히 화장실로 가서 토했다. 엄마가 들어왔을 때 나는 이마에 땀을 흘리며 화장실 바닥에 늘어져있었다.

“오, 얘야, 아프구나.” 물수건을 가져와 찬물로 이마를 닦아 주셨다. 엄마는 나를 도와 침대로 돌아가게 해주고 타월, 물 한잔과 내 옆에 놓아 둘 납작한 그릇을 가져왔다.

“이거 말고 또 필요한 거 있니?”

나는 머리를 가로저었다. 죽고만 싶었다.

그렇게 4일 동안 누워있었다. 엄마가 들어와서 물이나 주스를 마시게 하려고 달래곤 했다. 그걸 마시고는 토했다. 의사가 왔다. 의사선생님이 엄마에게 내가 탈수상태라고 했다. 이 말은 수분이 빠져나간 것을 말한다. 의사선생님은 만일 내가 앞으로 24시간 동안 유동성 음식을 계속 받아들이지 못하면 병원에 입원해야 나아 질 거라고 했다.

선생님이 떠나고 엄마에게 입원하는 게 무슨 소용 있냐고 물었다. 엄마는 병원에서는 나에게 정맥주사로 영양 공급을 해 줄 거라고 했다. 이 말은 내 팔에 주사바늘을 꽂는다는 뜻이다.

나는 사과 주스를 한 모금 마시고 반듯이 누워있었다. 먹은 게 올라왔다. 다시 한 모금 삼키고 반듯이 누워 있었다. 다시 올라왔다. 좀 더 묽게 한 사과 주스를 한 모금 삼키고 누워서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렸다. 내려갔다.

이들이 지나서야 베개에 기대어 산수책은 아니었지만 책을 읽을 만큼 긴장해 진 듯했다. 삼 일째 되는 날, 내가 혼자서도 괜찮은지 물어 보려고 잠옷차림으로 엄마가 내 방에 비틀거리며 들어 오셨다. 나는 엄마의 뻑뻑한 머리와 창백한 얼굴을 슬쩍 보며 괜찮다고 했다. 엄마는 비틀거리며 다시 침대로 가셨다.

케니가 나에게 아침식사를 가져왔다. 잼 발린 세 조각의 토스트, 우유한잔과 사과소스 한 그릇이었다. 맛있었다.

케니는 엄마에게 아침식사를 갖다 드리려고 했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대신에 빈 그릇을 갖다 드렸다. 나를 즐겁게 해 주려고 케니는 내 침대 위에 자기 그림책을 쌓아 놓고 『푸른 달갈과 햄』이라는 책을 외어서 읽어줬다. 오후에 전화가 올랐다. 케니가 달려가서 받았다. 나와 통화하고 싶다는 다이앤 전화였다.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다이앤은 학교 소식으로 넘쳐 났다. 한 시간 동안 통화했다. 위층에서 나는 우는 소리에 신경 쓰지 않았다. 엄마가 달랠 형편이 아닌가보다 라고 생각했다.

다이앤은 엘시에 대해 모든 최근 소식을 전해줬다. 엘시는 매일 오전 쉬는 시간과 점심휴식시간동안 교장실에 앉아 있어야 한다고 했다. 혼자서 학교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게 했다. 한슨 선생님은 더 이상 교실 문을 잠글 필요가 없었다. 다이앤이 교회 스케이프 행사에서 엘시의 이전 학교 여학생을 만났다고 했다. 그 여자 애는 엘시가 그 학교에서도 도둑질했다고 했다. 엘시는 주로 먹을 것만 훔쳤다. 학교 주방에서 계피 롤빵을 먹다 걸리기도 했다. 다이앤은 이전 학교에서도 애들이 엘시를 싫어했다고 했다.

나만 독감에 걸린 것이 아니었다. 거의 애들 모두 걸석했다. 다이앤은 엘시도 걸석했고, 샤론도 안 나왔고 잭도 걸석했다고 했다. 다이앤은 언제 내가 학교에 나갈 수 있는지 물었다. 며칠 후면 갈수 있을 것 같다.

다음날 케니가 아파서 그보다는 더 걸렸다. 엄마가 일어나실 수 있을 때까지 동생을 돌봤다.

똥똥한 여자애들은 춤출 줄 몰라요

학교는 내가 다시 나갔을 때 변함없이 그대로였다. 한슨 선생님은 여전히 엄하셨다. 잭은 다 나아서 다시 크레용을 던지고 있었다. 엘시도 여전히 똥똥한 채로 학교에 다시 나왔다.

학교는 해마다 하는 청소 캠페인을 벌이고 있었다. 우리는 아침에 쓰레기를 버리지 마시오 라는 포스터들을 그렸다. 오후에 우리 반은 남쪽 놀이터를 청소해야 했다. 한슨 선생님은 마리엔, 엘시, 잭과 나는 쓰레기를 줍는 대신 도서관으로 가게 될 거라고 했다. 우리에게 밖은 너무 춥다고 했다.

잭은 도서관 뒤쪽에 앉았다. 마리엔과 나는 앞쪽 책상을 골랐다. 엘시는 가운데 자리에 털썩 앉았는데 이는 엘시 몸통의 여유를 주려면 마리엔과 내가 밖으로 의자를 밀어야 하는 걸 말한다. 엘시는 도서관 책 한 권을 읽었다. 마리엔과 나는 산수 과제를 하느라 고생하고 있었다.

잠시 후에 마리엔이 말했다. “난 이 골치 아픈 건 정말 못하겠어.”

엘시가 책 읽기를 멈췄다. “원한다면 어떻게 하는지 알려 줄게.”

“물론이지.” 마리엔이 대답했다.

나는 엘시가 마리엔에게 문제들을 설명하는 것을 들으며 공부하는 척했다. 엘시는 확실히 우리 엄마보다 잘 가르칠 줄 알았다. 엘시는 나를 향해 나도 도와주겠다고 했다.

“도둑이 날 도와줄 필요는 없어.”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마리엔이 내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제니 그건 잊어버려도 되지 않니.”

“넌 그 일을 잊고 싶니?” 내가 물었다. “재는 너한테 점심 값을 갚아야 해. 엘시, 언제 애들에게 돈을 다 돌려 줄거니?”

“돈이 생기면.” 엘시가 대답했다.

“용돈은 어떻게 되는데?”

“난 하나도 받지 않아.” 엘시가 말했다.

“정말이야.”

“정말로 용돈 안 받아?” 마리앤이 물었다.

“그래, 안 받아.” 엘시가 대답했다.

“넌 그저 앉아서 먹어대기만 하는 구나.” 내가 덧 붙였다.

“오.” 마리앤이 중얼거렸다.

도서관에서 나머지 시간에 엘시는 도서관 책에 코를 박고 머리를 쥐어뜯었다. 난 여전히 분수를 풀 수 없었다.

한슨 선생님은 일주일에 3일은 우리를 체육관으로 데려 가셨다. 하지만 화요일과 금요일에는 학교 체육 선생님인 마샬 선생님이 우리를 데려 가셨다. 마샬 선생님과 같이 하는 것이 훨씬 재미있었다. 우리가 체육시간에 열심히 참여하게하려고 마샬 선생님은 다음 주 수업에 대해 보통 말해 줬다. 하지만 선생님이 포크댄스를 시작할 거라고 알리자 우리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남자애들 몇 명은 춤 춰야 하는데 대해 불만을 털어 놓았다.

“너희들은 좋아하게 될 거야.” 마샬 선생님이 남자애들에게 말했다. “댄스가 좋아 질 거다. 풋볼의 러닝백⁶은 댄스에서 스윙블⁷ 회전하는 것을 익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니?”

남자애들은 납득하지 못했다.

우리가 야구나 농구 하려고 편을 정할 때마다 잘하는 운동선수들이나 인기 있는 애들이 먼저 뽑힌다. 공을 던질 줄 모르는 애들은 우두커니 서서 마지막으로 배정될 때까지 있어야 한다. 우리가 스퀘어 댄스⁸를 출 파트너를 정할 때 엘시를 내 버려두는 경우가 상상이 갈 것이다.

“이리와, 엘시.” 마샬 선생님이 쾌활하게 말했다. “넌 내 파트너야.” 이 선생님은 한슨 선생님처럼 엘시를 체육시간에 절대 빠지게 하지 않았다.

처음에 마샬 선생님은 우리에게 알망드⁹를 가르쳤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엘시와 선생님이 도시도¹⁰를 추는 것을 보라고 하셨다. 마샬 선생님은 아

6 풋볼에서 공을 들고 뒤돌아 달리기

7 댄스의 일종

8 네 명이 한 그룹으로 추는 춤

9 궁정 댄스곡

주 키가 크셨다. 그래서 엘시가 선생님을 향해 경충 경충 뛰어 가는 데, 큰 고무공이 깃대를 향해 굴러 가는 것처럼 보였다. 잭과 레스터가 쓰러질 듯이 심하게 웃었다. 마샬 선생님이 모든 동작을 멈추라고 했다.

“잭, 사람들이 너를 비웃으면 좋겠니?” 마샬 선생님이 말했다.

“아뇨.” 잭이 말했다.

“레스터, 사람들이 너를 비웃으면 좋겠니?” 마샬 선생님이 말했다.

“안 좋을 것 같은데요.” 레스터가 말했다.

“모르겠다는 건가?”

“네... 아뇨, 싫을 겁니다.” 레스터가 자기 허리띠를 만지작거렸다.

“레스터, 잭, 날 보라.”

남자애들이 선생님을 봤다.

사람들이 너희를 비웃는 것이 싫다면 너희도 다른 사람을 놀리면 안 된다.

우리는 포크댄스를 계속 배웠다. 엘시는 여전히 우스꽝스럽고 엄청 끔찍해 보였지만 아무도 감히 웃지 못했다.

우리는 3주 동안 포크댄스를 배웠다. 내 생각에 엘시의 다이어트가 드디어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았다. 엘시는 다이어트를 지키는 것 말고는 별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불행히도 엘시 엄마가 엘시에게 새 옷을 사주거나 이전 옷을 고쳐주지 않았다. 엘시는 춤추는 동안 계속 자기 바지를 끌어 올렸다. 엘시가 파트너에게 몸을 굽혀 인사하자 블라우스가 위로 빠져 올라가서 바지가 아래로 흘러내리며 두툼하게 튀어난 등이 보였다. 잭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돼지 같다고 했다. 하지만 잭은 우리가 한슨 선생님이 계신 반으로 돌아와서야 그렇게 말했다.

한슨 선생님은 자리에 앉아 우리 성적표를 정리하고 계셨다. 3월, 그때가 다시 왔다. 나는 걱정스러웠다. 분수 때문에 산수에서 C도 못 받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전에는 나쁜 성적표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었다.

성적표가 나온 날 아침, 한슨 선생님은 선생님 자리로 한 사람씩 부르셨

10 등을 맞대고 돌며 추는 스쿼어 댄스

다. 선생님은 우리가 성적표를 보고 불만이 있다고 생각하면 자기와 의논하자고 하셨다. 누군가 불만스럽다고 하면 선생님은 그 애의 성적을 모두 적으시고 평균을 내보라고 했다. 정말 잘못된 점이 없다면 아무도 성적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유 없이 그런 계산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선생님이 자리로 오라고 내 이름을 부르자, 나는 겁이 났지만 여전히 기적을 바랬다.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D 마이너스를 받았다. A 두개, B 셋 그리고 비참하게도 D 마이너스. 다이앤이 성적이 어떻게 나왔냐고 쪽지를 써 보냈다.

그 다음에 엘시 이름을 불렀다. 나는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지 못했다. 집에 가면 죽고 싶을 거라는 내용의 쪽지 답장을 다이앤에게 너무 정신없이 쓰고 있었다. 쪽지 쓰는 일을 급히 내던지게 된 건 고함과 웃음소리가 나고 한순 선생님이 “제발 주목하세요! 주목하세요.” 라고 되풀이 말하는 소리가 났기 때문이었다.

나는 교실 앞을 봤는데 엘시가 미친 듯이 치마를 하얀 속바지 위로 끌어 올리는 것이 보였다. 나는 로이 등을 쿡쿡 찔렀다. “무슨 일이야? 이게 웬 스트립쇼야?”

로이는 단지 머리만 가로 저었다. 그는 너무 심하게 웃어 눈에 눈물이 비쳤다.

나는 다이앤에게 물었다. “무슨 일이야?”

“엘시가 서 있는데 치마가 벗겨졌어.” 다이앤이 나에게 대답했다. 그러자 잭이 우아 하고 소리 냈어.

그래서 한순 선생님이 저러시는 거야. 선생님은 체육시간 호각을 책상에서 꺼내 날카롭게 불었다. 교실이 잠잠해 졌다.

“그만 됐어! 이 반 때문에 부끄럽구나. 엘시...?”

하지만 엘시에게 뭐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엘시는 한 손으로 치마 윗부분을 움켜잡고 다른 손으로 교실 문을 당겨서 열었다. 문이 엘시 뒤에서 쿵 하고 닫혔다.

“산수책 꺼내서 360페이지를 푸세요.”

한승 선생님이 지시했다. 360페이지는 교재 맨 뒤에 연습문제로 꼭 차있는 것이었다.

“그 페이지 전부요?” 로이가 물었다.

“전부 다.” 한승 선생님이 단호히 말했다.

우리 모두는 느릿느릿 책과 종이와 연필을 꺼냈다. 다이앤이 한승 선생님을 불쾌한 듯이 바라봤다. “선생님은 그저 우리가 끙끙대는 게 재미있으신 거야.”

“말하고 싶으면 360, 361페이지를 다 풀어야 할 거다, 다이앤.” 한승 선생님이 다이앤에게 말했다.

나는 다이앤이 항의하려고 하면서 가슴깊이 숨을 들이쉬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한승 선생님 얼굴에 서린 화난 표정을 보고서 다이앤은 그만뒀다.

360페이지는 딱딱한 곱셈이다. 두 자릿수 곱하기 네 자릿수. 하루 종일 걸리겠다. 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보지도 못했는데 42 문제를 풀어야 했다. 한승 선생님이 나를 괴롭게 하는구나. 내가 문제 3번을 풀고 있는데 선생님이 내 어깨를 툭툭 치셨다.

“제니퍼, 여자 화장실에 좀 가서 엘시가 괜찮은지 봐 줄래?” 선생님이 나에게 소곤소곤 말씀하셨다.

엘시는 세면대 끝 쪽 벽에 기대 구부정하게 서 있었다. 머리는 뒤로 젖히고 얼굴을 옆으로 기울여 서 있었다.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 내렸지만 훔쳐내려고도 안 했다. 한 손을 옆에 늘어뜨리고 있었다. 다른 손은 여전히 치마를 움켜쥐고 있었다. 엘시는 슬프고 절망스럽고 외로워 보였다.

나는 한 번도 엘시가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그저 뚱뚱한 여자애일 뿐이었다.

“괜찮니?” 내가 물었다. “한승 선생님이 괜찮은지 가보라고 하셨어.”

엘시는 두 눈을 감았다. 눈물이 눈꺼풀 아래로 툭툭 떨어졌다.

나는 잠시 거기에 서 있었다. “치마를 고정시킬 수 있게 한슨 선생님께 가서 안전핀을 가져올게.” 엘시는 대답이 없었다.

교실은 조용했다. 모두 머리를 산수책 위로 숙이고 있었다. 나는 발끝으로 한슨 선생님 자리로 걸어갔다.

“엘시 치마에 쓸 안전핀 있으세요?”

“그럼.” 선생님이 말하며 핀 하나를 찾을 때까지 위 서랍을 여기 저기 뒤적거렸다.

내가 엘시에게 돌아오자 엘시는 여전히 두 눈을 감고 있었다. 핀을 내밀었다.

“여기 있어, 치마를 고정시킬 수 있을 거야.”

엘시는 듣는 것 같지 않았다. 엘시는 벽을 타고 바닥으로 미끄러져 거대한 덩치로 앉아 무릎에 머리를 떨구고 치마위로 눈물을 떨어뜨렸다.

나는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나와서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졌다. 엘시는 아직도 울고 있었다. 엘시 옆 바닥에 앉았다. “엘시, 그렇게까지 속상해할 일이 아냐.”

“니가 무슨 상관이야?” 엘시가 물었다.

“근데, 난 니가 우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

“그러면 여기서 나가줘.”

“싫어. 애, 엘시, 그만해. 치마를 고치자.” 엘시의 손을 잡으려고 손을 내밀었다.

엘시는 내 손을 뿌리쳤다. “무슨 상관이야, 제니퍼. 애들 모두 널 좋아하잖아.”

“몇몇 애들은 너도 좋아해.”

“누구?”

“음 니네 엄마랑 여동생 그리고 네 친구들.”

“엄마랑 내 동생은 날 좋아하지 않아. 그리고 난 친구도 없어.” 엘시는 팔로 코를 훔쳤다.

휴지를 갖다 줬다. “누군가 한때는 널 좋아 했었잖아.”

“아냐, 아무도 좋아하지 않았어. 한 사람. 한때 아빠는 널 좋아하셨어. 그건 5년 전 일이야.”

나는 격려할 수 있는 뭔가를 찾아내려고 머릿속으로 궁리했다. “애들은 며칠 지나면 이 일을 잊어버릴 거야.”

“그게 어떻다는 건데?” 엘시는 눈물을 다시 흘리기 시작했다. “개들은 전부 널 싫어해. 너도 그렇잖아.”

“아냐, 난 미워하지 않아, 엘시. 미워했었어, 하지만 지금은 아냐. 아마도 너도 감정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

엘시의 입 양쪽 끝이 아래로 썰쭉하게 처졌다. 엘시는 앞쪽의 화장실 문 앞에 시선을 못 박았다.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 지 생각나지 않았다. 엘시에게 거짓말로 애들 모두 너를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될 거라고 말해도 의미가 없었다. 왜냐하면 애들은 엘시를 좋아하지 않았고 좋아하지도 않을 거다. 그리고 엘시도 그 사실을 알았다.

엘시는 몸서리치는 한숨소리를 냈다. “어쨌든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어. 난 단지 몇 달 동안만 더 이 학교에 다니게 될 거야.”

“니네 집이 이사 가니?”

“아니, 나만 가.”

“어떻게?”

“왜냐하면 교장선생님이 학기 말까지만 내가 보호관찰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닐 수 있다고 하였고 엄마도 어쨌든 나를 원하지 않으셔서 다음 가을에 기숙학교로 보낼 거야.”

“아마도 네가 잘 하면 엄마도 마음을 바꾸실 거야.”

“아냐, 엄마는 그러지 않을 거야. 내가 리코리스 줄 캔디 때문에 붙잡히고 나서 모든 기숙학교에 입학안내서를 보내달라는 편지를 써 보냈어.”

“니네 엄마는 여전히 마음을 바꿀 수 있을 거야.”

엘시는 대답하려고 하지 않았다. 우린 서로 나란히 말없이 옆에 앉아 있었

다.

“엘시, 난 네 친구가 될 거야.” 내가 말했다.

엘시는 천천히 머리를 돌려 나를 쳐다봤다. “뭘 땀에?”

“그리고 싶으니까.”

“왜 친구로 도둑을 원하는 건데? 왜 앉아서 먹어대기만 하는 똥똥한 얼간이를 원하는 건데?”

“그런 말들을 했던 거 미안해. 친구가 될 수 있지?”

엘시를 보며 기분 좋게 빙긋 웃어보였다.

엘시는 따라 웃지 않았다. “나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 없어지자마자 넌 나랑 같이 있는 걸 남들한테 보이기 싫어할 거야.”

“애들아 괜찮니?” 문 앞에 한슨 선생님이 계셨다.

내가 급히 일어섰다. 한슨 선생님이 활기차게 말씀하셨다. “핀 좀 쥐, 엘시 치마를 고쳐야겠다. 넌 교실로 돌아가거라.”

엘시와의 사이에 애기가 끝나지 않은 거 같아 잠시 서성댔지만 한슨 선생님이 나를 등지며 몸을 돌려 엘시 치마 허리끈을 핀으로 꿰기 시작하셨다.

쉬는 시간에 애들이 몇몇 그룹으로 몰려서서 엘시에 대해 얘기했다. 마리앤이 뒤로 빠져 테더볼 기둥 쪽으로 가서 혼자서 공을 흔들기 시작했다. 마리앤은 엘시의 기분을 염려하는 유일한 애였다.

“왜 모두들 엘시 일을 들추어내면서 서성대고 있는 거야?”

내가 물었다. “이 일이 뭐가 그렇게 재밌니?”

샤론이 놀라서 나를 쳐다봤다. “치마가 학교에서 맨날 흘러내리는 일은 없어, 알잖아, 제니.”

“글쎄, 니네들 치마가 흘러내리면 좋겠니? 반 전체가 너희를 비웃으면 좋겠어?”

“난 맨날 먹기만 하지 않아.” 샤론이 나에게 말했다.

“엘시가 먹어대기 때문에 치마가 벗겨진 게 아냐.” 샤론에게 말했다. “엘시가 먹지 않아서 치마가 흘러내린 거야.”

“네 말은 개가 먹을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겠지.” 다이앤이 끼어들었다.

“맞아.” 내가 말했다. “개는 쉬는 시간 때 마다 교장실에 갇혀있어. 한 학기 내내! 한 번도 그렇게 오래도록 벌 받았던 사람이 있다는 얘길 들어본 적이 없어. 이 학교에서 그렇게 오래도록 벌 받아본 사람이 있다고 들어 봤니, 샤론?”

“난 그렇게 많은 돈을 흠쳤다는 사람이 있다는 얘길 들어 본 적이 없어.” 샤론이 화를 내기 시작했다.

“좋아, 엘시가 그렇게 했어. 엘시는 변할 수 있을 거야. 난 니가 3학년 때 침대에 오줌 싸고 다이앤네 집에서 자고 가는 걸 두려워했던 걸 기억해. 아직도 잘 때 오줌 싸니, 샤론?”

샤론의 얼굴이 벌겋게 변했다. 콧구멍이 하얗게 됐다. 샤론은 이제 완전히 화가 났다. 나는 테더볼 기둥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가서 마리앤에게 같이 놀고 싶은지 물어 봤다.

그날 내내 기분이 안 좋았다. 친구들과 다투고 싶지 않았다. 샤론을 화나게 하고 싶지 않았다. 집으로 성적표를 가져가고 싶지 않았다. 자기 자리에 앉아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앉아있는 엘시를 봤다. 재수 옴 붙은 날이었어!

가정교사

나는 현관으로 들어가 차 탁자위에 성적표를 올려놓고 위층 내 침실로 갔다.

“제니니?” 엄마가 불렀다.

나는 그냥 올라갔다.

엄마가 쫓아 오셨다. “무슨 일 있니?”

“별일 아니에요. 얼굴을 베개에 묻었다. 혼자 있게 해 주세요. 괜찮죠?”

“성적표는 어딴니?”

“차 테이블 위에요. 문 좀 닫아 주세요. 저녁식사 때 나를 야단칠 수 있을 거예요.”

엄마가 나가셨다.

저녁식사 때 아빠가 내 접시에 음식을 덜어 주셨다. “산수과목이 좀 어렵지, 응?” 아빠가 물었다.

“맞아요. 머리가 나쁘가 봐요!”

아빠가 포크를 내려 놓으셨다.

“저녁 먹고 나서 성적표 애길 하자.” 엄마가 다급하게 말했다. “케니, 콩 좀 먹을래?”

“왜요? 콩 있는데요.”

저녁 식사 후 나는 접시 닦는 기계 안에 접시를 쌓아 놓고 나서 거실로 들어가 큰 소파에 앉았다.

아빠는 신문을 훑어 보셨다. “산수과목에서 뭐가 어려운 거니?”

“분수를 못하겠어요.” 떨리는 느낌이 속에서 올라왔는데 울음이 터질 것 같았다.

“한슨 선생님이 설명할 때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니?” 엄마가 물었다.

나는 눈을 빠르게 깜박였다. “아뇨.”

“이해가 안 되면 선생님께 말씀드리니?” 아빠가 물었다.

“아뇨.”

“그게 먼저 해야 할 일인 것 같구나, 그지?”

“소용없어요. 선생님은 똑 같은 식으로 다시 문제를 그냥 설명해 줘요. 전 모...” 목이 막혔다.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 자리에 앉아 눈을 깜박였는데도, 어쨌든 눈물이 났다.

“제니, 우린 널 야단치는 것이 아니다. 너를 도와주려는 거야.” 엄마가 말했다.

나는 그저 어깨를 으쓱할 수밖에 없었다.

“당신이 제니한테 가정교사를 구해주는 것이 좋겠소.” 아빠가 말했다.

엄마가 한숨을 쉬었다.

“방에 가도 되요?” 내가 물었다.

“물론이지.” 엄마가 말했다.

내가 잠들기 전에 엄마가 올라 오셨다. 침대 모서리 쪽에 엄마가 앉을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드렸다.

“아마도 가정교사가 필요할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니, 제니?”

“엄마 아빠는 돈이 많이 없잖아요.”

“글쎄, 우린 중요한 일에는 언제나 돈을 마련할 수 있어.”

돈. 산수. 엘시. 나는 굉장한 해결책이 생각나서 몸을 일으켜 앉았다. “엄마, 엘시가 가정교사로 나를 가르쳐 줄 수 있을 거예요. 개는 한슨 선생님이 나 엄마보다 훨씬 더 나아요. 엄마는 그렇게 많은 돈을 줄 필요가 없을 거고 개는 자기가 훔친 돈을 돌려주려면 돈이 필요해요.”

“우리는 그저 거들어주는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야, 제니. 우리는 실제 가정교사, 아마도 은퇴한 선생님 한 분을 고용할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다.”

“그치만, 엄마, 전 그렇게까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분수만 못할 뿐인데요.” “엘시는 맨 날 백 점 받아요. 몇 주 동안만 도와주면 돼요. 다음 달에는 진도가 소수로 넘어 가요.”

“난 그렇게 생각...”

“엄마, 엄마는 시간당 엘시에게 50센트를 줄 수 있을 거고 엘시는 매일 한 시간씩 나를 도와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럴 여유는 있잖아요, 그쵸 엄마?”

“엘시는 과제가 뭔지 알고 그냥 어떻게 나를 가르쳐야 할지도 알 거예요.”

“제니, 넌 엘시를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왜 갑자기 개를 원하는 거니?”

“개는 그렇게 나쁜 애는 아니에요. 엘시는 어려운 입장에 처해있는 것이라고 엄마 스스로 그러셨잖아요. 엄마, 다음 시험 때까지만 엘시를 써 보면 안 될까요? 그리고 나서도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실제 선생님을 채용할 수 있잖아요.”

“흠, 그래도 될 것 같구나. 엘시가 원한다면 말이다.” 엄마는 굶나잇 키스를 하셨다.

나는 베게 위에 벌렁 드러누웠다. 스스로 만족스러웠다. 그리고 나서 잠들 때까지 걱정스런 마음이 슬슬 들기 시작했다. 샤론은 아직도 나한테 화가 나 있다. 내가 엘시를 집에 데리고 오면 개는 뭐라고 할까? 애들이 날 싫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는 다이앤 만큼 인기가 좋지 않았다. 엘시가 내 유일한 친구로 붙어 지내게 되면 어찌지? 내가 엘시를 동정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내가 엘시랑 같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을 거라고 한 엘시의 말이 생각났다.

나는 여자 화장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이앤에게 말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고 결심했다. 만일 다이앤이 엘시가 안됐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아마도 내편이 되 주겠지. 아침 일찍, 다이앤 집에 들르게 되면 확실히 나랑 같이 걸어가게 될 거고 그러면 다이앤에게 말할 수 있겠지.

그대로 했다. 비가 올 것 같았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더 빨리 서둘렀다. 다이앤이 삶은 계란과 콩 빵 토스트를 다 먹기도 전에 개네 집에 도착했다. 다이앤의 엄마는 영양학에 폭 빠져 계신다. 나는 부엌 식탁에 앉아 바로 내 얘기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운 좋게도 다이앤은 약간 졸린 상태였다. 그런 상태로 다이앤은 말없이 얘기를 들었다.

다이앤의 엄마도 듣고 계셨다. “짐이 죽고 나서 내가 살았던 일이 생각나

는구나.” 다이앤의 엄마가 천천히 말했다. “외로워 질 때마다 나는 냉장고로 갔지.”

다이앤이 활기를 띠었다. “저도 생각나요. 엄마는 정말 돼지처럼 됐어요.”

“아마도 너희 여자 애들이 엘시와 친구가 되면, 엘시도 줄곧 먹어 댈 필요가 없을 거다.” 다이앤 엄마가 넌지시 말했다.

“엘시는 수학을 잘해요.” 내가 덧붙였다. “우리 엄마가 나한테 가정교사를 데려 오려고 하셨는데 엘시가 분수에 대해 나를 도와주면 엘시한테 돈을 주고 말해서 승낙하셨어요.”

“너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다이앤 엄마가 다이앤에게 말했다. “셋이 같이 공부하면 어떠니?”

다이앤은 대꾸하지 않았다. 다이앤은 코트를 입으러 갔다. 나는 현관에서 기다렸다. 다이앤 엄마와는 모든 일이 잘 되었지만 다이앤은 별로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샤론이 걸어 올라오고 있었다. 샤론은 나를 보자 멈춰 섰다.

“안녕, 어제 내가 너무 신경질 부려서 미안해. 엘시가 화장실이 떠나가라고 울어대서 개한테 미안한 생각이 들었어.”

샤론은 핑크 색 비닐 우비를 입고 뻗뻗하게 서 있었다.

“내가 침대에 오줌을 싸었다는 사실을 학교 전체에 알린 건 나에게는 정말 당황스런 일이야. 우리 엄마도 진정한 친구라면 그런 말은 누구에게도 절대 안 할 거라고 하셨어.”

나는 현관 계단을 걸어 내려갔다. “그 전에는 한 번도 그런 말을 누구한테도 한 적이 없어. 성적표에 산수를 D 마이너스를 받았거든. 어제는 내가 그냥 완전히 미쳤었어.”

“D 마이너스!” 그 말이 샤론의 흥미를 끌었다. “부모님이 어떻게 하셨어?”

“부모님은 가정교사가 필요하다고 하셨어.” 엘시에 대한 부분은 뺐다.

나는 샤론과 내가 다시 좋은 친구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싶었다.

다이앤이 문 밖으로 나왔다. 할머니가 만들어 주신 푸른색 봄 코트 새 옷을 입고 우산을 들고 있었다. 우리가 사는 노스웨스트에는 비가 오지 않을

거라는 말은 결코 믿을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학교로 출발하면서, 샤론이 다이앤 한쪽 옆으로 옮겨갔다. 나는 다른 한쪽 옆에서 걸어가야 했다. 샤론은 아직은 사이좋은 친구가 될 마음이 없었다.

엘시가 쉬는 시간에 밖에 나갈 수 없어서 다행이었다. 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이앤과 샤론과 같이 놀았다. 샤론은 보통 때처럼 나한테 말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나랑 어울리지 않는 것도 아니었다.

체육시간에 나는 가정교사에 대해 엘시에게 물어 볼 기회가 생겼다. 야구 경기에서 우리가 공격하려고 정렬하고 있었다. 엘시는 엄마에게 먼저 물어보고서 우리 집에 올 수 있을 거라고 했다. 개네 엄마는 모든 일을 자세히 확인하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 엄마한테 전화할지도 모른다고 했다.

수업 끝나고 다이앤과 샤론을 우리 집으로 초대했다. 엄마가 괜찮다고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 주셨다. 엄마는 쿠키를 구워서 내 방으로 갖고 올라가게 해 주셨다. 초콜릿 칩 쿠키를 먹고 레코드를 들으면서 샤론이 누그러졌다.

레코드를 바꾸는데 다이앤이 갑자기 물었다. “엘시가 정말로 네 산수 가정교사가 될 거니?”

“모르겠어.” 내가 말했다. “개네 엄마한테 물어봐야 한대.”

“엘시한테 얼마나 줄 건데?”

“내 생각에 엄마는 한 시간에 50센트씩 줄 것 같아.”

“하루에 얼마나 과외 공부할 거니?” 다이앤이 내 침대 위에 앉으면서 열심히 나를 쳐다봤다. 샤론은 바닥에 앉아 레코드를 고르고 있었다.

“아마도 한 시간.” 내가 대답했다.

“한 시간에 50센트라.” 다이앤이 계산했다. “엘시는 일주일 지나면 돈을 다 돌려 줄 수 있겠다. 아마도 니네 엄마가 엘시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돈을 우리에게 주는 게 낫겠다.”

“안돼, 다이앤, 엘시가 모두에게 돈을 돌려 줄 거야. 엘시는 애들이 자기를 싫어하지 말았으면 해.”

“그런데 왜 개는 그러는 것처럼 굴지 않는 건데?” 다이앤이 일어나서 내 옷장을 열었다.

“니가 생일날 받은 실내 원피스 좀 입어보자.”

샤론이 쳐다봤다. “어떻게 해서 엘시가 너를 가르치기로 한 거니?”

“왜냐하면 엘시가 다른 선생님 보다 더 싸거든.” 내가 샤론에게 말했다.

“아.” 샤론이 말했다. 샤론은 나에게 레코드 판 하나를 건네줬다.

비지스를 틀어줘. 나는 비지스를 틀었다. 모든 일이 다 잘 되겠다고 생각했다. 친구관계도 그대로고 분수도 배우고, 엘시는 날씬하게 되겠지.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걸 알게 됐다.

다시 돈이 없어졌어요

저녁 식사 후에 엘시 엄마가 우리 엄마한테 전화하셨다. 나는 접시를 내 버려두고 거실근처에서 전화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엄마는 사람들에게 아주 상냥하게 대할 줄 아신다. 엄마는 에드워즈 아줌마께는 특히 더 상냥하게 대하시며 어떻게 내가 독감에 걸려서 진도를 따라가지 못했는지를 설명하시고는 엘시가 산수를 아주 잘하니까 몇 주 동안 내가 진도를 따라가는 걸 도와줄 수 있게 단지 수업 끝나고 엘시를 집으로 오게 해 줄 수 있을까요? 에드워즈 아줌마가 뭐라고 대답했는지는 듣지 못했지만, 엄마는 푸른 눈을 크게 뜨시며 거짓 웃음을 웃으셨다. 그리고는 “아, 고맙게도, 물론 그러셔야죠. 저는 엘시의 친절에 대해 작은 물질적 사례를 하고 싶은 것 뿐 이에요.”

엄마가 전화를 끊자 내가 물었다. “물질적이라는 게 뭐예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거, 돈처럼.”

“엘시 엄마가 엘시를 보내 준대요?”

“마지못해 하셔. 개 엄마는 자기네가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고 그리니까 엘시에게 꼭 돈을 줄 필요는 없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알았으면 하시네.”

“그 엄마는 아마도 돈에 대해 자기 딸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거네요.”

“제니퍼, 엘시에게 자기 빚을 먼저 갚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좋겠다.” 엄마가 말했다.

“그렇게요.” 내가 다짐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이앤이 걔 죽여 버릴걸요.”

엄마는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매일 엘시는 자기가 돈을 훔친 애들 중에 한 애에게 다가가 미안하다고 말하고는 돈을 건넸다. 다행히도 엘시는 다이앤에게 맨 먼저 돌려 줬다.

엘시와 나는 식탁 위에서 공부하려고 애썼지만, 케니가 엘시한테 너무 흥미가 끌려서 엘시를 쳐다보며 계속 우두커니 서 있었다. 엘시는 모르는 척했

다.

엘시는 나를 가르치는 데 대해 아주 사무적이었다. 엘시는 내가 각각의 문제를 풀기 위해 해야 할 단계를 꼼꼼하게 설명해 주고 나서 그렇게 해 보라고 했다. 내가 잘 못하면 개는 즉각 멈추게 했다. 엘시는 다시 꼼꼼하게 설명해 주고 마치 내가 푸는 것처럼 문제를 풀고 나서 다시 시작해 보게 했다. 내 전체 숙제는 한 시간도 채 안되어 끝났다.

엘시가 가고 나서 케니가 엘시를 쳐다보는 태도가 당황스럽기 때문에 공부하는 동안 케니를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줄 수 있는지 엄마에게 물었다.

“도저히 케니를 야단칠 수는 없는데.” 엄마가 대답했다. “개는 지금껏 본 애들 중에 제일 똥똥한 어린애잖니.”

“개는 살을 많이 뺐어요.” 내가 말했다.

“살을 많이 뺐 거라고! 그럼 전에는 체중이 얼마였는데?”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개 눈을 볼 수 있어요. 전에는 두 눈이 전부 찌그러져 있었어요. 어쨌든, 엄마, 케니를 못 오게 해줄 수 있죠?”

“애써 보마.” 엄마가 말했다.

엄마는 그렇게 열심히 애쓰지 않았다. 엘시와 내가 다음 날 집에 오자 케니는 부엌에서 통카 트럭을 갖고 놀고 있었다. 문제 두개도 다 못 풀었는데 식당 문이 열리며 케니가 무릎으로 기면서 자기 앞으로 트럭을 밀며 들어왔다.

“케니, 여기서 나가!” 내가 명령했다.

“여긴 내 집이야.” 케니가 자기 트럭 위쪽을 향해 중얼거렸다.

“좋아. 우리가 여기 있잖아. 넌 네 부엌으로 가.”

케니가 식당 양탄자 주위를 계속 돌아다녔다.

“엄~마!” 내가 소리 질렀다.

엄마가 문 가로 오셨다. “이리 와, 케니. 넌 나랑 부엌에서 놀자.”

“전 싫어요.” 케니가 말했다.

“자, 어쨌든 이리 와.” 엄마는 케니를 들어 올리려고 몸을 굽혔다. 케니는 자기 트럭과 같이 급히 손이 피해 빠져나갔다.

“나랑 같이 가자, 케니.” 엄마가 달랬다. “넌 누나들을 귀찮게 하잖아.”

“아뇨, 전 아니에요.” 케니가 말하며 식탁 아래에서 돌아 다녔다.

“으이구, 엄마, 재가 시간을 전부 잡아먹고 있잖아요.” 내가 조금하듯 말했다. 엄마는 케니가 빠져나가는 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러면 케니를 데리고 나가게 도와 줘.” 엄마가 말했다.

“좋아요!” 나는 식탁 아래로 손을 뻗어 발목을 잡고는 엄마 쪽으로 밀쳤다. 케니가 소리치기 시작했다. 엄마는 케니를 들어 올리셨다.

“정말이지, 제니퍼 그렇게 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케니를 붙잡았잖아요, 안 그래요?” 엄마가 케니를 데리고 문 밖으로 나가자 나는 앉아서 다른 문제를 풀기 시작했다. 엘시는 잠자코 있었다.

“개는 버릇없어.” 내가 엘시에게 말했다.

“내 어린 여동생도 마찬가지로야.” 엘시가 대꾸했다.

요란하게 아우성대는 소리가 부엌에서 났다. 엄마는 식당 문으로 들어 오셔서 식탁 아래 있는 트럭을 끌고 황급히 부엌으로 돌아가셨다. 아우성대는 소리가 그쳤다.

“네 동생은 몇 살이야?” 엘시에게 물었다.

“일곱 살. 케니는 몇 살이야?”

“세 살 반이야. 근데 두 살 난 애처럼 굴어.”

“내 여동생이 하는 일이라고는 엄마한테 달라붙어서 예쁘다고 아양 떨며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데 난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해.”

“엄마한테 예쁘다고 애교 좀 부려보지 그래?”

엘시는 턱, 아니 턱들을 손으로 받쳤다. “한번 노력했었어. 엄마한테 과란 드레스를 입으니까 눈이 더 파랗게 보인다고 했어. 엄마는 내가 입고 있는 스웨터때문에 내가 더 뚱뚱해 보인다고 가서 갈아입으라고 딱딱거리며 대꾸 하셨어.”

“심술 맞다!” 너무 심술 맞아서 나까지 기분이 나빴다. 아마도 엘시도 기분이 나빴을 것이다. 엘시는 꾀꾀이 앓아 있었다.

“문제 마저 풀자.” 엘시가 말했다.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나는 산수에서 백 점을 받았다. 시험전날 시험을 통과할 자신이 있었다. 한슨 선생님은 우리에게 분수부분을 복습해 주셨다. 난 선생님의 설명을 전부 이해했다. 만일 나눗셈과 곱셈에서 헛갈리기 시작하면 엘시의 충고를 생각하면 될 거다. 곱셈에서는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서로 곱한다. 나눗셈에서는 두 번째 분수의 분자와 분모를 아래 위 숫자를 거꾸로 바꿔서 서로 분자는 분자 분모는 분모끼리 곱한다.

산수시간 끝난 후에 한슨 선생님은 보건시간에 응급치료 역할극을 하기 위해 그룹을 뽑으라고 하셨다. 한 그룹을 택해서 샤론, 다이앤과 엘시를 뽑았다. 내가 엘시를 뽑은 일이 별일이라고 여기는 애들은 아무도 없었다. 우리 팀은 베인 상처 치료에 대한 역할극을하기로 했다. 다이앤은 미끄러져 내리는 유리문을 지나다 팔을 베이는 애 역이었다. 샤론은 그 문의 집주인이었다. 나는 팔을 다친 여자 애 친구였다. 엘시는 진료실에서 일하는 간호사 역이었다.

우리의 역할극이 반에서 최고라고 생각했다. 한슨 선생님 역시 그렇게 생각하신 게 틀림없었다. 왜냐하면 선생님은 우리 팀 모두에게 A를 주셨기 때문이다. 선생님은 다이앤의 연기가 훌륭했고 나는 응급처치 시에 정확한 압박 점을 알았고 샤론은 환자를 서둘러 보내는 일을 정확하게 했으며 엘시는 효율적인 간호사 역을 해냈다고 했다. 기분 좋은 날이었다.

한슨 선생님이 학습도서클럽 돈을 찾을 수 없을 때까지는 기분 좋은 날이었다. 선생님은 독서시간동안 책상을 휘젓고 있었다. 선생님이 뭘 하시는지 궁금해서 몇 번을 쳐다봤다. 결국은 선생님은 수업을 중단시켰다. “내 책상 위에 있던 큰 얇은 황갈색 봉투 본 사람 있니?”

아무도 대답이 없었다.

“오늘 아침에 바로 여기 있었는데. 이것처럼 생긴 거야.” 선생님은 대충 학

교 시험지 한 장 크기의 노란 봉투를 들어 올렸다.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잭이 물었다.

“여러분들이 납부한 도서대금 전부예요. 오늘 주문서를 우편으로 보낼 예정이었는데 돈을 세려고 했어요. 봉투는 오늘 아침에 바로 여기 내 책상 위에 있었어요. 누가 그걸 본 기억나는 사람 없어요?”

“엘시가 간호사 역을 할 때 선생님 책상에 앉았어요.” 잭이 말했다.

내 심장이 두근두근 뛰었다. 내 심장이 정말로, 실제로 쿵쿵거렸다.

“엘시, 내 책상 위에 봉투 봤니?”

“아뇨, 못 봤어요.” 엘시가 대답했다.

교실이 조용해졌다

나는 속으로 엘시가 안 가져갔다고 생각했다. 어떻게 그걸 자기 책상으로 가져갈 수 있었을까?

한슨 선생님은 생각에 잠겨 그대로 서 계셨다.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실히 모르셨다.

“전 돈을 가져가지 않았어요.” 엘시가 큰소리고 말했다.

“아무렴 네가 안 가져갔겠다.” 잭이 말했다.

“그럴 필요 없다, 잭.” 한슨 선생님이 말했다. 수업 끝나고 좀 더 찾아보겠다. 쓰기 시험 볼 거니까 종이 꺼내세요.

한슨 선생님은 엘시에게 수업 끝나고 잠깐 남으라고 했다. 나는 다이앤과 샤론에게 먼저 가라고 했다. 다이앤은 알았다면서 걸어가기 시작했다. 샤론은 다른 가정교사를 찾아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려고 멈춰 섰다. 나는 엘시가 나올 때 까지 교실 밖에서 기다렸다. 엘시의 눈이 슬퍼보였다. 입은 다시 아래로 축 쳐져 있었다.

“한슨 선생님이 뭐라셔?” 학교건물을 나오면서 내가 물었다.

“선생님은 내 책상에 있는 것 전부 꺼내게 하셨고 내 옷 여기 저기 뒤졌어. 오늘은 개인과의하고 싶은 기분이 아니야.”

“그래, 괜찮아.” 내가 말했다.

엘시는 자기 집 쪽을 향해 갔다. 엘시가 걸어가면서 손가락을 머릿속으로 집어넣어 머리카락을 확 잡아당기려고 하는 것을 봤다. 언짢은 일이 엘시에 게 생겼다. 그건 불공평 하다.

집에 와서 나는 식당에서 산수를 풀려고 애썼다. 약분하려고 하면서 완전히 뒤죽박죽을 만들었다. 과제물을 꾸깃꾸깃 구겨버렸다. 엄마가 다이어트 음료를 들고 들어오셨다.

“엘시는 어딴니?” 엄마가 물었다.

“집에 갔어요.” 내가 말했다.

“제니퍼, 엘시랑 싸웠니?”

“아뇨, 엘시는 그냥 오늘 가르칠 기분이 아니었어요.”

엄마는 음료수 캔 하나를 나에게 주려고 했다. 그런데 도로 가져가셨다. “잠깐만. 엘시가 여기 없으면 넌 다이어트 음료수 마실 필요 없다. 가서 우유 한잔 마셔라.”

“우유 마시고 싶지 않아요.” 나는 책과 과제물을 싸들고 내 방으로 올라갔다.

나는 생각하면서 내 방에서 어슬렁거리며 왔다 갔다 했다. 엘시는 이제는 돈을 가져가려고 하지 않아. 만일 엘시가 돈을 가져갔다면 반에서 죽음이었다. 학교에서도 끝장이었다. 더글라스 교장선생님은 아마도 엘시를 쫓아낼 것이다.

저녁식사 때 아빠는 텔레비전에서 빌 코스비 스페셜을 한다고 나에게 말했다.

“오늘 밤에는 텔레비전 볼 수 없어요.” 내가 말했다.

“웬일이니?” 아빠는 실망하시는 것 같았다. 아빠와 난 같이 그 프로그램을 엄청 좋아 한다.

“산수를 다 못했어요. 그리고 내일 시험이 있어요.”

“똥똥한 친구한테 무슨 일 있니?”

“개는 오늘 가르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똥똥한 친구'라고 하는 건 별로

점잖은 거 같지 않아요.”

“엘시랑 싸우지 않았다는 거 정말이니?” 엄마가 물었다.

“네, 개랑 안 싸웠어요, 엄마.”

“시험전날 올 수 없다니 너무 유감스러워.” 엄마가 말했다. “음, 네가 분수 진도를 다 따라 잡았는지 내일 알게 되겠지.”

나는 고기 덩이를 한입 씹어 삼켰다. “일주일 만에 내가 진도를 다 따라 잡으리라고 기대하실 수는 없어요. 그건 공정하지 않아요.”

“내 말은 네가 A를 받을 거라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시험에 통과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니?” 엄마가 화장지로 케니의 입을 닦았다. 케니는 자기 입을 닦을 수 있을 만한 나이다.

케니는 엄마 손을 밀어냈다. 윗입술에 여전히 토마토소스 자국이 있었다. 엄마는 냅킨을 물에 적셔 다시 케니를 닦았다. 케니는 이빨로 엄마 손가락을 물었다. 엄마는 소리치며 손을 빼냈다.

내가 웃었다.

“제니퍼, 웃을 일이 아냐!” 엄마는 케니를 자리에서 끌어내어 엉덩이를 찰싹 때리고는 침대로 가라고 했다.

“꽤 나무랄 수는 없지.” 케니가 가자 아빠가 말했다. “당신은 케니가 스스로 입을 닦게 해야지.”

“그게 날 물을 이유가 돼요? 애들이 지저분하면 당신은 날 나무라잖아요. 애들을 깨끗하게 해 주려고 하는데도, 당신은 나한테 뭐라고 하고.”

“당신을 나무라는 게 아니었어. 난 단지 ... ”

나는 식탁을 떠났다. 나머지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었다. 엘튼 존 판을 레코드판에 걸었다. 나는 산수책과 과제물을 들고 침대 한 가운데 앉았다. 내가 싫어하는 부분은 대분수를 곱하기 전에 가분수로 바꾸는 것이다. 만일 엘시가 그 봉투를 가져가지 않았다면 지금쯤 개는 기분이 엉망일 거다.

케니가 내 방문을 밀어 열었다. 케니는 비행기 무늬가 있는 노란 잠옷을 입었다. 내 침대로 어슬렁어슬렁 걸어왔다.

“난 디저트 아무것도 안 먹었어, 제니 누나.” 개 입이 엘시처럼 아래로 썰쭉하게 쳐졌다.

내 옆 침대위로 케니를 끌어 올렸다. “나도 안 먹었어.”

내 얼굴을 쳐다봤다. “누나도 말 안 들었어?”

“아니, 엄마가 디저트 내오기 전에 식탁에서 일어났어.”

“기분이 안 좋아? 난 안 좋아.”

내 옆으로 바짝 케니를 당겨 안았다. “나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케니의 부드러운 갈색머리 위에 내 턱을 얹었다. 케니는 그렇게 나쁜 어린 동생이 아니었다.

다음날 학교에 가자, 엘시는 도서관 책을 읽고 있었다.

“안녕.” 내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엘시는 계속 책을 읽었다.

엘시와 말하는 것을 과시하고 싶지는 않았다. 하지만 엘시가 내가 여전히 자기 친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도 싫었다.

한슨 선생님은 우리가 주목하기를 기다리면서 교실 앞에 서 계셨다. “학생 여러분, 고백할게 있어요. 나는 여러분에게 다소 바보같이 구는 교사예요.”

“맞아요.” 다이앤이 숨죽여 말했다.

“교재대금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한슨 선생님이 계속 말씀하셨다. “나는 내 책상 위에 봉투를 놔뒀다고 생각했지만 수업 끝나고 교무실로 갔더니 거기 책상에 있었어요. 그제서야 내가 어제 수업시간 전에 교무실로 봉투를 가져가서 돈을 세보고 사무직원에게 쥐서 우편으로 보낼 수표를 받으려고 했던 생각이 났어요. 더글라스 교장선생님과 얘기하게 되면서 그 일을 까마득히 잊어버렸던 거예요.”

나는 엘시를 봤다. 엘시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다. 다음에는 한슨 선생님이 엘시에게 사과할 거라고 생각했다. 선생님은 사과하지 않았다.

사회수업 교재를 꺼내세요. 쉬는 시간 끝나고 산수 시험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말했다.

“그건 잘못된 거야.” 쉬는 시간에 다이앤과 샤론에게 말했다. “선생님은 어제 엘시에게 수업 끝나고 남게 하고는 엘시 책상을 뒤지고 엘시 온 몸을 뒤지고 나서는 사과조차 하지 않으셨어.”

“글쎄, 엘시가 그렇게 했다고 생각한다고 선생님을 뭐라고 할 수는 없어.” 샤론이 말했다.

“진정해, 야구경기에 같이 끼자.” 다이앤이 말했다. 다이앤은 여자애들 중에서 가장 잘하는 타자였다. 다이앤은 맨날 야구경기 하고 싶어 했다. 나는 여전히 엘시에 대해 얘기하고 싶었지만 아무도 그러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았다.

한슨 선생님이 시험지를 나눠주는 동안 나는 손톱을 깨물었다. 엘시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약분에 대해 자신이 없어.” 내가 소곤거렸다.

“약분을 하지 마, 약분하지 않고도 곱셈할 줄 알잖아.” 엘시가 낮게 대답했다.

약분하지 않을 때는 더 큰 수로 곱해서 나눠야 한다. 나는 마지막으로 시험지를 냈다. 다른 애들은 모두 도서관 대여도서를 읽고 있었다. 모든 사람이 시험을 끝낼 때까지 말하거나 돌아다니지 못했다.

우리가 마샬 선생님과 체육을 하고 있는 동안 한슨 선생님은 답안 채점을 하셨다. 학교가 끝나기 바로 전에야 선생님은 채점한 시험지를 나눠 주셨다. 나는 B 마이너스를 받았고, 엘시는 A, 샤론은 C, 다이앤은 C 마이너스를 받았다. 우리는 성적을 말하면 안 되었다. 성적은 다른 누구의 일이 아니고 바로 자신만의 일이라고 한슨 선생님이 말했다. 어쨌든 우리는 말했다.

집으로 가면서 엘시는 자기가 받은 A에 대해 한 마디도 안 했다. 나는 내가 받은 B 마이너스에 대해 너무나 의기양양하게 자랑해서 다이앤이 결국은 나에게 B 마이너스가 그렇게 대단한건 아니라며 그만하라고 했다.

하지만 엄마는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엄마는 시험지를 보며 얼굴이 기쁨으로 빛나셨고 내 얼굴을 보며 기뻐하셨고 엘시를 보며 밝게 웃으셨다.

“엘시, 너 굉장하다.” 우리와 같이 식탁에 앉으며 엄마가 엘시에게 말했다. “넌 정말 대단하다. 내가 제니를 가르치려고 할 때 난 개를 더 혼란스럽게 했어.” 엄마가 의자를 뒤로 빼졌다. “자아, 아빠는 오늘 밤 일하실 거다. 나는 너희 모두 아이스크림 먹으러 데어리 퀸으로 데리고 갈 거야.”

엘시는 그대로 앉아 있었다. 고맙습니다. 소이여 부인, 하지만 전 갈수가 없어요. 전 다이어트 중이거든요.

“아, 이런, 잊어 먹었네. 미안하다, 애야.” 엄마는 엘시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너는 다이어트도 아주 잘하고 있구나. 어려울 텐데. 축하할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다.”

엄마는 바보처럼 엘시가 다이어트하고 있다는 걸 까먹었다. 하지만 엄마가 왜 그러셨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엘시를 알게 되면 될수록 나는 엘시가 똥똥하다는 사실을 점점 자주 잊어버렸다. 엘시는 아주 자주 웃지는 않지만 웃을 때 보면 이가 아주 예뻐다.

엄마는 기분 좋게 콧노래를 부르며 내 시험지를 갖고 방에서 나가셨다.

“니네 엄마는 아주 좋으셔.” 엘시가 말했다.

“대부분은 좋으셔.” 내가 인정했다. “이따금 엄마는 신경질적이 되셔.”

“넌 운이 좋아. 우리 엄마는 맨날 신경질 적이야. 최소한 나한테는 그래.”

한슨 선생님은 시험 치는 날에는 숙제를 내지 않았다. 비가 내리고 있어서 우리는 음악을 들으러 내방으로 올라가기로 했다. 내가 쌓여있는 레코드판을 꺼냈고 엘시는 나와 같이 침대 위에 앉았다. 엘시의 몸무게 때문에 침대에서 삐걱삐걱 소리가 났다.

“롤링스톤스 판은 없니?” 엘시가 레코드를 뒤적이며 물었다.

“없어, 넌 있니?”

“없어. 근데 우리 엄마는 갖고 계셔. 엄마가 외출하면 그 판을 들어. 난 그게 좋아, '눈물이 흐를 때'” 엘시가 머리를 뒤로 기울이며 노래 불렀다.

깜짝 놀랐다. “엘시, 진짜 가수처럼 부른다. 그렇게 부르는 것을 어디서 배웠어?”

“집에 우리끼리만 있을 때 내 동생이랑 엄마 레코드판을 틀어서 따라 부르는 연습을 했어.”

“엄마는 자주 너희들만 남겨 놓으셔?”

“응, 새 남자 친구가 생겼거든.”

“멋있어?”

“괜찮은 것 같아. 그 아저씨를 별로 본 적이 없어. 포르쉐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데 엄마는 그 점을 좋아하셔.”

“우린 11년 된 폴크스바겐¹¹이 있는데 엄마는 그 차를 안 좋아해.“ 내가 말했다.

엘시가 웃었다. 그리고는 다시 슬픈 표정으로 얼굴을 숙였다. “난 우리가 학교를 계속 같이 다닐 수 있으면 좋겠어.”

“아마 그럴 수 있을 거야.” 내가 말했다. “만일 네가 정말 학교생활을 잘하고 계속 다이어트를 하면 교장선생님이랑 네 엄마는 아마도 마음을 바꾸실 거야.”

“아마도.” 엘시가 침대에 앉아 눈을 내리 깔고 누비이불에 노란 실을 손가락으로 잡아당기면서 말했다.

“분명히 그러실 거야. 네가 잘하면 말이야.” 내가 단언했다. 정말로 그때는 그럴 거라고 믿었다. 이따금 엄마는 나에게 화가 나거나 신경질 적이 되기도 하고 가끔은 케니를 나보다 더 아낀다고 생각했다. 때로는 나에게 소리치시기도 하지만 엄마는 나를 필요로 하신다는 사실을 항상 알고 있었다.

엘시는 여전히 침대에 앉아 슬픈 표정을 하고 있었고 나는 계속 학교를 같이 다니게 될 거라고 엘시가 확신할 수 있는 뭔가를 생각하려고 애쓰고 있었는데 케니가 내 방을 열었고 엄마가 뒤따라 들어 오셨다. 엄마는 크리스마스나 생일날 때처럼 행복하고 바쁜 듯한 모습을 하셨다.

“옷 입어, 애들아. 쇼핑하러 갈 거야.” 엄마가 말했다.

“전 집에 가야 할 시간인 것 같아요.” 엘시가 침대에서 일어서자 메트리스

11 독일의 대중용 소형차

스프링이 튀어 올랐다.

엄마가 “아냐, 아냐” 라며 엘시를 말렸다. “먼저 쇼핑을 하고 나서 집에 데려다 줄게. 너희 둘한테 선물을 사주려고 해.”

“나두요.” 케니가 말했다.

“안돼, 너 오늘 시험에서 B나 A를 받지 못 했잖아.” 엄마가 케니에게 말했다.

“난 시험보지 않았는데.” 케니가 말했다.

“넌 시험보기에는 너무 어려. 학교에 다녀야만 시험을 보는 거야. 자, 애들아, 가자.” 엄마가 우리에게 문 쪽으로 가라며 손을 흔들었다.

케니가 내 손을 잡았다. “누나가 시험 보게 해 줄 거야. 그렇지 제니 누나?”

“차 안에서 문제 내 줄게.” 내가 약속했다.

엘시와 나는 뒤 자리에 앉았다. 케니는 엄마와 같이 앞좌석에 앉았다. 두 개의 앞좌석 사이로 우리를 들여다봤다.

“지금 문제 내줘, 제니 누나.” 케니가 졸랐다.

“좋아. 열 까지 세.” 내가 말했다.

케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아홉, 열!” 을 션다.

“B 밖에 못 주겠다. 일곱을 빼 먹었어.” 내가 말했다.

“앗!” 케니가 울기 시작했다.

“괜찮아. 괜찮아. B라면 선물 받는 거야.” 케니를 안심시켰다.

케니가 다시 좌석 틈사이로 들여다봤다. “나한테 문제 내줘, 엘시누나.”

엘시의 우울한 기분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엘시는 생각에 잠겨 윗입술을 빨았다. “좋아, 문제 낼게. 제니의 스웨터는 무슨 색깔이야?”

“노랑.” 케니가 말했다.

“맞았어.” 엘시가 말했다.

“내가 맞혔어, 엄마.”

엄마는 쇼핑센터 저녁 교통이 혼잡한 가운데 주차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음-흠, 내 얘기.” 좁은 공간에 차를 끼워 넣으려고 운전대를 열심히 돌리면서 낮은 소리로 말했다.

“다른 문제 내줘, 엘시누나.”

“엄마 코트는 무슨 색깔이야?”

“빨강!” 케니가 소리 쳤다.

“맞았어! 넌 A 야.”

“A 받았어요, 엄마! A예요 엄마.” 우리가 차에서 우르르 내리자 케니가 계속 소리 질렀다.

“그래, 애야.” 엄마는 케니 손을 잡았다. “너희는 어디로 가고 싶니?”

“어디 어디 갈수 있는데요?” 한 줄로 늘어선 가게 앞 처마 밑에서 멈춰 섰다.

“어디 보자.페이앤세이브¹² 아니면 올위스연쇄 백화점¹³이 있는데.” 엄마가 제안했다.

“페이앤세이브요.” 내가 결정했다. “우리 둘 다 레코드판 사도 되요?”

“그게 딱 일 것 같다.” 엄마가 우리를 가게로 데려갔다.

엘시랑 나는 진열함의 레코드판들을 훑어보고 있었고 그 동안 케니는 자기한테도 레코드판을 사달라고 조르면서 여기저기 뛰어다녔다. 엄마는 케니에게 벌 이브스¹⁴판을 골라 줬다. 엘시는 롤링스톤스 판을 골랐다. 나는 나한테 없는 엘튼존 판을 골랐다.

엘시의 집으로 차를 타고 가면서 엘시가 노래 부를 줄 안다고 엄마에게 말했다.

“대단한데! '파리를 삼킨 할머니를 안다네'를 다 같이 불러보자.” 엄마가 말했다.

우리는 엘시네 집으로 가는 내내 노래를 불렀는데 케니는 듣기 싫게 짹짹

12 현재의 24시간 일주일 내 운영하는 편의점과 유사한 미국의 연쇄점.

13 올위스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시작한 체인으로 운영되는 슈퍼마켓 종류.

14 1930~60년경 미국에서 유명한 가수겸, 작곡가, 배우로 아동용 '파리를 삼킨 할머니를 안다네'라는 노래 부름.

대는 작은 소리로 엉망으로 발음하며 불렀다. 엘시가 레코드판을 들고 내리며 엄마한테 고맙다고 인사할 때보니까 예쁜 이를 드러내고 보조개가 패이며 함박 웃고 있었다.

“괜찮은 애야.” 엄마가 운전하시면서 말했다.

“몇 명이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요?” 엄마에게 물었다.

“몇 명인데?”

“둘요, 엄마랑 나.”

다음날은 토요일이었고 엄마는 회사에 인터뷰하러 갈 예정이었다. 엄마는 케니를 돌봐주면 돈을 주겠다고 하셨고 게다가 오후 내내 친구 한 명을 오라고 해도 된다고 하셨다. 다이앤은 할머니 택에 갈 예정이고 샤론은 자기 이모랑 쇼핑하러 갈 예정이라서 엘시에게 전화했다. 엘시는 어린 여동생과 같이 집에 꼼짝 못하고 있었지만 대신에 나한테 자기네 집으로 오라고 했다. 엄마도 좋다고 하셨다. 기뻐다. 엘시네 집 안이 어떻게 생겼는지 엄청 보고 싶었다.

엘시네 집은 우리 집보다 더 멋있었다. 소파에 붙은 작은 탁자들 위에 높은 화병들이 있었고 거실 커피 테이블 위에는 파란 재털이와 장식용 유리 개구리가 놓여 있었다. 나는 케니의 손을 잡고 다니며 여기저기 둘러봤다.

엘시는 우리를 뒤뜰로 데려갔다. 그날은 특히 햇살이 좋았다. 대부분은 그냥 비만 오는 날씨였다. 케니와 엘시의 어린 여동생은 그네를 번갈아 탔다.

엘시랑 나는 야외탁자에서 서양장기¹⁵ 게임을 했다. 엘시가 두 번이나 이겼다. 세 번째는 내가 이기려고 아주 굳게 다짐하다 보니 엘시가 "케니랑 로빈이 어디 갔지?" 라고 물을 때 까지 뜰 안이 얼마나 조용한지 알아채지 못했다.

우리는 동생들이 부엌에서 그레이햄크래커¹⁶ 던지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찾았다. 전맥크래커 깨진 부스러기들이 부엌바닥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

15 체스판에 두개의 말을 사용하여 대결하는 게임

16 미국의 그레이햄 목사가 식이요법으로 먹었던 전맥으로 만든 빵에서 따온 이름. 건강식

다.

"엄마가 오시기전에 크래커조각을 깨끗이 치워!" 엘시가 자기 어린 여동생에게 소리 질렀다.

"이리와, 케니, 너도 같이 치워." 케니에게 말했다.

엘시의 어린 여동생은 빗자루를 꺼내 들고 부스러기들을 오히려 더 사방으로 튀기며 흐트러뜨렸다. "빗자루 내 놔." 엘시가 명령했다. "넌 쓰레기통에 큰 조각들을 집어넣어."

차도에서 차 한대가 멈추는 소리를 들었다. 엘시는 빗자루를 든 채 얼어붙었다.

로빈이 뒷문으로 달려 나갔다.

에드워즈 아줌마가 부엌이 난장판인 것을 한눈에 알아채고 엘시에게 성큼다가가 손에서 빗자루를 나꿔채고 그걸로 엘시 엉덩이를 세계 내리쳤다. "한 시간도 널 믿고 맡길 수가 없어, 그렇지?"

에드워즈 아줌마는 엘시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엘시가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아서 내가 끼어들었다. "엘시 잘못이 아니에요, 에드워즈 아줌마. 케니랑 ..." 내 목소리가 기어 들어갔다.

에드워즈 아줌마가 똑바로 나를 보고 계셨다. 돌처럼 차가운 표정이었다. 엘시는 오늘 더 이상 놀 수 없다. 네 동생이랑 얼른 집으로 가는 게 좋겠구나. 아줌마가 말했다.

엘시를 힐끗 쳐다봤는데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그레이험크래커 부스러기를 줍고 있었다. "나중에 봐, 엘시." 내가 말했다. 케니의 손을 움켜잡고 그 집에서 나왔다.

"아줌마는 나쁜 엄마야." 케니를 재촉하면서 집으로 오는데 케니가 말했다. 아줌마는 그랬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빴다.

밤샘 파티

월요일 아침에 학교 가는 길에 다이엔 집에 들렀을 때 다이엔의 엄마가 물었다. “산수 시험에 성적이 어떻게 나왔니?”

“B 마이너스요.”

“B 마이너스구나.” 다이엔 엄마가 부엌 탁자에 앉아 있는 다이엔을 향해 돌아섰다. “알고 있었니?”

“물론 알고 있어요.” 다이엔은 오렌지 주스 잔을 다 비우고 있었다. 주스 잔을 내려 놨다. “B 마이너스가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제니는 두 주 동안 아팠잖니. 넌 말짱했잖아. 그런데 넌 C 마이너스였어.”

다이엔이 일어섰다. “그래서 뭐요? 제니는 날마다 도와주는 엘시가 있잖아요.”

다이엔 엄마가 나를 향해 돌아섰다. 나는 기다리면서 문 옆에 서있었다. “제니, 오늘 오후에 엘시를 여기로 데려오지 않을래? 그러면 너희들이 수업 끝났을 때는 내가 집에 있을 거고 다이엔 밤샘파티 계획을 짤 수 있을 거야.”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말했다. “하지만 먼저 엄마한테 여쭙 봐야겠어요.”

“그래. 오늘 오전에 네 엄마한테 전화해야겠다.”

다이엔이 코트를 들고 나를 문 밖으로 밀었다.

“명심해, 다이엔.” 다이엔 엄마가 우리 뒤에 대고 소리쳤다. “수업 끝나고 여기로 오는 거야.”

“알았어. 알았어. 들었어요.” 다이엔이 등 뒤로 문을 쾅 하고 닫았다.

“뭇 땀에 우리 엄마한테 B 마이너스 받았다고 했니?” 길을 따라 걸어가면서 다이엔이 물었다.

“그럼 뭐라고 그래? 어쨌든 C가 평균이잖아.”

“C가 평균이지. C 마이너스가 아니야.” 다이엔이 자기 엄마 말투를 하며

말했다.

“우리 엄마랑 지내 봐야 해.” 내가 말했다. “평균 가지고는 안돼. 엄마는 대학에 못 가셨어. 그래서 내가 대학에 갈 계획을 다 짜 놓으셨어.”

앞에 가는 샤론을 봤다. 샤론을 따라 잡으려고 뛰어갔다.

학교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엘시에게 오늘 다이엔 집에 공부하러 갈 거라고 말했다. 엘시와 나는 샤론과 다이앤이 우리가 하는 말을 듣지 못하게 뒤에 쳐져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다이앤 엄마는 엘시가 도와주는 데 대해 돈을 많이 주지는 못한다고 엘시에게 설명했다. 다이앤 엄마는 다이앤이 다른 애들이 하는 만큼 다 해주고 싶어 하시지만 항상 돈이 있는 건 아니야. 그 대신에 다이앤 엄마는 여기 저기 우리에게 차를 태워 주시고 부탁을 많이 들어주셔. 너한테 돈을 줄 수는 없을 거야.“ 내가 설명했다. “하지만 아마도 너한테 뭔가 다른 걸 해주실 거야.”

“돈은 상관없어.” 엘시가 대답했다. “하지만 다이앤은 날 싫어하지 않니?”

“개는 이제 널 싫어하는 것 같지 않아.” 내가 말했다. “다이앤은 샤론처럼 오랫동안 화가 난 채 있지는 않아. 다이앤은 단지 약간 대장행세를 하는 편이야.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그러는 건 개네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하고만 지내왔기 때문이라고 하셔. 하지만 그 이전에도 다이앤은 그랬어.”

다이엔 집에 들어갔을 때 나는 엘시가 여전히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왜냐하면 엘시는 자기 코트를 뒤집은 채 걸어 놓았기 때문이다. 다이앤이 부엌으로 갔다. 나는 엘시의 팔을 잡아끌며 따라갔다. 다이앤이 오렌지 주스 잔을 우리에게 갖다 주는 동안 식탁에 앉아 있었다.

우리는 주스를 조금씩 마셨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결국 내가 책을 폈다. “시작하자. 한 시간 후에 집에 가야 해.”

“나도 그래.” 엘시가 말하며 책을 폈다.

다이앤이 자기 책을 천천히 폈다. 다이앤은 공부할 마음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다이앤이 기분이 좋았으면 싶었다.

“각자 첫 번째 문제를 풀어보고 답을 맞춰 보자.” 내가 제안했다.

다이앤이 어깨를 으쓱하더니 문제를 풀기 시작했다. 엘시는 2초 만에 다 풀고 앉아서 우리가 끝내기를 기다렸다. 엘시와 내가 푼 답이 같았다. 다이앤은 다른 답이었다. 엘시는 몸을 기울여 다이앤이 푼 것을 봤다.

“첫 번째 분수 말고 두 번째 분수의 분자와 분모를 위 아래로 바꾸면 맞게 될 거야.” 엘시가 말했다.

다이앤은 다시 문제를 풀었다. 눈썹을 치켜 올리며 자기 답지를 우리에게 내밀었는데 새로 푼 답은 우리와 똑 같았다. “넌 정말 머리 좋다.” 다이앤이 엘시에게 말했다.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일 경우에만.” 엘시가 사무적인 말투로 대답했다.

우리는 같은 방법으로 그 페이지에 있는 나머지 문제를 풀었다. 끝나 갈 무렵 다이앤은 우리를 따라 잡아서 모두 같은 답이 나왔다. 공부가 끝났을 때 다이앤은 기분이 좋았다.

“금요일 밤 내가 여는 밤샘파티에 올 수 있니?” 다이앤이 엘시에게 물었다.

“아마도.” 엘시가 말했다. “엄마한테 물어 봐야 해. 아마 엄마는 니네 엄마한테 전화 하실 거야.”

“무슨 감찰을 받는 거야?” 다이앤이 물었다.

엘시가 어깨를 으쓱했다. “비슷해.”

다이앤 엄마가 집에 오셔서 엘시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하셨다. 다이앤의 엄마는 직접 에드워즈 아줌마한테 전화 걸어야겠다고 하시고는 전화 하셨다. 전화는 부엌에 있었다. 우리는 같이 앉아서 들었다.

다이앤 엄마 역시 “애들이 즐기려고 먹어야 할 필요는 없어요.” 라는 말을 여러 번 되풀이 하는 것 말고는 대부분 듣기만 하셨다. 다이앤 엄마가 수화기를 내려놓고 긴 한숨을 내 쉬었다.

“그래서? 엘시는 올 수 있는 거예요?” 다이앤이 물었다.

“그래, 하지만 엘시는 저녁 식사 끝난 후에 와서 아침식사 전에 집에 가야 한대.”

“별거 아니네.” 다이앤이 말했다. “우린 정오까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다이앤이 연 밤샘파티에는 여섯 명이 있었다. 샤론, 엘시, 다이앤의 사촌 둘과 나. 다이앤의 어린 사촌은 3학년 이라 다소 따로 놀았다. 나이 많은 사촌은 중학교 2학년이었다. 그 사촌 언니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온통 남자 애들에 대한 말 뿐이었는데 약간 지루했다. 다이앤은 자기에게 소형 오토바이를 태워준 존, 그리고 기타를 연주했는데 정말 멋있었던 에드에 대한 얘기를 했다. 그 다음에 영어 과제를 도와줬던 귀여운 데이비드에 대해 말할 때 다이앤은 지갑에 립스틱이 있는지 사촌언니에게 물었다. 다이앤의 사촌언니는 립스틱, 마스크라, 눈썹 그리는 펜, 속눈썹 올리는 집게와 아이 쉐도우를 갖고 있었다. 신났다! 다이앤 엄마가 주스와 팝콘을 들고 오셔서 는 우리가 리볼리에 나오는 진한 화장을 한 댄서처럼 보인다고 하셨다.

다이앤 엄마가 나가시고 우리는 실내복으로 갈아입었다. 엘시 실내복은 목둘레에 주름이 잡힌 자주색이었다. 내 방에는 윗부분은 주름이 잡혀 있고 비스듬하게 밖으로 퍼지다가 아래 부분에 주름이 잡힌 램프 갓이 있다. 엘시가 꼭 그 램프 갓 덮개처럼 퍼져 보였다. 하지만 그렇게 보인다는 말을 하면 안 될 것이다.

다이앤 엄마가 우리 다섯 명에게는 포도 주스를 주시고 엘시에게는 쓰고 신맛이 나는 자몽 주스를 주셨다. 주스 잔을 들고 바닥에 둥글게 둘러앉았다. 다이앤이 팝콘을 돌렸다. 엘시는 조금도 먹지 않았다.

“배고프지 않니?” 다이앤이 엘시에게 물었다.

“이젠 배가 그렇게 고프지는 않아.” 엘시가 말했다. “처음에는 배고왔는데, 처음에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거라고는 먹는 것뿐이었어. 꿈도 온통 먹는 꿈만 꿔. 심지어 어느 날 밤엔가는 방에서 내가 풀까지 먹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했었어.

“맨 처음에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살찌게 된 거예요?” 다이앤의 어린 사촌이 물었다.

“글쎄, 항상 통통했었어.” 엘시는 자기 얘기를 시작했다. “엄마도 그랬어. 아빠는 우리 엉덩이를 꼬집으며 자기의 귀여운 작은 버터 불이라고 말씀하

시곤 하셨어. 그런데 아빠와 엄마가 다투기 시작했어. 아빠, 엄마가 말다툼 하시게 되면 아빠는 문을 쾅 하고 닫으시고 집을 나가셨어. 그리고 나면 엄마는 나에게 소리 지르곤 하셨어. 아빠 엄마가 싸우는 소릴 들으면 엄마가 나한테 소리 지를 일이 없도록 침대로 들어가 버리곤 하게 됐어.” 엘시가 말을 멈추고 주스를 조금 마셨다.

“음, 계속 해 줘요.” 다이앤의 사촌동생이 성급하게 말했다. “어떻게 똥똥하게 됐어요?”

“그냥 조금씩 조금 씩. 아빠가 빗나가기 시작하셨어. 여동생이 겨우 두 살 때라 엄마는 동생 돌보느라 바빴어. 나한테는 어느 누구도 신경 쓰는 사람이 없었어. 내가 엄마 주변에서 보채면 엄마는 가서 쿠키를 갖다 먹으라고 하시곤 했어. 나는 슬퍼질 때마다 매번 그렇게 했는데 부엌으로 가서 쿠키나 그레이험크래커를 내려놓고 먹었어. 좀 지나니까 온 종일 먹어 대고 있었어. 그것 말고는 할 일이 없었어.”

“아빠가 오셔서 여기 저기 데리고 다니지 않았어?” 다이앤의 사촌언니가 물었다.

“우리 엄마 아빠도 이혼하셨는데 아빠는 2주에 한 번씩 우리를 데리고 가서.”

“우리 아빠도 처음에는 그러셨어. 그런데 크게 싸우고 나서 엄마가 판사한테 내 동생과 나를 달라고 하셨어. 그 후로는 아빠는 단 몇 번만 오셨어. 나는 전화에 대고 울어댔어. 학교에서 애들이 나를 놀려대기 시작한 것이 그때였어. 아빠는 일요일에 날 보러 오신다고 하셨어. 아빠는 한 여자와 같이 왔어. 그 여자랑 아빠가 나를 데리고 나가 외식했어. 내가 음식을 게걸스럽게 먹어대는 동안 그 여자가 나를 뚫어지게 봤던 기억이 나. 아빠가 나를 집으로 데려다 줄 때, 다음 일요일에 대해 뭐라고 말하기 시작했지만 그 여자가 머리를 옆으로 흔드는 것을 본 것 같아. 그 후로는 아빠를 본 적이 없어.”

“엄마가 못 먹게 말리지 않았어?” 샤론이 물었다.

“엄마도 말리려고 애썼어. 하지만 그땐 이미 늦어 버렸어. 엄마는 다이어

트를 계속하면서 나한테도 다이어트를 시켰어. 하지만 나는 먹을 것을 몰래 꺼내거나 훔쳐서 먹곤 했어. 엄마는 점점 날씬해지는데 난 왜 점점 살찌는지 이해할 수 없어 하셨어. 4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엄마한테 전화했을 때야 알게 됐어.”

“화 내셨어요?” 다이앤의 사촌동생이 물었다.

엘시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는 엄청 화 내셨어.”

팝콘그릇이 바닥이 났다. 다이앤이 방문 쪽으로 가서 자기 엄마한테 소리 쳤다. 다이앤의 엄마가 올라 오셔서 우리 옷이 쌓여 있는 것을 둘러 보셨다. 엘시의 블라우스와 바지를 집어 들고 흔들어 폈다. “다이앤, 이걸 좀 걸어 놓지?”

“그렇게 뒤도 문제없는데요.” 다이앤이 자기 엄마에게 말했다. “여기 그릇 가져가세요.”

다이앤 엄마는 엘시 바지를 자세히 보셨다. “이 핀들은 다 뭐니?”

“제 거예요.” 엘시가 바닥에서 일어서 가며 말했다. “바지에 핀을 꽂지 않으면 흘러 내려서요. 제가 걸을게요.”

“아냐, 내가 가져가서 재봉틀로 꿰매야겠다. 잠깐이면 될 거다.”

엘시가 자기 옷을 잡으려고 손을 내밀었다. “아니예요, 괜찮아요. 핀으로 해도 돼요.”

다이앤 엄마가 손을 들어 올렸다. “더 보기 좋게 꿰매어 질 거다.” 다이앤 엄마는 엘시의 바지를 들고 문으로 가셨다.

“여기요.” 다이앤이 따라갔다. “그릇 가져가세요.”

다이앤 엄마는 그릇과 바지를 들고 아래층으로 내려가셨다.

엘시는 바닥에 앉아서 자기의 잠옷 상자를 열었다. “모두한테 줄게 있어.” 엘시가 말했다. 엘시는 자기의 깨끗한 속바지와 양말을 꺼내어 바닥에 놓았다. 상자 속 바닥에 여섯 개의 자그마한 벨벳 주머니가 있었다. 엘시는 방을 돌아다니며 우리 각자에게 하나씩 나누어 줬다.

다이앤 사촌언니가 자기가 받은 작은 주머니를 코에 갖다 댔다. “라벤다

네. 맛있는 냄새가 나.”

나는 내가 받은 것을 맡아봤다. 라벤다였다. 주머니는 노란 꽃이 그려진 갈색이었다. 길고 노란 리본으로 매듭지어져 있었다. 샤론 거는 핑크 색 꽃이 그려지고 핑크 리본이 매어진 푸른색이었다. 내 것이 제일 예쁘다고 생각했다. 그래도 샤론은 자기가 받은 주머니를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았다. 샤론은 선물 받는 걸 좋아하는 정말로 욕심꾸러기인데 벨벳 천을 계속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리며 그 작은 주머니를 뺨에 대고 비벼댔다.

갑자기 샤론은 벌떡 일어서서 엘시가 앉아있는 데로 가서 아래로 손을 뻗어 엘시를 꺼안았다. “고마워, 엘시. 우리가 네 생일날 파티를 크게 열어 줄게.”

엘시는 천천히 자기 바지와 양말을 잠옷상자 속 마지막 남은 주머니 위에 집어넣으면서 머리를 숙였다. “다음 생일에는 여기 없을 거야.”

“왜?” 다이앤의 사촌 여동생이 물었다.

“기숙사 학교에 있을 거야.”

샤론이 손을 허리에 대고 서서 엘시를 내려다 봤다.

“왜? 우리 학교가 싫어?”

“난 학교가 좋은데 교장선생님이 나를 싫어하셔.”

“아, 더글라스 교장선생님.” 샤론이 비웃으며 엘시 옆에 앉았다. “교장선생님은 맨날 엄하게 구셔. 그렇지만 너를 벌주고 나면 잊어버리셔.”

엘시가 머리를 가로 저었다. “엄마는 잊어버리지 않을 거야.”

“맞아, 그럴 거야.” 다이앤이 단호히 말했다.

“잊지 않을 거야, 내가 다른 학교에 있을 때도 도둑질 했거든.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는데 그걸 망쳐버렸어.”

“엄마는 언니를 항상 야단 치셔?” 다이앤의 사촌동생이 물었다.

“예전에는 나한테 정말 잘해 주셨어. 그땐 아빠가 빗나가기 시작하기 전이었어.” 엘시는 꿈꾸는 것 같은 표정을 했다. “우리 엄마도 바느질을 잘하는데 내 옷을 전부 엄마랑 똑 같이 만들어 주셨어. 엄마는 누구에게나 내가 자기

를 쪽 빼 닦았다고 말했어. 하지만 그 후 아빠가 집을 나갔고 엄마는 점점 날씬해지는데 나는 점점 더 뚱뚱해져서 엄마는 더 이상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 지금은 내가 뭐라고 불평하면 아빠랑 똑 같다고 하셔. 엄마가 나한테 소리 지를 때는 입지만 엄마가 우는걸 보면 슬픈 생각이 들어.”

샤론이 성급하게 서성거렸다. 샤론은 사람들이 기분이 어떤지는 관심이 없다. “엘시, 어느 기숙학교로 갈거니?”

“모르겠어.” 엘시가 어깨를 으쓱했다. “엄마는 벌써 학교 세 군데서 안내 책자를 받으셨어.”

네가 할 일은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정말로 뭐든지 열심히 해야만 하겠다. 다이앤이 대장 같은 말투로 설명했다. “엄마를 기쁘게 하기 위해 그저 시키지 않아도 설거지도 하고 쓰레기나 잡동사니를 치우는 거야. 6월쯤 되면 넌 네 엄마랑 사이가 아주 좋아 질 거야.”

다이앤은 스스로 만족해하는 것 같았다. 그렇게 하면 대부분의 엄마들한테는 효과가 있지만 에드워드 아줌마한테는 어떨지 모르겠다. 엘시도 확실하게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엘시는 완전히 기운이 쳐져서 그냥 앉아 있었다. 내가 급히 엘시에게 그 작은 주머니들이 어디서 생겼는지 물어 봤다.

엘시는 자기의 작년 담임선생님이 크리스마스 선물용으로 작은 주머니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줬다고 했다. 엘시는 라벤다 꽃을 따서 여름에 말렸다. 가정교사해서 받은 돈으로 자기가 흠친 돈을 갖고 나서는 벨벳 천을 샀다. 제일 예쁜 천을 사려고 직물 가게에 있는 자투리 더미를 얼마나 만지작거렸는지 말해 줬다. “우리 엄마는 정원에 라벤더를 기르셨어. 나는 속으로 그걸 따서 여름에 말리면 나눠줄 예쁜 선물이 생기겠다고 생각했어.”

우리는 두시 반까지 자지 않았다. 다이앤의 사촌 여동생이 썰렁한 귀신애기를 했다. 그리고 나서 사촌 언니가 무서운 귀신애기를 해 줬다. 우린 침낭 속으로 들어가서 불을 켜다. 샤론이 다시 불을 켜으면 했다. 다이앤이 말렸다. 잠에 빠져 들면서 아빠와 같은 갈색 머리와 눈을 하고 있어서 좋았다.

아빠는 내가 똥똥해져도 걱정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다이앤 엄마가 열시에 우리를 깨웠다. 엘시 엄마가 전화해서 당장 오라고 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그냥 침낭 속에 있는 채로 엘시가 옷 입는 것을 봤다. 엘시 바지가 핀으로 주름 잡히게 꼳혀 있지 않아서 좋아 보였다.

근데 엘시 엄마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 모두 부엌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엘시 엄마가 전화했다.

엘시 엄마가 다이앤 엄마한테 소리 지르는 걸 들을 수 있었는데 다이앤 엄마는 귀에서 수화기를 멀리 떼어 들고 계셨다. “내가 우리 애 옷을 고쳐야겠다 싶으면 제가 직접 손질해 줄 거예요!”

“정말 그러시면 좋겠네요!” 다이앤 엄마가 쏘아부쳤다. “딸한테 신경 써야 할 때잖아요!” 다이앤 엄마가 전화를 광 하고 내려놓았다. 다이앤과 엄마는 참 많이 닳았다.

아빠는 집안 일을 도와주지 않아요

엘시가 초록색 코듀로이 새 점퍼를 입고 월요일 학교에 왔다. 새 샌들도 신었다. 발등을 덮는 샌들이었다. 엘시 엄마가 너무 화가 나서 엘시가 더 이상 가정교사를 하지 못하게 됐는지 궁금했다. 그렇게 하시지는 않은 것 같았다. 엘시는 다이엔 집이나 우리 집에서 금요일만 빼고 매일 수업 끝나고 우리를 가르쳐 줬다.

우리 엄마는 금요일과 토요일에 에버블룸 종묘장에서 일하게 되었다. 나는 금요일에는 이웃집에서 케니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돌봐야 했다. 엄마가 나한테 수고비를 준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괜찮았다. 아빠는 걱정스러워 했다. 아빠는 누가 저녁을 하게 될지 물었다. 엄마는 목요일에 냄비요리를 넉넉히 해서 내가 금요일 저녁때 오븐에 넣으면 될 거라고 하셨다.

“토요일은 어떻게 되는데?” 아빠가 물었다.

“아, 당신이 뭐든 드시고 싶은 것을 사다가 당신과 제니가 요리해 먹을 수 있어요.”

“쉬는 날에도 내가 마루를 닦아 주길 바라는 거야?”

“그러면 좋겠는데요.” 엄마가 웃었다.

아빠는 웃지 않았다. “볼링은 어떻게 하지?”

“아침에 시장 가서 볼링 끝나고 저녁 준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는 덧붙이셨다. “우리 차를 그리 오래 쓰지 못할 거 같아요.”

아빠가 쳐다봤다. “그건 무슨 뜻이야?”

“내 말은 내가 일하지 않으면 새 차를 살수 없다는 뜻이에요.” 엄마가 케니한테 하는 말투로 말했다.

“무지 고맙군.” 아빠가 일어나서 식탁을 떠났다.

“아빠가 요리하는 걸 싫어하나 봐요.” 엄마한테 말했다.

엄마 입이 옆으로 일자로 길게 늘어졌다. “아빠는 배워야 할 거야.” 엄마가 말했다.

금요일에 나는 마카로니와 치즈 냄비요리를 오븐에 넣었다. 케니는 수저, 나이프, 포크를 식탁에 아주 엉망으로 올려놓았다. 식탁이 너무 비어 있는 것 같아서 콩 통조림으로 만든 음식을 더 갖다 놓았다. 우리는 디저트로 오레오 쿠키를 먹었다.

엄마가 집에 오셔서 저녁식사를 즐겁게 하셨다고 했다. 엄마는 몹시 지쳐 보였다. 잠자리에서 엄마는 나를 좀 더 오래 껴안아 주시며 고맙다고 하셨다.

토요일 아침 내가 일어났을 때는 엄마는 안계셨다. 쇼핑할 것에 대해 아빠가 말씀하시길 기다리며 서성댔다. 아빠는 아무 말씀 안 하셨다. 디디와 노는데 싫증이 나서 결국은 내가 다이앤 집으로 가도 되는지 아빠께 물었다. 선선히 승낙하시고 케니를 같이 데리고 가라고 했다.

“다이앤 집에서 케니랑 뭘 하라구요?” 내가 물었다.

“그럼, 내가 집에서 케니랑 뭘 하겠니?” 아빠가 되물었다.

나는 케니를 질질 끌고 다이앤 집으로 갔다. 다이앤은 좋아하지 않았다.

아빠는 다섯 시쯤에 돌아오셨다. 신문을 들고 아빠의 큰 의자에 앉으셨다. 여섯시에 케니가 칭얼대기 시작했다.

“저녁 먹어야 하지 않아요?” 아빠께 물었다.

신문을 접으시고 시계를 보셨다. “엄마가 금방 오실 거야.”

“아니예요, 금방 오지 않을 거예요.” 아빠에게 말했다. “아빠가 볼링 치실 때 전화하셔서 회사에서 장미 세일을 하고 있어서 일곱 시쯤 되어야 집에 오실 거라고 하셨어요.”

“아, 그럼...” 아빠는 신문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가서 찬장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셨다. 치즈, 마요네즈, 겨자와 버터를 조리대 위에 쌓아놓았다. 아빠는 치즈를 잘게 썰었고 나는 샌드위치를 구웠고 케니는 식탁을 차렸다.

우리가 식사하고 있는데 엄마가 오셨다. 옷을 벗는 동안 내가 새로 구워 뜨거운 샌드위치를 엄마에게 만들어 드렸다. 엄마는 지친 표정으로 웃으셨다.

다음 토요일에 엄마 아빠가 곁에 안 계신 채 오후 내내 지내야 한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아빠는 볼링 치러 가지자마자 나는 거실 바닥 위에 한 뭉치의 신문을 펼쳤다. 지하실로 내려가 나무 조각 몇 개, 아빠의 망치와 못을 찾아 위층으로 갖고 왔다. 신문지 위에 그 잡동사니를 툇씩 내려놓고 케니에게 시작하라고 했다. 내가 아는 친구들마다 다 전화하는 동안 케니는 한 시간 십오 분 동안 즐겁게 계속 철썩 철썩 내려쳤다.

우리는 저녁으로 다시 치즈 샌드위치를 구웠다. 다음 토요일에는 엘시가 나한테 전화했다. 엘시는 그 날 여동생과 같이 꿈쩍 못하고 있었다. 내가 케니랑 같이 꿈쩍없이 집에 있어야 하니까 엘시한테 집으로 오라고 했다. 다이앤과 샤론에게도 전화해서 집으로 오라고 했다.

처음에 우리는 집에 있는 음료수를 바닥냈다. 그런 다음 엄마 방으로 가서 엄마 귀고리를 하고 신발을 신어 봤다.

다이앤이 엄마 침대 위에 벌렁 드러 누었다. “집에 그냥 있으니까 심심하다.”

엘시가 거울에서 떨어지며 몸을 돌렸다. 엄마의 호박 색 귀고리가 통통한 목을 따라 달랑거렸다. “쇼핑센터에서 축제가 열리는데.” 엘시가 말했다.

샤론이 엄마의 굵 높은 샌들의 버클을 끌었다. “난 돈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있어.” 엘시가 샤론에게 말했다. “이번 주 가정교사해서 번 돈을 다 모아 놓았어. 그걸 나눠 줄게.”

다이앤이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대단하다! 가자.”

축제하는 데로 떠나기 전에 케니를 꼭 화장실에 갔다 오게 했다. 내가 가지 않았다면 불쌍한 엘시는 더 넉넉하게 지냈을 텐데. 아마도 우린 도로 돌아 올 수도 있었다. 하지만 우린 돌아오지 않았다.

지나가는 자동차 잡아탄 아이들

우린 쇼핑센터 쪽으로 처음 여섯 블록을 따라 가면서 엘시와 같이 노래 불렀다. 엘시의 여동생, 로빈은 새로 산 빨간 지갑 고리를 잡고 흔들면서 우리 앞에 가며 춤을 췄다. 사월 말이었고 하늘에는 유난히 구름 한 점 없었다. 우린 일곱 번째 블록을 지나갔다. 여덟 번째 블록을 늘쩍늘쩍 걸어갔다. 나는 내 스웨터와 케니 스웨터를 들고 있었다. 머지않아 내가 케니를 업고 가야 할 것 같았다. 우리는 점점 더 천천히 갔다.

바닥이 평평한 트럭이 길에 나타났다. 다이앤이 차도끼로 폴짝 뛰어 가서 자기 엄지손가락을 내밀었다. 엘시가 “안돼, 다이앤.” 이라고 소리치며 다이앤 뒤를 따라 갔다.

트럭이 와 멈췄다. 운전사가 운전 석 밖으로 몸을 내밀었다. “너희 어디로 가니?” 그 사람은 번들거리는 얼굴빛에 백발이 성성한 사람이었다.

엘시가 뒷걸음쳤다.

“우린 린우드 쇼핑센터로 가고 있어요.” 다이앤이 대답했다.

나도 거기가 목적지인데.” 그 아저씨가 말했다. “뒤에 타거라.”

엘시와 엘시 동생을 빼고 우린 모두 평평한 바닥위로 기어올랐다. 엘시는 자기 동생의 소매 자락을 확 잡아 당겼다. “걸어가자.”

여동생이 획 뿌리쳤다. “건느라 지쳤어.” 여동생이 트럭에 올라탔다. 엘시는 여전히 뒤에 매달려 있었다.

“올라 타, 똥보아가씨. 아니면 차도에서 비켜서. 운전사가 소리 질렀다.

다이앤이 손을 내밀었다. “이리 와, 엘시. 우리가 도와줄게.”

마지막해 엘시가 힘겹게 올라타고 우리와 같이 쭈그리고 앉았다.

트럭이 거리를 따라 무거운 듯이 움직이자 다이앤이 엘시에게 말했다. “봐, 걷는 것 보다 이게 훨씬 좋지 않아?”

엘시는 트럭 가장자리에 위에 있는 널빤지를 붙잡았다. 지나는 차를 얻어 타고 가는 애들에게 나쁜 일이 생길 수 있는데.”

“난 나이든 아저씨 보다 빨리 달릴 수 있어.” 엘시 여동생이 말했다. 여동생은 자기 지갑을 트럭 바닥에 내버려 두고 트럭 가로대위에 기대어 서 있었다.

“5분 후면 거기 도착할 거야.” 다이앤이 말했다. “걸어서는 한 시간이 걸릴 거야.”

5분이 지났다. 10분이 지나자 엘시의 얼굴이 걱정스럽게 움츠러들었다. 나는 건물들이 획 움직여 가는 것을 봤다. 우리는 쇼핑센터 근처 어디에도 와 있지 않았다. 겁쟁이처럼 보이기 싫었지만 속이 좋지 않았다. “시간이 오래 걸리네.” 내가 말했다.

샤론은 널빤지 사이로 거리를 내다 봤다. 우린 제대로 가고 있지도 않아. 아저씨는 먼저 심부름을 가는 건지도 몰라. 다이앤이 샤론을 안심시켰다. “쇼핑센터가 목적지라고 아저씨가 말했잖아.”

트럭은 덜컹거리며 계속 갔다. 전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아저씨한테 세워달라고 하는 게 좋겠어, 다이앤.” 샤론이 말했다.

“걱정 마. 아저씨는 세워 줄 거야.” 다이앤이 대답했다.

엘시는 운전 석 뒤쪽으로 조금씩 다가가서 유리창 문을 툭툭 두드렸다. 트럭은 계속 갔다.

“다이앤, 무서워.” 샤론이 울기 시작했다.

“애기처럼 굴지 마.” 다이앤이 말했다. 하지만 나는 다이앤이 손가락을 입 안에 넣어 아랫니를 잡아당기고 있는 것을 봤다.

엘시는 운전 석 뒤 유리창문을 좀 더 두드렸다. 효과가 없었다. 엘시는 우리한테로 다시 돌아왔다. “뛰어 내리는 게 낫겠어.”

“미쳤니?” 다이앤이 비난했다. “다리가 부러질 거야.”

엘시 다리가 부러지지는 않을 거라고 나는 생각했다. 펄쩍 뛰어내려 구르겠지. 나는 속으로 킬킬댔다.

“웃을 일이 아니야, 제니.” 샤론이 말했다. “집에 어떻게 갈거니?”

케니가 내 무릎에 앉은 채 몸을 뒤로 틀고 손을 들어 내 양쪽 뺨에 대었

다. “케니 누나, 어떻게 집에 가지?”

“몰라, 케니. 어떻게 집에 가지, 다이앤?” 내가 물었다.

다이앤은 대답이 없었다. 다이앤의 눈동자가 양 옆으로 왔다 갔다 했다. 다이앤은 겁에 질렸다. 겁내지 않는 사람은 엘시 여동생뿐이었다. 엘시 동생은 여전히 트럭 난간에 기대어 지나가는 차를 보며 손을 흔들었다. 나는 거리의 표지판을 흘끗 봤다. 표지판 숫자는 백 단위였다. 집들이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었다. 우리는 시내를 벗어났다. 나는 무서워서 벌벌 떨었다.

우리는 말없이 움직이지도 않은 채 꼭두각시 인형처럼 그냥 앉아 있었다. 케니는 내 무릎에 쪼그리고 앉아 엄마를 찾으며 칭얼댔다. 나는 속으로도 망칠 방법을 궁리했다. 우리가 지나가는 차를 향해 신호를 보내면 그 차 운전사는 엘시 여동생처럼 우리가 붙임성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저 손을 흔들어 주기만 할 것이다. 우린 지나가는 경찰차를 한 대도 못 봤다. 트럭은 너무 빨리 달려서 뛰어 내릴 수 없었다. 어떻게 하면 되지? 이제는 주택가 불빛도 보이지 않았다. 나무들이 지나가고 있었다. 샤론은 계속 울면서 몸을 앞뒤로 흔들어 대며 내 다리를 쳤다. 내 무릎에 있는 케니때문에 나는 감히 울지도 못했다.

“빨간 불을 기다렸다가 뛰어내려야겠어.” 엘시가 말했다.

“뭐라고?” 다이앤이 바보처럼 말했다. “빨간 불이 뭐야?”

“이 동네는 빨간 신호등이 하나도 없어.” 샤론이 우는 소리로 말했다.

“있을 거야.” 엘시가 말했다. “고속도로나 교차로에는 있을 거야. 내가 앞을 지켜볼게. 뛰어 내릴 준비하고 가장자리 쪽에 타고 있어.”

샤론, 다이앤, 케니와 나는 트럭 뒤쪽으로 기어가서 가장 자리에 앉아 다리를 내려놓고 있었다. 엘시는 널빤지를 짚고 몸을 일으켜 여동생 옆에 섰다. 엘시는 로빈을 우리와 같이 앉도록 하려고 했지만 로빈이 고집을 부렸다. 엘시는 포기하고 신호등을 보려고 가로 댄 널빤지 위로 머리를 내밀었다.

나는 케니가 재미있으라고 내 발을 트럭 번호판 위에 탕탕 부딪쳐 소리

내면서 케니손을 꼭 잡았다. 이따금 한 번씩 엘시를 돌아 봤다. 엘시는 줄곧 앞을 보고 있었다. 해가 나무 뒤로 넘어가자, 케니가 춥다고 투덜댔다. 나는 내 스웨터를 입고 케니도 자기 스웨터를 입게 도와 줬다.

“신호등이다! 신호등이야!” 엘시가 소리쳤다. “준비해!”

트럭이 속도를 줄였다. 나는 트럭이 멈추기 전에 뛰어 내렸다. 트럭 뒤에 오던 차가 날카롭게 짜~~익 소리를 내며 멈췄다. 운전사가 창문 밖으로 야단쳤다. “니네 꼬맹이들이 뭘 하려는 거니?”

그 사람을 무시하고 케니를 밖으로 들어냈다. 샤론과 다이앤도 뛰어 내렸다. 엘시가 동생을 뒤에서 끌어당기면서 마지막으로 내렸다. 로빈이 “내 지갑! 내 지갑!” 하며 소리를 질렀다.

“지갑은 잊어버려.” 엘시가 동생에게 말했다. “이리와!”

하지만 로빈은 지갑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았다. 동생은 엘시를 뿌리치고 빠져나가 트럭 위로 다시 기어올랐다. 엘시도 동생을 붙잡으려고 올라가려고 애썼다. 트럭이 급히 앞쪽으로 기울며 움직이는 걸 보니 신호가 바뀌었고 엘시가 길바닥으로 떨어졌다.

우리 뒤편에 운전사가 경적을 울리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우리는 급히 차도 밖으로 나왔다. 트럭은 뒤쪽에 엘시 여동생을 태운 채 계속 갔다. 우리는 길옆에 떼 지어 몰려서서 트럭이 멀어지는 것을 지켜봤다.

이탈자

“누나, 누나.” 케니가 내 스웨터를 잡아 당겼다. “여기가 어디야, 누나?” “모르겠어.” 케니에게 말했다. 근처에는 집이 하나도 없었다. 길 건너에 낡은 차고가 있었고 우리가 서있는 쪽 길모퉁이에 선술집이 하나 있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게 좋겠어.” 다이앤이 말했다.

케니의 손을 잡고 그 선술집으로 갔다. 다이앤과 샤톤은 나와 같이 걸어갔다. 엘시는 우리 뒤에서 비틀거리며 걸어왔다. 선술집 안은 어두웠다. 시큼한 냄새가 났다. 카운터 뒤에 흰 앞치마를 두른 아저씨가 보였다. 등받이 없는 의자에 앉아 있는 또 다른 아저씨가 몸을 돌려 우리를 쳐다봤다.

“애들은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 앞치마를 두른 아저씨가 말했다.

다이앤이 우리 뒤에 서서 떨고 있는 엘시를 손으로 가리켰다. “저 애의 여동생이 유괴되었어요. 우린 경찰에 전화해야 해요.”

“누가 여동생을 납치했는데?” 아저씨가 물었다.

“트럭 운전자요.” 다이앤이 대답했다.

“트럭 운전자?”

“네, 있잖아요... ” 다이앤이 카운터로 다가갔다. 우리는 뒤쪽 문가에서 서성대고 있었다. 우리가 차를 얻어 타려고 손을 들었더니 트럭을 탄 아저씨가 태워 줬어요. 그 아저씨가 이상한 길로 가기만 해서 우린 트럭에서 뛰어 내렸는데 재 여동생은 내리지를 못했어요.

“너희는 어디에서 왔니?” 아저씨가 물었다.

“우린 브라이어에 살아요.”

“브라이어라고! 어디로 가는 길이었니?”

“린우드 쇼핑센터요.”

“너희는 이미 그 지역을 지나쳤어.”

“알아요. 트럭 운전사가 이상한 데로 갔는데 그 아저씨가 아직도 재 여동생을 태우고 있어요.” 다이앤이 다시 엘시를 가리켰다.

“저쪽 칸막이 된 자리에 가서 앉아 있거라. 경찰을 데리고 오겠다.”

우리는 칸막이 안의 나무 의자로 살금살금 가서 앉았다. 엘시는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구석에 앉았다. 얼굴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경찰이 동생을 데리고 올거야, 엘시.” 내가 말했다.

엘시는 머리를 흔들었다.

“분명히 데려 올거야.” 샤론이 끼어들었다. 샤론은 좀 더 용감해 진 것 같았다.

“설사 경찰이 데려다 준다고 해도 엄마는 나를 용서 안할 거야.”

“그건 네 잘못이 아니라 네 동생이 멍청한 거야.” 다이앤이 말했다. 넌 동생을 내리게 하려고 했잖아.“

엘시는 쇠 걸이에서 휴지를 빼내어 코를 풀었다. “그건 문제가 아니야. 엄마는 나를 지금 이대로 가만 두지는 않을 거야.”

“네 엄마는 널 남에게 맡기지는 않을 거야.” 내가 말했다.

“엄마는 나를 기숙학교로 보내서 절대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할거야.”

“넌 그 정도로 나쁜 애가 아냐.” 내가 말했다.

엘시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아니, 난 나쁜 애야!” 엘시는 탁자 위에 머리를 숙이고 흐느꼈다.

난 엘시가 너무 안쓰러웠지만 어떻게 기분을 달래줘야 할지 몰랐다. 그냥 앉아서 어찌할 도리 없이 엘시의 등만 토닥거렸다.

잠시 후에 키가 큰 경찰관이 선술집 문을 밀쳐서 열었다. 앞치마를 두른 아저씨를 쳐다봤다. 그 아저씨는 맥주를 따르며 우리를 향해 고개를 끄덕거렸다. 경찰관이 우리가 있는 칸막이자리로 걸어왔다. “누가 여동생을 잃어버렸니?”

“애가요.” 다이앤이 엘시를 가리켰다. “우리가 차를 얻어 타려고.. ”

“너희는 차를 얻어 타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만한 나이 같은데.”

그 말은 다이앤을 잠깐 동안 당황하게 했다. 다이앤은 숨을 크게 들이쉬고 우리의 일을 계속 말했다. 케니는 다이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케니는 경

찰관 아저씨가 허리에 찬 큰 권총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다.

다이앤이 말을 마치자 그 경찰관은 엘시 동생이 몇 살이냐고 물었다.

엘시가 눈물진 얼굴을 들었다. “제 동생은 일곱 살이에요.” 엘시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경찰관은 엘시 여동생이 어떻게 생겼는지, 트럭 운전사는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차를 몰고 있었는지 그리고 차량 번호는 몇 번인지를 물었다. 내가 차 번호판을 발로 찼다는 것은 생각났지만 번호판을 볼 생각은 하지 못했다.

경찰관은 수첩을 덮었다. “너희들 여기서 기다리거라. 내가 곧 데리러 올게.” 경찰관 아저씨는 선술집 문을 열어 놓은 채 밖으로 나갔다. 우리는 그가 경찰차 무전기에 대고 동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 일곱 살 난 여자 애, 금발이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경찰관이 돌아 와서 우리를 경찰서까지 순찰차로 태워 다 줄 거라고 했다. 우리 부모님들이 거기서 우리를 데려갈 수 있을 거라고 했다. 우린 순찰차 뒤 자리에서 말없이 앉아 있었다. 케니가 화장실이 급하다고 속삭였다. 나는 좀 기다려야 한다고 소곤거렸다.

경찰서 안에서 그 경찰관은 우리를 카운터 앞에 세워 놓은 채 “출입 금지”라고 써있는 문으로 사라졌다.

케니가 내 옆에 서서 몸을 꼬았다. 나는 카운터 뒤편 책상에 앉아 있는 경찰복을 입은 여자들 중 한 사람에게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물어봤다. 그 여자 경찰관은 복도를 따라 가다가 오른쪽으로 가라고 했다.

케니와 내가 화장실에서 돌아오자 다른 경찰관이 카운터 앞에 서서 샤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고 있었다. 그 경찰관에게 내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주자 의자에 앉아 부모님을 기다리라고 했다. 엘시는 의자 끝자리에 앉았다. 무릎에 케니를 안고 있었는데 몸부림을 하도 심하게 쳐서 내려놓았다. 케니는 반들반들한 바닥을 뛰어 다녔다. 가끔 한 번씩 발이 미끄러져서 우리 다리위로 요란하게 넘어졌다.

다이앤은 케니가 자기 다리 위에 넘어지자 그만하라고 했다. 엘시는 뭐라

고 하지 않았다. 엘시는 눈을 뜨고 있었지만 멍한 것 같았다. 이따금 엘시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멀리 떠나가는 것이 얼마나 끔찍할지 생각했다.

다이앤 엄마가 제일 먼저 왔다. 다이앤 엄마는 다이앤에게 뽀뽀하고 나서 우리 모두를 차례로 껴안아 주셨다. 엘시 차례가 됐을 때 엘시는 다이앤 엄마를 묵묵히 쳐다봤다. 엘시는 차에 치여 멍해진 동물처럼 보였다. 다이앤 엄마는 모든 얘기를 들으면서 계속 엘시에게 팔을 두르고 계셨다. 나는 다이앤이 트럭을 세우려고 엄지손가락을 내밀었다는 부분은 빼고 말하는 것을 알았다. 다이앤이 말을 마치자 다이앤 엄마는 카운터로 가서 한 경찰관에게 말했다.

샤론의 엄마와 우리 부모님이 그 다음으로 오셨다. 케니가 “엄마, 엄마, 엄마!” 라고 소리치면서 엄마 품으로 달려갔다. 엄마는 케니를 들어 올리고 우리가 있는 의자 쪽으로 걸어 왔다.

샤론과 나는 어떻게 된 일인지 말하려고 서로 끼어들었다. 우린 다이앤이 차를 태워 달라고 엄지손가락을 세웠던 내용도 얘기했다. 다이앤 엄마는 우리와 함께 의자 오른쪽에 앉아 계셨는데 이 말을 듣고는 이맛살을 찌푸리며 다이앤을 쳐다봤다.

샤론의 엄마는 우리 엄마에게 조용히 말했다. “저 분들이 로빈을 제때에 찾으면 좋겠는데.”

나는 큰소리로 말했다. “만일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마는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걱정 마. 경찰에서 찾아 줄 거야.”

경찰서 문이 벌컥 열렸다. 엘시의 엄마가 급히 들어와서 곧바로 카운터로 갔다. 엘시의 엄마와 경찰관은 오랫동안 같이 얘기했다. 경찰관이 전화 받으려고 카운터를 떠나자 엘시의 엄마가 우리 의자 있는 쪽으로 와서 엘시에게 차갑게 말했다. “너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된 거야, 엘시.”

엘시가 몸서리치는 게 느껴졌다. 나는 엘시를 팔로 껴안았다. 엘시의 엄마는 반대편 벽으로 걸어갔다. 팔짱을 끼고 카운터를 보면서 거기에 혼자 서있

었다. 우리 엄마는 케니를 내려놓고 에드워즈 아줌마한테로 갔다. 엘시의 엄마와 조용조용 얘기했다. 에드워즈 아줌마는 지갑 안에서 손수건을 꺼내더니 조심스럽게 눈 아래를 닦았다. 예쁜 것 같았다. 엘시처럼 금발의 곱슬머리와 보조개가 있었다. 그러나 엘시처럼 뚱뚱하지는 않았다. 너무 너무 날씬했다.

“배고파 죽겠어.” 샤론이 자기 엄마에게 말했다.

샤론의 엄마는 다이앤의 엄마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애들에게 뭇 좀 먹여야 되지 않을까요?”

다이앤 엄마가 말했다. “좀 더 기다려 봐요.”

케니가 아빠의 무릎에 엎드려 잠이 들었다.

경찰관이 카운터에서 일어나 에드워즈 아줌마와 얘기하려고 왔다. 뭐라고 했는지 궁금했다. 엄마는 웃으면서 우리 자리로 오셨다. “로빈을 찾았대요. 로빈은 괜찮대요.”

엘시는 숨을 크게 내 쉬었다.

“잘 됐다.” 샤론이 말했다. “이젠 먹을 수 있겠다.”

우리는 모두 일어나서 기지개를 펴고 떠날 준비를 했다. 문에 이르기도 전에 엘시의 여동생이 오렌지 막대 아이스크림을 빨며 자기의 빨간 지갑을 흔들며 뛰어 들어 왔다. 트럭운전기사와 주립 순찰경찰이 따라 들어왔다. 트럭 운전사와 순찰 경찰은 출입금지 문으로 계속 걸어갔다. 에드워즈 아줌마는 자기 품으로 로빈을 와락 껴안았다.

“괜찮니? 괜찮아?” 에드워즈 아줌마가 물었다.

“그럼요.” 로빈이 말했다. 로빈의 두 뺨에는 눈물자국이 말라 있었지만 막대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울었던 기억을 씻은 듯 잊어버린 것 같았다.

에드워즈 아줌마는 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그 아저씨가 너한테 무슨 짓을 했니?”

로빈이 녹아내리는 막대 아이스크림을 들어 올렸다. “저 경찰 아저씨가 이걸 사줬어요.”

“아니, 그 트럭 운전사 아저씨가 너한테 어떻게 했냐니까?” 에드워즈 아줌

마가 말했다.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그저 트럭 뒤편에 앉아 있는데 순찰차가 와서 큰 스피커로 차를 길가로 붙이라고 소리 쳤어요. 그래서 그 운전자 아저씨가 차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경찰관이 우리를 차에 태워 여기로 데려 온 거예요.”

고양이가 밤에 외출해요

경찰서를 나와 우리 가족은 저녁 먹으러 갔다. 엄마가 케니에게 보통의 기본 햄버거를 주문해 줬다. 난 수분이 많은 큰 사이즈 햄버거를 야채 소스 다 넣은 걸로 시켰다. 아빠에게 경찰이 트럭 운전사를 어떻게 할지 물어 봤다.

“아마도 아무 일도 없겠지.” 아빠가 말했다. “만일 그 운전사가 그렇게 멀리 나가게 된 변명을 그럴 듯하게 잘 하면.”

“가연은 엘시.” 내가 말했다. “엘시네 엄마가 엘시한테 화가 잔뜩 나서 엘시를 기숙학교로 보내 버릴 거예요.”

엄마가 엄한 표정을 지으며 나를 빤히 봤다. “엘시는 여동생을 돌보기로 되어 있었잖아. 허락도 없이 너와 케니가 나간 것이 정말 마음에 안 들어.”

난 햄버거를 먹기만 했다. 그 문제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다.

“당신의 직장이 이런 일을 당해도 좋을 만큼 중요한 것 같진 않지, 어?” 아빠가 엄마에게 말했다.

“당신이 불링 치는 것이 이런 모든 문제를 겪어도 좋을 만큼 중요하지도 않죠.” 엄마가 아빠에게 말했다.

집에 오는 동안에는 다소 조용했다. 차에서 내리자 디디를 불렀다. 디디가 배고플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디디가 꼬리를 세우고 집 주변에서 훑고 나오는 것을 보게 될 거라고 기대했다. 디디는 오지 않았다. 나는 계속 디디를 불렀다. 뒤 마당과 차고 뒤 밖을 찾아 봤다. 마침내 아빠가 집으로 들어오라고 소리 쳐서 잠자리로 갔다.

난 오랫동안 잠들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있었다. 피곤했지만 졸리지가 않았다. 엘시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했다. 고양이가 어디에 있는지도 궁금했다. 난 정말로 그 들을 엄청 좋아한다. 마침내 잠들었지만 창문 밖에서 울부짖으며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는 소리에 잠이 깼다. 일어나서 밖의 어둠 속을 가만히 쳐다봤다. 잔디밭을 달려가는 세 마리 동물을 볼 수 있었다. 그 중 한 마리가 디디 인지는 알 수 없었다. 디디가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음날 아침은 일요일이었다.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햇살을 보면서 침대에서 빈둥거리고 있었다. 팬케이크 굽는 냄새가 부엌에서 퍼져 올라오고 있었다. 트럭을 탔던 일은 영화 속에서 벌어졌던 것이 아니었나 싶었다. 기지개를 펴며 팬케이크 위에서 스며 나오는 버터와 시럽을 떠 올렸다. 디디! 디디가 집에 안 들어 왔지! 급히 침대에서 나와 씻으러 갔다. 내가 부르면 디디가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아래층 부엌으로 내려갔다.

디디가 돌아 왔다! 디디는 뒤쪽 계단을 뛰어 올라서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었던 듯이 문으로 들어와 부엌 바닥에 앉았다. 그리고는 어수선하게 흩어진 털을 핏기 시작했다.

난 디디 옆에 쭈그리고 앉았다. “어디 갔다 왔니, 디디?”

아빠와 엄마와 케니는 식탁에서 식사하고 있었다. “저 고양이가 몇 살이지?” 아빠가 엄마한테 물었다.

“아, 6개월 반이 좀 지났어요.” 엄마가 말했다.

“잘 됐네.” 아빠가 비꼬는 듯이 말했다. “고양이 난소를 떼 줬어?”

“아뇨, 당신은 떼어 줬어요?” 엄마가 물었다. 엄마는 확실히 직장에 나가면서부터 아빠에게 용감히 맞섰다. 멋있다고 생각했다.

디디를 팔로 안았다. “당신은 디디가 새끼를 갖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 번 그런 생각을 했지.” 아빠가 대답했다.

평화 회담

월요일의 수업시간은 지루하기 그지없었다. 경찰서에서 나온 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엘시에게 물어 볼 수 있게 밖으로 나가고 싶어 죽을 지경이었다. 한슨 선생님이 우리가 4학년 때 했던 공예를 하게 한다거나 6학년들이 하는 것처럼 영화를 만들게 한다면 수업 시간이 그렇게 까지 지겹지는 않았을 텐데. 하지만 선생님은 우리가 자리에 앉아 조용히 공부하는 것을 좋아 하셨다. 우리가 선생님을 만나기 전에 은퇴해 버렸더라면 좋았을 텐데.

수업이 끝나고 반 애들 중 반 정도가 학교 운동장에서 엘시 주변에 몰려 들었다. 짝은 경찰이 트럭 운전사를 어떻게 했는지 물었다. 난 무엇 보다도 엘시에게 어떤 일이 생기게 될지 알고 싶었다. 우리는 심하게 밀면서 한꺼번에 엘시에게 말을 해댔다.

“조용히 해.” 다이앤이 우리 모두에게 말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

짝이 이 말을 무시했다. “트럭 운전사에 대해서 말 좀 해봐, 엘시.”

“그 운전사는 경찰에게 자기는 트럭에 쓸 경적을 사러 스노 호미스로 가고 있었다고 했어. 엘시가 말했다. 그리고 나서 쇼핑 센타 쪽 린우드로 돌아오려고 했다고 했어. 그 사람은 우리들이 차타는 것을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대.

다이앤이 양손을 허리에 갖다 댔다. “그럼, 그때 네가 창문을 두드렸을 때 그 운전사 아저씨가 대답하지 않은 건 어떻게 된 거래?”

“그 아저씨는 라디오를 들고 있었다. 주립 순찰차가 차를 세우라고 할 때 까지도 우리가 트럭에서 뛰어 내린지도 몰랐대.”

“경찰에서 그걸 다 인정했대?” 짝이 물었다.

엘시가 어깨를 으쓱했다. “모르겠어.”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그 아저씨가 주 경계선을 넘어가지 않은 것이 정말 다행이래. 넘어 갔다면 정말 큰일 났을 거래.” 샤론이 말했다. 샤론은 맨 날

누구한테든지 자기 엄마가 한 말을 말해 준다. 샤론이랑 친하게 되면 그녀 엄마가 한 말을 직접도록 들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아저씨한테는 아무 일도 없게 되는 거야?” 잭이 계속 물었다.

“경찰이 경적이 없이 운전했다고 그 운전사 아저씨한테 딱지를 끊었어.”

“하 참, 그 사람은 쉽게 풀려난 거네.” 레스터가 말했다.

“그런 트럭에 탄걸 보면 너희 여자 애들은 분명히 멍청한 거야.” 잭이 우리에게 말했다.

난 그 일에 대해서는 듣고 싶지 않았다. 엘시네 엄마가 엘시에게 어떻게 할 건지 듣고 싶었다. “니네 엄마는 널 멀리 보낼 거래?”

엘시가 운동장 바닥을 내려다보며 주변에 자갈돌을 발로 찼다. “난 6월에 기숙학교 여름캠프에 들어가야 해.”

“겨우 한 달 남았네.” 마리앤이 말했다.

남학생들이 떠났다. 개네들은 엘시한테 무슨 일이 생기는지 관심이 없었다. 우리 여자 애들은 집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마리앤은 우리랑 중간쯤까지 같이 갔다. 마리앤은 손을 뺀어 엘시의 손을 잡고 서로 흔들면서 걸어갔다. 난 마리앤한테 손을 잡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은 거 아니냐고 말하고 싶었다.

다이앤과 엘시와 나는 산수책은 펴지도 않은 채 다이앤네 집 부엌식탁에 둘러앉았다. 분수는 일주일 후면 끝난다. 실제로 더 이상 엘시가 우릴 가르칠 필요는 없었지만 우리 엄마는 그 주는 끝까지 같이 공부해야 한다고 하셨다. 엄마는 내가 매번 백 점 받는 것을 좋아 하셨다.

다이앤은 손가락으로 포도 주스 잔속의 얼음을 위 아래로 툭 쳐서 밀었다. “네 동생이 트럭으로 다시 올라 탄 것은 네 잘못이 아니었다고 엄마한테 그냥 설명할 수는 없을까?”

엘시가 머리를 가로 저었다. “엄마는 내가 설명하는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 엄마는 왜 내가 가야 하는지를 나에게 설명하셔.”

내가 에드워즈 아줌마를 본 바로는 그럴 거라고 생각했다. “네 엄마에게

말해 줄 어른이 있어야겠다.” 내가 말했다. “니네 엄마는 어떨까, 다이앤?”

“우리 엄만 아냐.” 다이앤이 대답했다. “니네 엄마다. 니네 엄마는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분이셔.”

사실이었다. 우리 엄마는 누구한테나 불임성 있게 말 할 줄 알았다. 직장에서도 엄마는 벌써 그 묘목상에 있는 다른 판매원들 보다 하루에 더 많은 묘목을 팔고 있었다.

내가 집에 오자 엄마는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다. 난 엄마가 기분이 좋아 지도록 샐러드 만들 야채 썰는 일을 도와 드렸다. 토마토를 썰면서 불쑥 물었다. “엄마가 에드워즈 아줌마를 찾아 갈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왜 내가 그래야 하는데?” 엄마가 물었다. 엄마는 생선을 전기오븐에 넣고 있었다.

엄마가 끝내기를 기다렸다. “엘시네 엄마는 엘시가 자기 여동생을 트럭 밖으로 나오게 할 수 없었던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에드워즈 아줌마는 엘시와 그 여동생 모두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

“엄마, 엘시에게는 더 이상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엘시는 우리가 포도 주스를 마실 때 자몽주스를 마셔요. 절대 음식을 따로 더 손대지도 않아요. 엄마, 엄마는 누구나 엄마 말을 듣게 할 수 있잖아요. 에드워즈 아줌마한테도 말해 볼 수 있잖아요.”

“좋아, 한번 해 보마.” 엄마는 생선이 어떻게 돼 가는지 보려고 오븐을 들여다봤다.

난 거의 내 말을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엄마가 그렇게 선선히 승낙해 주셔서 놀랐다. “언제 가실 거예요?” 내가 물었다.

“어, 내일 시간이 나면.” 엄마는 김이 나는 완두콩 냄비 뚜껑을 열었다. “다 된 것 같구나. 이 음식을 식탁으로 가져가거라.”

다음날 오후에 내가 집에 왔을 때 엄마는 집에 안 계셨다. 나는 엄마가 에드워즈 아줌마와 같이 계셨으면 하고 바랬다. 내가 식탁을 차리고 약간의

감자를 구우려고 오븐 안에 넣었다. 엄마를 위해서 다음에는 뭘 해야 할지 생각하면서 부엌 한가운데 서있는데 엄마가 오셨다. 급히 거실로 나갔다.

“에드워즈 아줌마한테 갔었어요?”

“응.” 엄마가 말했다. 엄마는 케니의 스웨터를 벗기고 화장실로 들어가라고 재촉했다.

“잘 됐어요?” 내가 물었다.

“아니.”

“왜요?” 난 아빠의 큰 의자 위에 앉았다. 믿을 수가 없었다.

엄마는 큰 소파에 앉았다. “제니퍼, 엘시는 이전 학교에서 정확 당했고 이 학교에서도 여전히 보호관찰을 받으면서 다니고 있는 거야.”

“그건 알아요, 엄마. 하지만 왜 엘시가 멀리 가야만 해요?”

“엘시는 어딘가 다른 학교로 가야만 해.”

“아마 더글라스 교장 선생님이 가을에는 엘시를 우리 학교에 다시 다니게 해 주실 거예요.”

“아마도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

“왜 에드워즈 아줌마는 최소한의 노력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엄마는 한숨을 쉬었다. “왜 그러는지 나도 모르겠다. 내 생각에는 엘시에 대해 포기했는지도 모르겠다.”

“그 아줌마도 포기 한 것 같은데, 그건 옳지 않아요.”

“글쎄, 제니퍼, 살아가면서 네가 알게 될 일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원하지도 않는데 네가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바르게 해결해 줄 수는 없다는 거다. 에드워즈 아줌마는 우리의 충고를 원하지 않는 것 같다. 그 아줌마가 아마 다른 사람의 충고는 들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충고는 받지 않을 것 같다.”

“엘시한테 전화해서 잘 되지 않았다고 해도 돼요?” 내가 물었다. “엘시는 잘 됐으면, 잘 됐으면 하고 있을 거예요.”

“잘 말해라.”

“그렇게요.” 내가 약속했다.

전화기 쪽으로 가서 엘시네 집 번호를 돌렸다. 엘시가 받았다.

“안녕, 제니야.” 내가 말했다. “미안해, 근데 우리 엄마가 잘 되지 않았다고 그러셔.”

“알아.” 엘시가 낮은 소리로 대답했다.”

잠깐 동안 가만히 있었다. 엘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아서 내일 학교에서 보자고 하고 끊었다.

다음날 학교에서 집으로 걸어오면서 다이앤은 실망하고 있었다. 우리 엄마가 설득할 수 없었다면 엘시네 엄마를 설득해서 엘시를 그냥 있게 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여겼다. 나는 아마도 에드워즈 아줌마가 다른 사람의 충고는 들을지도 모른다고 우리 엄마가 말했음을 강조했다.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샤론이 끼어들었다. “니네 엄마는 확실히 니네 여동생을 편애하는 것 같다고 하셨어, 엘시.”

“그러셔.” 엘시가 힘없이 말했다.

우린 크리스 존슨네 집 옆을 걸어가고 있었다. 크리스, 마크 하워드와 다른 6학년 남자애들이 차고 앞 농구대에 농구공을 던져 넣고 있었다. 우리가 지나가는데 크리스 존슨이 공을 잡고 있었다. “이런, 이런, 대단한 삼인조가 볼링 핀 세 개와 볼링 공 하나로 변했네.”

“아니지.” 남자애들 중 한 애가 그 말을 정정했다. “저건 세 개의 아스파라가스와 노란 토마토 하나지.”

내가 돌아보며 남자애들에게 소리 질렀다. “입 좀 닥쳐, 크리스 존슨! 네 코는 흑처럼 구부정하고 눈은 돼지 눈처럼 찌졌어. 너도 할 말이 없을 텐데.”

크리스가 공을 자기 가슴에 대며 당황한 척하면서 다른 남자애들 쪽으로 뒤로 물러났다. “왜 그래, 제니퍼 소이여, 난 니가 아랑곳 하지 않는 줄 알았어.”

다이앤이 웃었지만 난 웃지 않았다. 남자애들은 편견이 심했다. 개네들이

보란 듯이 걸어가면서 나는 엘시 손을 잡았다.

저녁 식사가 끝나자 나는 거실로 가서 무릎에 디디를 안고 큰 소파에 앉았다. 엄마는 옆에서 코바늘 뜨개질을 하고 계셨다. “디디가 좀 살찐 것 같지 않아요?” 내가 물었다.

엄마가 뜨개질하다가 얼굴을 들고 쳐다봤다. “살찐 것 같지 않은데. 걱정 마라. 살이 찢 거다.” 아빠가 신문을 보시며 말했다.

“6학년 남자애들이 학교에서 집에 오는데 엘시를 놀려댔어요.” 엄마에게 말했다. “남자애들이 엘시를 노란 토마토랑 볼링공이라고 불렀어요.”

아빠가 신문을 내려놓고 내 얼굴을 쳐다보았다. “난 네가 몇 달 전에 엘시를 '그 도둑 엘시'라고 불렀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그땐 엘시를 잘 몰랐어요.” 내가 설명했다.

아빠는 신문을 도로 들어 올렸다. “대개 그런 식으로 편견을 갖게 되지.”

내가 디디의 옆구리를 쓰다듬었다. 조금 볼록해진 것 같았다.

여선생님이 웅크했어요

학교에서 봄 연주회가 있던 날, 엘시는 짙은 푸른색 면바지 새 정장을 입고 있었다. 자기 엄마가 만들어 줬다고 했다. 좋은 징조라고 생각했다. 체육 시간에 마샬 선생님도 엘시가 아주 좋아 보이는 것을 알아 차렸다. 남자애들 텔레이 경주가 끝나길 기다리며 우리는 마샬 선생님과 같이 서 있었다.

“아, 엘시, 체중이 엄청 줄었네.” 마샬 선생님이 감탄하셨다. “정말 금방 뼈만 남겠다.”

엘시는 아직은 마르거나 오동통해 보일 정도는 아니었지만 서커스단에 있는 뚱뚱한 여자 모습은 없어졌다.

체중을 한참 더 줄여야 날씬해질 거예요.” 보통 때처럼 솔직하게 엘시가 마샬 선생님께 말했다.

“어, 나머지 체중도 닭고기 스프에 뜬 기름을 걷어내듯이 금방 빠질 거야.”

엘시가 고개를 가로 저으며 자기 신발을 내려다 봤다. “그렇게 쉽지 않아요.”

선생님은 엘시의 등을 토닥거리 주셨다. “너처럼 똑똑한 여자 애라면 할 수 있어.” 마샬 선생님이 호각을 불었고 우린 교실로 돌아가 봄 연주회 장소로 가려고 줄을 섰다.

봄 연주회는 지루했다. 오케스트라 반 애들 전부가 무대에 올라와서 바이올린과 비올라를 킁킁 소리 내며 연주했다. 그 연주가 끝나자 그 애들은 우르르 몰려나가고 밴드부 애들이 올라와서 쑈사¹⁷ 관악기 행진곡을 그럭저럭 연주 했다. 한 시간 반이 걸렸다. 끝나기도 전에 저학년 애들은 몸을 뒤틀기 시작했고 말쑥꾸러기 고학년 생은 발로 앞에 있는 의자를 밀어냈다. “그만 해!” 라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선생님들이 화난 표정으로 통로를 따라 오셔서 쉬잇 하며 가라 앉혔다. 줄 지어 체육관을 나오면서 선생님들은 표정을 바꾸어 웃는 모습을 하며 뒷줄에 앉아 있는 연주 학생들의 학

17 미국의 행진곡 작곡가로 유명한 존 필립 쑈사의 행진곡.

부모들에게 끄덕하고 인사했다.

한슨 선생님이 레스터의 엄마에게 인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엘시가 줄서 있는 뒤쪽으로 빠졌다. “좋은 생각이 있어.” 엘시에게 소곤거렸다. “한슨 선생님에게 너희 엄마에게 말해 달라고 부탁해 보자.”

체육관 모퉁이를 돌면서 엘시는 머리를 가로 저었다. “듣지 않을 거야.”

“한슨 선생님이 협의하겠다고 너희 엄마를 부르면 듣지 않을 수 없을 거야.” 나는 주장했다.

“제니퍼!” 한슨 선생님이 날카롭게 불렀다. “조용히 못하겠으면 이리 와서 나랑 같이 가자.”

거의 5학년 반 문 앞에 올 때까지 나는 한슨 선생님 옆에서 말없이 걸었다. 그 때 내가 수업 끝나고 선생님과 얘기할 수 있을지 물었다.

수업이 끝나자 나는 한슨 선생님 책상 옆으로 내 의자를 가지고 갔다. 한슨 선생님에 대해 말할게 한 가지 있는데, 그건 선생님은 말을 잘 들어 주는 분이라는 것이다. 선생님께 트럭을 타고 갔던 일, 엘시의 여동생과 엘시의 다이어트에 대해 모든 얘기를 했다.

“엘시는 정말로 애썼어요.” 내가 설명했다. “이건 불공평해요.”

말을 하면서 한슨 선생님 책상 위에 있는 카렌다 고리를 손가락으로 계속 만지작거렸다. 선생님이 손을 내밀어 내 손 위에 얹었다. “제니퍼, 제발 다시는 공평하지 않다는 말은 하지 말거라.” 내가 퇴직하고 싶어 질 때가 있다면 그건 더 이상 공평하지 않다는 말을 들으면 안 되겠다는 걸 알게 될 때이다.

“아. 알겠습니다.” 무릎으로 손을 가져왔다. “그건 단지 엘시는 아주 열심히 노력해 왔는데 멀리 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엘시는 한 달 동안 학교 끝나고 다이앤과 내가 산수 공부하는 것을 봐줬어요.”

“그랬구나.” 한슨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위자 뒤쪽으로 기대어 앉으셨다. “그래서 너희가 시험을 잘 본거구나. 궁금했었거든.”

“엘시는 아주 잘 가르쳐 줘요.” 내가 말했다.

“그럴 거라고 상상이 간다.” 한슨 선생님이 수긍했다.

“그러니까 엘시를 도와줄 수 없을까요? 선생님은 이런 말들을 부모님께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아시잖아요.”

선생님은 카렌다를 쳐다봤다. “음, 에드워즈 아줌마와 한 번 더 협의할 때가 된 것 같은데. 어디, 오늘이 금요일 이지. 너희들은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마샬 선생님 체육시간이 들었구나. 다음 주 화요일 체육시간에 협의 일정을 잡을 수 있는지 더글라스 교장 선생님과 의논해서 알아 봐야겠다.”

내가 가려고 일어섰다. 너무 친절하게 대해 주셔서 두 번이나 감사하다는 인사를 했다.

화요일은 수업시간이 지루했다. 오후에야 체육시간이 있으니까 오전시간이 전부 끝나고 나서야 엘시의 엄마가 학교에 오실 것이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체육시간 전에 영어시간이었다. 보통 때처럼 작문을 시작하느라고 킁킁했다. 엘시는 잼싸게 자기 작문을 다 쓰고 나머지 시간을 도서관에서 빌린 책 한 페이지를 보면서 머리카락을 쥐어뜯었다. 그 시간이 끝나 갈 때쯤 나는 작문을 포기하고 화장실 다녀오겠다는 몸짓을 했다. 교실로 돌아오면서 교실 문 밖을 훑듯 쳐다봤다. 에드워즈 아줌마 차가 주차장에 있었다.

“아줌마가 오셨어.” 내 자리로 슬그머니 돌아오면서 엘시에게 소곤거렸다. 엘시가 끄덕였다.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었다.

“체육 할 거니까 줄서.” 한슨 선생님이 지시했다. “조용히! 제발.”

마샬 선생님은 체육시간에 6학년생들 몇 명에게 덤블링 시범을 우리에게 보여 주도록 시켰다. 크리스 존슨이 덤블링을 제일 잘 했다. 다이앤은 마크 하워드라고 생각했다. 엘시는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다.

교실로 돌아오려고 체육관을 나왔을 때는 에드워즈 아줌마 차가 주차장에 없었다. 내가 엘시의 어깨를 움켜잡았다. “이제는 모든 것이 분명해 진거야.” 내가 말했다.

우리가 교실로 들어갔을 때 한슨 선생님은 자리에 앉아 계셨다. 선생님 표정을 보고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알아보려고 자리로 줄 지어 걸어가면서 선

생님 얼굴을 유심히 쳐다봤다. 선생님이 나한테 윈크를 했다. 저렇게 나이든 분이 정말로 나한테 윈크를 했다. 엘시 등을 밀었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뒤 돌아 봤다. 엘시도 그걸 본 것이다.

독서시간 중에 다이앤이 쪽지에 갈겨써서 나에게 보냈다. 쪽지 에는 “한슨 선생님이 너한테 윈크 하신 거야 ???” 라고 써 있었다. 그 쪽지 밑에 그래 라고 써서 도로 건네줬다. 몸을 기울여 엘시를 푹꾹 짚었다. 엘시가 얼굴을 들자 내가 윈크했다. 엘시도 윈크로 답했다. 교실 창문 밖으로 날아 갈수 있을 만큼 기분이 좋았다.

엘시가 수업 끝나고 병원에 가야 해서 다음날 아침 학교에서 엘시를 만날 때까지 협의한 내용을 자세히 듣지 못했다. 학교 정문에 막 도착해서야 엘시에게 가서 한슨 선생님과 엘시네 엄마가 무슨 말을 했는지 말해 달라고 매달렸다.

“한슨 선생님이 지금까지 담당했던 학생들 중에서 내가 제일 행실이 좋아졌다고 하셨다고 엄마가 그러셨어.”

“그냥 있어도 되는 거야? 그냥 있어도 된대?” 내가 엘시의 말을 막았다.

“교장 선생님이 가을에 다시 다녀도 된다고 하면, 그냥 있게 된 대.”

“허락 하실까?” 내가 물었다.

“내가 애들과 같이 정상적으로 쉬는 시간을 보낼 수 있고 더 이상 말썽을 부리지 않는다면 가을에 나를 받아들일 거라고 교장 선생님이 그러셨대. 한슨 선생님은 2주 밖에 안 남았으니까 내가 해낼 거라고 확신한다고 하셨대.”

“한슨 선생님은 실제로는 뺑을 쳐서 말했을 거야.” 다이앤이 말했다.

엘시가 그렇다고 했다. “선생님은 내가 반에서 제일 뛰어난 학생이고 마음씨가 좋아서 다른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을 도와 줬다고 우리 엄마한테 말씀하셨대.”

“그래서 그게 효과가 있었어?” 내가 물었다.

“글쎄, 엄마는 병원 가는 동안 별 말씀 안 하셨어. 근데 내가 병원 체중계에 올라섰는데 2kg이 더 빠져서 전부 14kg이나 빠진 걸 알았어.”

“13kg!” 내가 소리 쳤다. “난 겨우 41kg 나가는데.”

엘시가 부러운 듯이 나를 봤다. “나도 41kg만 나가면 좋겠다.”

“너도 그렇게 될 거야.” 엘시에게 말했다. “내년 일년 내내 우리가 다이어트 계속하게 도와줄게.”

“하지만 우리 엄마를 알잖아.” 엘시가 경계하며 말했다. “내가 하나라도 실수하면.”

“나쁜 일 하면 안돼, 엘시. 나쁜 일 하지 마.” 엘시에게 말했다.

“걱정 마.” 엘시가 말했다. “안 할 거야.”

그리고 엘시는 거의 하지 않았다.

내 신발이 보여요

엘시가 쉬는 시간을 가졌던 첫 주에는 모든 일이 술술 잘 나갔다. 그런데 다이앤이 엘시에게 공을 때리는 것을 가르쳐서 여름동안 우리 모두 소프트 볼 팀원이 될 수 있게 하겠다는 생각을 했다. 엘시는 같이 잘 어울렸지만 야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다. 우리는 경기장 밖으로 엘시를 데리고 나갔다. 내가 공을 던지고 다이앤이 엘시가 스윙하는 것을 가르쳤다.

우리가 하는 모습이 잭의 눈에 띄었다. 잭과 우리 반 다른 남자애들이 구경하려고 떼 지어 몰려 왔다. 엘시가 방망이를 휘둘러 맞히지 못할 때마다 잭은 소리쳤다. “힘내!” 엘시의 이마에 땀이 났다. 내가 공을 던졌다. 남자애들이 숫자를 션다. “하나. 둘. 셋. 불발!”

엘시는 남자애들을 무시하려고 하면서 점점 더 용을 썼다. 다음 투구는 바깥쪽 볼이었다. 엘시가 맞히려고 하다 비틀거렸다. 볼이 엘시 머리를 가까스로 피해갔다. 잭이 엘시 뒤에서 소리 질렀다. “공을 때려야 하는 거야, 똥보, 그걸 삼키는데 아니야.”

엘시는 때리려고 했었다. 엘시가 몸을 빙빙 돌렸고 방망이는 여전히 손에 쥐고 외쳤다.

“집어 쳐, 잭!”

잭은 엘시가 하는 말을 듣지 못한 것 같다. 방망이가 잭의 입을 쳤다. 잭이 땅바닥으로 곤두박질치며 자갈에 얼굴을 박았다. 레스터가 앉히려고 잭을 잡아 당겼다. 잭의 아래 입술에서 피가 쏟아졌다. 엘시는 기겁을 하며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쳐다봤다. 엘시가 저지른 일이다. 엘시가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이 엘시를 위해 좋을 게 없었다. 학교 운동장에서 싸우면 교장선생님은 학부모를 불렀다.

놀이 담당 선생님이 급히 우리를 향해 오는 것이 보였다. 나는 잭 옆에 웅크려 앉았다. “이봐, 잭, 네가 이 일이 엘시 잘못이라고 하면 엘시네 엄마는 엘시를 영원히 기숙학교로 보내버릴 거야.”

“개가 어디 가든 무슨 상관이야.” 잭은 손등으로 입에서 나는 피를 닦으려고 했다. 하지만 자기 얼굴 여기저기에 피를 문대 놓기만 했다.

“잭, 제발.” 내가 애원했다. “교장 선생님은 엘시가 이전에 말썽을 피운 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엘시를 쫓아내 버릴지도 몰라. 제발, 잭.”

놀이 담당 선생님이 나를 밀어내고 잭 옆에 무릎을 세우고 앉았다. 손으로 턱을 잡고 화장지로 피를 눌러서 닦았다. 잭의 얼굴은 입술에서부터 턱까지 찢어졌다.

“자, 양호실로 데려가야겠다.”

샤론이 앞으로 걸어 나왔다. “명심해, 빨간 머리, 이건 스포츠야.”

잭은 샤론을 노려보고 나서 피를 받으려고 턱 아래로 손을 대면서 비틀거리며 갔다.

“뭇 땀에 그런 말을 했니?” 나는 샤론에게 소리 질렀다. 개가 빨간 머리라고 부르는 걸 싫어하는 거 너도 알잖아.

“난 그냥 개가 엘시 얘기를 하지 않게 하려고 한 것뿐이야.”

“개가 말하지 않게 한 거라고! 넌 잭을 화나게 했어.”

“근데, 제니, 너도 어쩔 수가 없었잖아. 나한테 소리치지 좀 마.” 샤론이 신경질적으로 성큼성큼 걸어가 버렸다.

믿을 수가 없었다. 그런 말을 하다니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었다. 샤론이 다이앤처럼 대장노릇 하려고 할 때면 항상 일을 엉망으로 만든다.

엘시의 팔을 잡았다. “이리와, 쉬는 시간이 끝날 때까지 포수자리 위쪽 독 위에 앉아.”

우리는 그냥 앉아 있었다, 아니 내가 그냥 앉아 있었다. 엘시는 눈을 팔로 가리고 등을 대고 누웠다.

“엘시.” 내가 물었다. “기숙학교에 가는 대신에 왜 아빠랑 살수 없는 거니?”

엘시가 팔을 치우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항상 그런 꿈을 꾸. 하지만 그건 그저 꿈일 뿐이야. 그 여자는 절대 아빠가 날 데려오게 하지 않을 거야.”

“넌 이제 그렇게 똥똥하지 않잖아. 아마 허락할지도 몰라.”

“허락 안 할지도 모르는 거지.” 엘시가 다시 눈을 팔로 가렸다.

넌 이젠 돼지처럼 먹지 않잖아. 더 이상 돈을 훔치지도 않는데. 이제는 그 여자도 널 반기지 않을까? 어, 엘시?”

하지만 엘시는 대답하려 하지 않았다. 엘시는 어느 누가 자기를 좋아하게 될 거라는 것을 절대 믿지 못한다.

독서시간에 교내 방송이 나왔는데 틀림없이 교장실에서 엘시를 보내 달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대신에 사무직원이 한슨 선생님께 책의 점심 도시락과 책을 사무실로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레스터가 그 물건들을 사무실로 가지고 갔다.

수업이 끝나고 우리 여자 애들은 레스터를 붙들었다.

“책은 어디 가는 거니?”

“책에게 무슨 일이 생겼어?”

“왜 교실로 돌아오지 않는 거니?”

“너희들 다 바보야?” 레스터가 말했다. “책의 엄마가 책을 데리고 스티븐스 병원으로 갔어. 간호원이 책은 상처를 꿰매야 할 거래.”

엘시는 이 말을 듣자 자기네 집 쪽으로 가버렸다. 나는 엘시 뒤를 쫓아 뛰어갔다. “잠깐만 기다려, 엘시. 아마 책은 말하지 않을 거야.”

엘시는 계속 터벅터벅 걸어갔다.

엘시의 팔을 잡아끌었다. “기다려, 엘시. 다이앤네 집에 가 있다가 책이 집에 오면 전화해 보자.”

엘시는 계속 갔다.

“책은 말하지 않을 거야.” 내가 다른 애들이 있는 데로 돌아오자 마리앤이 말했다. “책은 절대 다른 사람에 대해 뭐라고 하지 않아.”

“샤론이 빨간 머리라고 책을 부르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말했다. “그런 말을 하다니 바보 같은 것이었어.”

“글쎄, 어느 누구도 완벽할 수는 없어.” 샤론이 날카롭게 말했다.

다이앤네 집에서 우리는 열 한번이나 책과 통화하려고 했지만 받지 않았

다. 다이앤은 스티븐스 병원에서 의사의 진찰을 받으려면 한없이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그런가 보다. 결국 나는 포기하고 집으로 와야 했다.

부엌에 우리만 있는 동안 엘시와 잭에 대해 엄마에게 말하려고 했지만 엄마는 학부모와 교사 협회를 위해 케이크를 만들고 감자가 다 익어서 케이크를 오븐에 넣을 수 있는지에 대해 중얼거리며 바쁘게 돌아 다니셨다.

저녁은 한없이 오래 걸렸다. 내가 접시에 완두콩을 찌그러뜨리는 것을 아빠가 쳐다보고 있는 것을 알아챘다. 급히 크게 몇 입 베어 입에 넣고 통째로 꿀꺽 삼켜버렸다. 잭에게 전화해서 엘시가 끝장나게 됐는지 알아 볼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럴 필요가 있었다. 아빠는 집에서 전화 통화를 못하게 하는 규칙을 정해 놓으셨다.

아빠가 텔레비전에서 야구경기를 볼 때까지 기다렸다가 엄마한테 그 사고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아빠는 내가 잭에게 전화하고 싶어 하는 내용을 일부 들으셨는데도 내가 전화하지 못하게 했다. “은 종일 친구들을 만나잖아. 한밤중까지 친구들과 얘기 할 필요는 없어.”

엄마가 아빠를 보며 아주 다정하게 웃었다. “근데, 이런 특별한 경우에는 5분 동안 전화를 사용하게 해 줄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아빠는 잠시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듯했다.

텔레비전 아나운서가 말하고 있었다. “자 날아갑니다! 필드 좌측 담장을 넘었습니다!”

“좋아.” 아빠가 재빨리 말했다. “5분 만이야.” 그리고는 다시 야구 경기에 빠지셨다.

난 수화기 앞으로 뛰어갔다. 정말이지, 엄마가 자신의 독자적인 결정을 하기 시작한 것이 반가웠다. 잭의 엄마가 받았다. 목소리가 아주 반가워하는 것 같지 않았다. 내가 전화했다는 것을 알자 잭도 반가워하지 않는 듯 했다.

“입술은 어때?” 내가 물었다.

“너의 그 멍청한 친구 덕분에 여섯 바늘이나 꿰매서 말하려면 아파.”

“엘시에 대해서 말했니?”

“날 뭘로 보는 거야, 밀고자? 이봐, 그만 끊어야 해.”

“알았어.” 내가 말했다. “엘시를 살려줘서 너무 고마워. 이젠 엘시가 내년도 우리 학교에 다니게 될 거야.”

“큰 일했네.” 잭이 말하고는 끊어 버렸다.

급히 엘시네 전화번호를 돌렸다. 엘시가 전화 받은 걸 보니 엘시네 엄마가 안 계신 게 틀림없다.

“엘시.” 내가 말했다. “잭이랑 통화했는데 말 안 했대.”

엘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엘시, 듣고 있니?”

“응, 너무 겁이 나 있어서 그래.” 엘시 목소리가 우스꽝스럽게 들렸다. 엘시가 긴장할 때면 머리를 항상 그랬던 것처럼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던 건 아닌지 궁금했다.

“금요일 수업 끝날 때 까지 쉬는 시간마다 도서관에 그냥 있는 게 좋겠다.” 내가 말했다. “그러면 너한테 어떤 나쁜 일도 일어날 수 없을 거야.”

엘시가 그러자고 했고 그렇게 했다. 엘시와 나는 금요일 까지 쉬는 시간마다 도서관으로 몰려갔다. 우린 둘 다 책 읽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괜찮았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책은 「지금까지 봤던 것 중 제일 멋있었던 크리스마스 행렬」이라는 책이었다. 엘시는 도서관에서 온갖 동물 이야기책을 읽었고 제일 좋아했던 것은 「야수 샘」이었다. 디디가 새끼를 배면 고양이 새끼를 엘시한테 주겠다고 약속했다.

한슨 선생님이 수업이 끝나기 바로 전에 성적표를 주셨다. 우리가 학급 파티를 하고 청소하고 나니까 5학년이 거의 끝났다. 한슨 선생님의 머리는 엉망이었고 피부는 입 주위에서 처져 있었지만 우리에게 성적표를 나눠 주면서 일일이 웃어 주시며 잘 가라는 인사와 함께 즐거운 여름을 보내라고 말해 주셨다. 한슨 선생님이 엘시에게 다가갔을 때 성적표에 교장 선생님이 쓰신 쪽지가 있다고 하시며 엘시가 내년에 다시 오게 되서 기쁘다고 하셨다.

내가 “만세” 라고 외치며 엘시를 껴안았고 엘시도 우리가 교실에서 채 나가기도 전에 나를 껴안았다.

“엘시, 쪽지 읽어봐.” 우리가 학교 건물을 벗어나자 다이앤이 말했다.

우린 엘시 주변에 몰려서서 교장선생님의 쪽지를 같이 봤다. 더글라스 교장 선생님은 지난 몇 달 동안 엘시의 모범적인 행실 때문에 내년 가을 학기에 엘시가 다시 돌아오게 되면 좋겠다고 쓰셨다.

“'모범적인 행실'은 뭘 말하는 거지?” 샤론이 물었다.

“알게 뭐야.” 내가 말했다. “엘시가 그냥 있게 됐어.” 난 정신없이 내 성적표를 꺼냈다. 산수에서 B를 받았다. 다이앤도 B였다. 엘시는 A를 받았다.

다이앤은 앞으로 폴짝 뛰어나갔다. “수영하러 가자.” 다이앤이 말했다.

엘시는 자기 신발을 보면서 걸어갔다. 나는 지난달 내내 엘시가 자주 자기 신발을 본다는 것을 알아챘다. 왜 맨날 자기 발을 보는 건지 물어 봤다.

“난 내 신발을 볼 수 있어.” 엘시가 웃으면서 말했다.

“누구나 자기 신발을 볼 수 있는데.” 내가 말했다.

“아니, 누구나 볼 수 있지는 않아. 난 2년 동안 볼 수 없었어.”

“정말로 그렇게 똥똥했었어?” 샤론이 물었다.

“똥똥했었어.” 엘시가 대답했다. “있는 그대로 말할게. 그냥 똥똥한 게 아니었어. 난 어마어마했었어.”

“그래서 우리가 심술궂게 굴었어,” 내가 말했다. 내가 엘시한테 어떻게 했는지를 생각하니 부끄러웠다.

“넌 그랬었지,” 엘시가 맞장구를 쳤다. “하지만 나는 먹기만 했었어.”

“이봐, 굼벵이들아!” 다이앤이 우리 앞에서 불렀다. “덥다. 물에 가자.” 난 엘시의 손을 잡았다. 우린 따라 잡으려고 뛰어갔다.

작가 소개

Barthe DeClements는 교사이면서 카운슬러이기도 했다.

데클레멘츠여사가 5학년을 가르치는 동안 학생들이 철자법이나 작문에 흥미를 갖게 하려고 했다. 작문 스토리를 시작하면서 매주 칠판에 한 단락 작문을 써줬다. 학생들은 그 스토리 작문에 같이 참여했고 결국 「5학년 때에는 모든 게 불만이에요」 (*Nothing's Fair in Fifth Grade*)라는 첫 번째 소설이 나오게 되었고 이 책은 미국에서 The award-winning national best seller이다.

이 작가는 고독이 글을 쓰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작가는 현재 오두막집에서 살고 있는데 이 집은 작가의 네 자녀 중 막내가 지어준 집으로 워싱턴 주에 있다.

이 책은 작가의 사랑하는 아들 크리스토퍼에게 헌정되었다.

참고문헌

1. 국내서

- 김재현 「번역의 원리와 실제」. 서울: 한신문화사, 1995.
- 김효중. 「번역학」. 서울: 민음사, 1998.
- 안정효. 「영어 길들이기(번역편)」. 서울: 현암사, 1997.
- 유영난. 「번역이란 무엇인가」. 서울: 태학사, 1991.
- 이근달. 「영문 번역의 노하우」. 서울: 시사영어사, 1998.
- 이기문. 「번역의 길잡이」. 서울: 백산출판사, 2001.
- 지정숙. 「번역의 기초이론」. 서울: 도서출판 한국번역연구원, 1997.
- 최정화. 「최정화 교수의 통역 번역 노하우」. 서울: 넥서스, 2001.

2. 번역서

- Bassnett, Susan 저 / 엄재호 역: 「번역학 개론」. 서울: 인간사랑, 1999.
- Koller, Werner 저 / 박용삼 역: 「번역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숭실대학교 출판부, 1997.
- Lederer, Marianne 저 / 전성기 역 : 「번역의 오늘: 해석이론」.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1.
- 마쓰모토 야스히로 / 마쓰모토 아이린 저 / 김정우 역: 「영어번역을 하려면 꼭 알아야 할 90가지 핵심 포인트」. 서울: 창문사, 1997.

3. 국외서

- Baker, Mona. *In Other Words*. New York: Routledge, 1992.
- Bassnett, Susan. and Lefevere, Andre. *Constructing Cultures*.
Bristol: Multilingual Matters Ltd, 1998.
- Hatim, Basil and Mason, Ian. *The Translator as Communicator*.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7.
- Hickey, Leo, ed. *The Pragmatics of Translation*.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1998.
- Karttunen, Frances. *Between Worlds*. New Jersey: Rutgers
University Press, 1994.
- Katan, David. *Translating Cultures*. Manchester: ST. Jerome
Publishing, 1999.
- Robinson, Douglas. *Becoming a Translator: an accelerated course*.
Londong and New York: Routledge, 1998.
- Schaffner, Christina, ed. *Translation and Quality*.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1998.
- Vandaele, Jeroen. *Translating and the (Re)Location of Meaning*.
Leuven: CETRA, 1999.
- Venuti, Lawrence. *The Translator's Invisibility: a history of
translat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7.